현대불교

hyunbulnews.com 안내 (02)2004-8200 구독 (02)2004-8212

제862호 2011년 11월 16일 수요일 (음력 10월 21일 · 불기 2555년 · 주간)

만일 어떤 비구가 남의 마음을 잘 관찰하지
못한다면 마땅히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중아함경〉



우리문화재 ▶3면

계파 나눠먹기 심각

퇴휴 스님, 정웅기 집행위원장, 2년차 조계종 집행부에 쓴소리

조계종 제33대 집행부가 11월 5일로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종단은 2주년 평가 간담회에서 '낙제점은 면한 활동'이라고 자평하면서도 승려노후복지 시행, 승가교육 현대화, 한국불교 세계화 등 치적을 앞세운 면이 없지 않았다. (본지 제861호 보도)

이에 대해 종단에 건전한 비판 의견을 견지해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퇴휴 스님과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의 의견을 정리했다.

"측근 중심의 인사와 계파간 나눠먹기 폐해가 심각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해야하는 중앙종회도 무력화 됐다. 요란한 구호 속에서 사업을 추진했지만 성과는 미흡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퇴휴 스님은 본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한 집행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측근을 요직에 배치하고, 줄세우기를 시도하면서 권한이 중앙으로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스님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종단의 미래가 어둡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승려노후복지 실행과 승려 사후 재산 종단 출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민족문화수호를 외치며 추진했던 5대 결사를 '권력형 동원 운동'으로 규정하고,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퇴휴 스님은 "집행부가 주도하는 운동방식으로는 자발성을 촉발시킬 수 없다. 결사 초기에 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더니 방향성이 점점 흔들리며 아직까지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구호만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그러나 집행부가 출범 초기의 불안정한 모습을 잘 극복하고 비교적 안정된 운영을 펼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대정부 관계에서 원칙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려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종단은 템플스테이 예산이 삭감되자 정부 인사의 산문 출입을 금지하며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를 실시하며 대정부 강경책을 펼치다가 정부의 유화 제스처에 금방 기조를 변경했다.

퇴휴 스님은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스님은 "사고는 부장들이 치고 수습은 총무원장이 하는 불협화음이 33대 집행부 출범 초기에 많았다. 집행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는 듯한 모습이 아직도 나타난다"고 말했다. 총무원장의 의지를 집행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파적 이익에 함몰돼 동력이 분산된다는 지적이다.

퇴휴 스님은 "지난 2년의 성적은 6점 정도 되는 것 같다. 적재적소에 훌륭한 인재를 선발해서 배치하고, 금권선거가 사라져야 한다. 세력 확산보다는 종단 발전을 위한 총무원장과 집행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집행부가 청빈한 삶을 기대하는 불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치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집행위원장은 "불자나 신도들이 기대하는 바를 집행부가 잘 모르는 것 같다. 불교 자주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으나 구체적인 시도를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종교의 본래 가르침에 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또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종책이 부합하는지 돌아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웅기 집행위원장은 승려노후복지 시행과 결사추진본부 출범은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했다. 정 집행위원장은 "결사에서 불자들의 뜻을 잘 담고 있는지, 담아낼 계획인지 점검해야 한다. 이것을 잘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불교계 전체의 역량과도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5점 정도의 평가를 내린다. 시도는 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도 없고 본질을 찾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떡' 하니 사랑 합시다 조계사(주지 토진)가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묻혀 잊기 쉬운 '농업인의 날'을 맞아 도농 교류를 위한 행사 '우리 떡하니 사랑합시다'를 마련했다. 행사는 농민들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땅(土)의 의미를 되살리고 도농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11시 11분 11초에 시작됐다. 11(十一)은 흙을 풀어쓴 형태를 지니고 있다. 조계사 주지 스님의 법명도 토진(土眞)이라 연관이 크다는 게 조계사측 설명이다. 토진 스님은 "떡을 써는 칼은 우리 농민의 시름을 씻어내는 부처님의 지혜일 것이다. 조계사가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내고, 농민의 날을 되찾아 오겠다"고 말했다.

글=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결제는 죽는 가운데 살 길 찾는 일

조계종 100여 선원 등서 불기 2555년 동안거 결제

11월 10일(음력 10월 15일), 불기 2555년 동안거 입재법회가 전국의 선원 · 사찰 등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조계종 기준 2200여 수좌를 비롯한 전국 사찰의 스님과 신도들은 이날 입재식을 시작으로 안거기간 불퇴전의 용맹정진에 돌입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동안거 결제 법어에서 "생(生)의 한 편에 얽매여 사(死)를 보지 못하거나 사(死)의 한 편에 얽매여 생(生)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화두를 들고서 결제하는 납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죽어도 제대로 죽기만 한다면 거기에 또 살길이 열리는 것이 이 공부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은 법어에서 아만을 버릴 것을 강조했다. 스님은 "옛 사람의 말씀에 '아만을 갖고 공부하는 것은 섭나무를 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했다. 고인의 가르침에 따라 아만부터 버리는 것으로 공부의 기초를 삼기 바란다"고 말했다.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은 "보고 듣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바로 여기에서 분명히 해 의심이 없으면 영원히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고통은 없어지고 즐거움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법어를 내렸다.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은 법어에서 "모든 마음을 놓아 버리고 그렇게 했다면 마치 거울이 물건을 비추는 것과 같으며 골짜기가 메아리를 울리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법어를 내렸다.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은 법어에서 "근본을 찾는다면서 참 근본은 외면한 채 밖으로 치닫고 있다. 찾고자 애쓰는 그 생각부터 먼저 내려놓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불성은 당당하게 드러나는데 정에 집착하는 유정은 보지도 못한다. 만약 사람이 나란 것 없음을 깨닫는다면 나와 부처의 얼굴이 무엇이 다르랴"고 법어를 내렸다.

관련기사 3 · 7면

조동섭 기자

"안철수와 새 정치 만드는 고민 중"

법륜 스님 與 초선의원 모임 '민본21' 강연서 밝혀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사진)이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모임에서 "안철수 원장과 시대정신과 역사적 소명을 다하는 정치를 만드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법륜 스님은 11월 10일 한나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민본21'에서 특강을 가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평화재단이 기획한 '청춘콘서트'가 안철수 열풍의 배경에 있었다는 판단에서 정치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스님을 초청했다.

법륜 스님은 강연에서 "평화통일과 양극화 해소가 우리시대의 가장 큰 과제"라며 "국가 개혁을 위해서는 지지층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당파와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계층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보수는 중도 · 진보를, 진보는 중도 · 보수를 아우를 수 있어야한다. 이 과정에서 안철수 원장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륜 스님은 최근 안철수 원장 등이 주축이었던 '청춘콘서트'가 끝나자, 자신이 직접 강사로 나선 '희망세상 만들기'를 열고 있다. '희망세상 만들기'는 9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100회 강연을 목표로 월~금요일 전국 각지를 돌며 하루에 두 번씩 일반인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cafe.daum.net/ hopestory100

관련기사 12 · 13면

조동섭 기자

조계종지 현대적으로 어떻게 살릴까

23일 오후 2시 대토론회서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는 11월 2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11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조계종지(曹溪宗旨)의 현대적 구현'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서는 학담 스님(대승사 주지)이 주제발제하고 종광 스님(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 화랑 스님(동국대 교수), 설우 스님(진불선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조계종 종헌 제2조는 "본종은 석가세존의 자각각타 각행원만(自覺覺他 覺行圓滿)한 근본교리를 奉體(봉체)하며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함을 종지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862호 CONTENTS

종단 2
종책질의 두고 주먹다짐
금정산 터널공사 철회 결의
법응 스님, 서울시장 공개 편지

종합 3
참당선원장 을광 스님
수행자 프리미엄 없애라

특별기획 5
디자인 템플

종합 6
자정과 쇄신 결사 세미나

동안거 결제 법어 7

현장속으로 11
논산 육군훈련소 법당 상량식



법륜 스님의 신혼여행 12 · 13







종책질의했다고 주먹다짐 해서야

심우 스님, 해인사 · 무량정사건 질의한 제정 스님 폭행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종책질의를 문제 삼아 한 종회의원스님이 다른 의원스님을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심우 스님은 11월 4일 오전 본회의 직후 해인사 임회 및 무량정사 현안에 관련한 종책질의를 문제 삼아 제정 스님을 폭행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중앙종회(종회의장 보선)는 11월 8일 종회 속개에 앞서 회의를 열고 4일 종회 종책질의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앙종회 종책모임 중진의원들과 회의를 통해 "이번 일을 야기한 심우 스님은 금번 회기를 비롯해 내년 상반기까지 중앙종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결의했다"며 "상대편인 제정 스님도 이번 회기에는 종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번 사태의 원인인 해인사 임회 개최 건 및 무량정사 관련된 현안을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해 내년 3월 종회에서 보고토록 했다"고 밝혔다.

심우 스님은 "종회의원스님들에게 누를 끼친 점을 참회한다"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제정 스님은 "심우 스님의 참회를 수용한다. 향후 종책질의에서 폭력 등 물의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의 발단은 9일 열린 제187차 임시종회에서 제정 스님이 해인사의 남양주 무량정사 무상증여 건과 관련한 재무부 종책질의에서 시작됐다.

제정 스님은 "해인사가 공찰인 남양주 무량정사를 교구 재적승도 아닌 특정 스님에게 무상증여했다"며 "8월 13일 해인사 임회에서는 무량정사를 매매하겠다고 하고는 어떻게 총무원에는 무상증여로 넘기겠다고 승인 신청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우 스님은 4일 오전 회의 직후 제정 스님에게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제정 스님의 팔 등을 가격했다.


사태를 참회하는 심우 스님


참회를 받아들이는 제정 스님

해인사는 제정 스님에게 불참 시 산문출송시키겠다며 임회 출석을 요구했다. 한편,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상임공동대표 퇴휴)는 10일 성명을 내고 종회의원 품위를 훼손한 심우 스님의 제명 및 모든 공직 사퇴를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코엑스 증축 철회

법응 스님, 박원순 시장에 서한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운영위원 법응 스님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봉은사 앞 코엑스 건물의 증축 중단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11월 7일 발송했다. 스님은 강남구청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추진하는 코엑스 건물 증축이 역사문화도량인 봉은사를 위협하는 '폭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응 스님은 "봉은사 전면에 39층 초대형 빌딩을 신축한다면 역사문화도량에 대한 보호의 의무와 가치를 외면한 우리의 몰상식성과 천박함, 빈곤한 반인문성을 내외에 공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건물이 고층화된다고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고, 문화와 예술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회구성원들의 도덕적, 심미적 가치가 향상되고 소중한 것들이 잘 지켜지며 삶의 질이 향상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코엑스건물의 고층화는 중지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눈으로 보고 가슴에 새기는 **우리 문화재 ④**

두 마리 사자가 전하는 천년의 빛

보은 법주사 쌍사자 석등 (報恩 法住寺 雙獅子 石燈) 국보 제5호

통일신라/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209 법주사



법주사 쌍사자 석등(국보 제5호 · 사진)은 국내 대표적 쌍사자 석등으로 사자를 조각한 유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조각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각기법이 우수해 통일신라시대 대표적 사자조각 석등으로 평가받고 있다.

두 마리의 사자가 앞발을 높이 치켜들고 화사석(火舍石)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석등(石燈)은 절이나 능묘 · 정원 등에 불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는 등기(燈器)를 말한다. 석등이 세워진 시기는 성덕왕 19년(720)으로 추측된다.

신라의 석등이 8각 기둥을 주로 사용하던 것에 비해 두 마리의 사자가 이를 대신한 디자인은 당시로는 획기적인 시도였을 것이다. 이 석등을 좇아 통일신라는 물론 후대에 가서도 이를 모델로 따르는 유물들이 다수 발견된다. 석등의 높이는 3.3m에 달하며 불을 밝혀두는 화사석은 8각으로 높직하고, 네 곳에 창을 내어 불빛이 새어나오도록 했다.

2003년 정밀조사 결과, 화사석 균열과 사자조각의 표면 박락 현상이 지속 관찰됐다. 2005년 재조사 결과에서도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충북 보은군은 1억5000여 만원을 투입해 쌍사자 석등의 해체, 균열부위 접합, 세척, 경화처리 등 보존처리작업을 완료했다.

복원이 완료 돼 우리 곁으로 돌아온 쌍사자 석등, 법주사를 밝혀온 1000년의 시간만큼 앞으로도 우리 곁에서 중생의 무명을 밝혀주는 빛이 되어 주길 기대한다.

조동섭 기자

내년도 예산 총무원안대로 통과

제188회 정기종회서, 질의 한 건 뿐… '만장일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는 11월 8일 불기 2556(2012)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과 종법 제개정, 위원 선출, 결의문 채택 등 19개 안건을 처리하고 제188회 정기종회를 폐회했다.

7일까지 진행된 중앙종무기관 종정감사에 이어 8일 속개된 정기종회에서는 종무보고와 종책질의가 6시간 여 이어지며 위원 선출, 결의문 채택 등을 처리했다.

관리사찰이었던 서울 약사사 직영사찰 지정의 건은 논란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한우 · 덕관 스님을 선출했다. 동국대 이사 후보로 일면 · 정범 · 성타 · 종성 · 삼보 · 도완 스님의 추천을 동의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감사 후보로 탄웅 스님과 백영식 前 인천불교대학 교수 등을 추천 동의했다.

중앙종회는 폐회에 앞서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부산 금정산 관통 터널 공사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의례 한글화 과정으로 진행 중인 한글 칠정례와 한글 〈천수경〉은 추가 논의키로 했다. 초심호계위원은 피추천자가 없어 다음 회기로 이월됐다.

지난 제187회 임시 종회에서 이월된 '새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대한 중앙종회 결의문'은 총무원과 행정안전부간의 협의 진행사항을 지켜보기로 했다.

2012년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인 일반 회계 221억 5567만 8000원, 특별회계 193억 1453만 4000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보다 각각 3억 1587만원(1.45%), 87억 7351만원(83.2%) 늘어난 수치다.

이는 2012년 통합종단 출범 50주년 기념사업과 이에 따른 각종 행사 지원비, 승려복지 시행에 따른 특별회계 증가(40억원)의 요인이 크다.

한편, 이날 종회에서는 총무원이 작성한 종회 예산안에 대해 장명스님만이 결사추진본부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을 뿐 다른 의원스님들로부터는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원안통과 됐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파주 보광사 토지사용 계약 재조사

종회 종책질의서 계약서 사본 드러나, 특별감사 요청

파주 보광사가 종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찰소유지를 교회에 임대하는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

보광사는 6월 종단 기채 승인을 전제로 새문안교회와 사찰 토지 사용에 관한 임대 계약을 맺었으나 총무원의 미승인으로 계약이 파기됐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종단 승인을 전제로 원본 파기에도 계약은 유효하다는 사본 계약서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은 특별재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11월 8일 열린 제188회 정기종회 종책질의에서 종회의원 정산 스님은 재무부장 도문 스님에게 "보광사가 원본과 다른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도문 스님은 "현재 보광사가 계약서 원본을 봉선사에 제출해놓았으며 공사는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도문 스님은 "오늘 사본과 다른 계약서가 확인됐는데 '사본은 원본과 같고 이를 회수해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감사 기만 행위로도 판단된다. 이에 보광사에 대한 특별재감사를 총무원과 본사 합동으로 진행할 것으로 요청했다"고 공개했다.

도문 스님은 이어 "공사 허가를 우려해 파주시에 세 차례나 공문을 보내 계약 공개를 요청했으나 불가하다는 답신이 왔다"고 말했다.

정산 스님은 "3개월 전 사건으로 의혹이 많이 제기됐는데 조치가 늦다. 현 주지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회의원 덕수 스님은 "어제 보광사에 갔는데 10월 28일까지 공사가 진행됐고, 도로가 이미 개설돼 컨테이너로 막아 놓은 상태였다. 인근 마을 이장은 공사 묵인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는 말까지 떠돌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홍 스님도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었다. 서둘러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파주 보광사 총무 감진 스님은 "보광사 차원에서도 현재 실무적으로 길을 막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면 계약서 여부는 실무자가 없었다고 보고했다"고 답했다.

노덕현 기자

금정터널 철회…보존대책 마련 촉구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는 11월 8일 금정산 관통 터널공사의 전면 중단을 결의하고 당국의 금정산 보존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중앙종회는 '금정산 관통 터널공사 반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민족영산 금정산 관통 터널 공사계획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훼손으로 신음하는 금정산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전통과 불교문화 말살의 토목행정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금정산 터널은 김해 진례를 기점으로 부산 기장군을 종점으로 하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중 9공구 구간으로 11월 착공해 내년 초 본 공사에 들어간다.

교계에서는 7.42km 통과하는 폭 50m의 4차선 터널이 범어사와는 1200m, 내원암, 청련암과는 890m 떨어져 있어 금정산 파괴와 수행환경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박구원 만평



봉행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9 · 10대 회장 이취임법회

미래를 향한 도약

전국비구니회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일 시 : 불기2555(2011)년 11월 21일(월요일) 오전 11시

장 소 : 전국비구니회관 대법당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44)

문 의 : 02)3411-8103~4

대한불교조계종 제10대 전국비구니회장 취임법회 준비위원회



낙엽은 졌어도 마음엔 佛性이 무성

11월 10일 동안거 입재를 앞두고 고창 선운사 참당선원에 두 스님이 방부를 들이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스님들이 저 싸리문 안에 들고 나면 겨울이 가고 봄이 온다. 감나무에는 까치밥 대신 새 순이 돋는다. "스님, 이번 안거도 무탈하게 용맹정진하세요." **조동섭 기자**

"하수가 고수를 판단할 수 있나?"

첫 대중안거 맞는 선운사 참당선원장 을광 스님

"누가 선지식인지 (당신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도 모르면서 다른 이의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30년 넘게 선방에서 화두만을 참구해 온 고창 선운사 참당선원장 을광 스님(사진)의 일갈은 은산철벽이라도 뚫을 기세였다.

스님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깨달았다는 사람은 늘 있어왔다.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선지식은 아니다. 속세에서는 '선지식이 있네, 없네' 해도 산중 선방에는 대중이 모르는 깨친 수행자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깨달음은 번뇌 망상을 끊어낸 것이지 남들이 없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을광 스님이 11명의 수좌들과 함께 한철을 지낼 선운사 참당선원은 도솔산 깊은 산자락에 위치한다. 등산객도 발길이 드문 외지라 수행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곳이다.

선원이 들어선 참당암은 선운사 암자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곳이다. 백제 위덕왕 28년(581) 의운 스님이 창건해 참당사 또는 대참사(大懺寺)로 불리던 대찰이었다. 고려 때는 점찰신앙 법회가 열렸던 곳으로, 조선 후기까지 지장도량이자 점찰도량, 참회도량으로서 명맥을 이어왔다. 현재에는 선운사 산내 암자로, 선원과 대웅전, 약사전, 응진전, 명부전 등을 갖추고 있다.

참당암이 선원이 된 것은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의 발원 때문이었다. 스님은 백파긍선 · 석전정호 스님 등 걸출한 선지식을 배출한 선운사가 교구본사임에도 선원이 없어 선맥이 끊긴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선운사에 선원을 세우고자 발원했다. 그 원이 회향된 곳이 참당암, 참당선원이다.

안거 기간 참당선원에서는 선원장 을광 스님의 지도하에 매일 오전 3시 기상해 10시간 이상씩 수행정진을 한다. 선덕 대원 스님과 주지 법만 스님 등도 수좌들과 함께 안거하며 정진을 독려할 예정이다.

선원장 을광 스님은 "최근에는 사찰 살림이 많이 좋아져 탁발 등을 안하고 좌선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수행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시절이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정진에는 결제와 해제가 따로 있지 않다. 오직 화두를 참구하고 또 참구할 뿐"이라며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 뺏기지 않고 공부에 진력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선원의 역할이다. 참당선원의 수행가풍은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수행정진 하는데 있다"고 소개했다.

을광 스님은 "산중에서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훌륭하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스님들이나 새벽에 열심히 사는 재가자 분들이나 특별하게 다른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생노병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올바른 길을 가려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방법뿐이다. 선지식을 통해서만이 올바른 부처님법을 만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을광 스님은 선지식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에 "대중처소에서 여법하게 정진한 이들이 선지식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참당선원을 비롯해 교구 내 도솔암 석상암 동운암 등에 방부를 들인 73명의 수좌스님들은 11월 10일 선운사 대웅전에서 동안거 결제법회를 열고 안거기간 중 불퇴전의 용맹정진을 통해 은산철벽을 뚫고 넘을 것을 다짐했다. **조동섭 기자**



수행자 프리미엄 없애라

조계종이 추진하는 자성과 쇄신 결사에 관해 불자들은 무관심하다. (본지 제861호 보도) 이와 관련해 5대결사 가운데서도 수행결사의 정립과 실천에 결사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종호)와 조계종 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는 '수행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11월 7일 동국대에서 추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우희종 서울대 교수 · 김호성 동국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한국불교 수행 풍토와 수행결사의 문제점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소장은 일상의 삶을 떠난 수행만을 강조하는 현실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파생된다고 지적했다.

윤 소장은 "전문적 수행에만 종교적 권위를 모두 집중시켜 놓았기 때문에 수행전문가인 승려가 아니면 누구도 종단 권력에 접근할 수 없다. 종교적 권위의 분산을 위한 제도적 조치가 없는 한 독점적 종교권위의 부작용이 계속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문적 수행을 통해 종단 내 권위가 생성되고, 종단의 제도와 법규마저 이런 권위와 연계된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소장은 현재의 구조에서는 종단 내 재가불자들의 위치가 좁아져 사부대중이

한국불교 위기는 불자수 감소 아닌
불교가치 사회 구현하지 못한 때문
신도수 · 재정 확충은 집단이기주의
개인별로 수행 일상에서 실천해야

참여하는 불교를 만들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는 종단의 사회적 영향력과도 직결돼 한국불교 전체의 위상 저하로 이어진다. 재가자와 출가자는 종단 내 역할과 기능이 달라도 동일한 불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정상적인 불교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소장은 "종단 내 독자적 권위와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 수행 가치가 사회화 되고, 사부대중의 협력에 의해 진정한 수행결사운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계종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한국 불교의 진정한 위기는 "불자 인구 감소가 아닌 불교 가치를 사회 대중에게 올바르게 구현하지 못한 탓에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표면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신도수를 늘리고 재정을 확충한다면 집단이기주의일 뿐이다. 불교 가치의 실천과 중생의 안락과 행복에 대한 직무유기가 진정한 위기라는 통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 스님은 "결사추진본부에서 제창하고 있는 개인에게 맞는 수행이 일상에서 실천될 때 수행결사는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정오에는 선원 수좌스님들의 제안으로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와의 자문위원회 회의가 4시간 동안 문경 봉암사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선원 교학 율원 종단행정(봉사) 수행의 대중화(대안) 분야에서 활동하는 종단의 원로 · 중진스님들이 참여했다.

선원수좌스님들과 자문위원 스님들은 수행, 선거제도, 재정 등 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자성과 쇄신 결사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6면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인천불자들 자연유산 굴업도 개발 '반대'

불교 등 4대 종단 100인 선언

불교를 비롯한 인천의 4대 종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의 자연 유산인 굴업도 개발에 대한 인천시의 신중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굴업도개발을 우려하는 인천지역 4대 종단 종교인 100인 선언'을 11월 3일 인천시청 앞에서 발표하고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사회의 찬반 갈등에 대해 우려했다. 이번 선언에 불교계에서는 인천불교총연합회 회장 일초 스님, 고대영 인천재가불자총연합회 회장 등 33인이 참여했다.

인천 4대 종단 종교인들은 "굴업도는 작지만 소중한 섬이다. 현재의 개발이익만이 아닌 미래세대와 이웃생명, 인천 앞바다의 생명평화를 위해 인천시의 신중하고 현명한 그리고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굴업도 개발 계획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들과 주민들은 환경훼손을 우려해왔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4대 종단 종교인들은 "인천지역 4대 종단 성직자들은 굴업도 개발로 인한 지역사회의 찬반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자연환경훼손, 공동체 붕괴와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굴업도는 전문가들도 해양공원지정이 타당하다고 할 정도로 빼어난 자연경관을 가진 곳이다. 토지소유자, 개발업자의 개발이익만을 고려해선 결코 안된다. 굴업도와 인천 앞바다의 지속가능하고 현명한 이용을 위해 충분한 사전조사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시가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CJ그룹 계열사 씨앤아이레저산업은 인천 굴업도 오션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재추진 하겠다며 관광단지 지정 신청서를 10월 31일 옹진군에 제출했다. 2010년 6월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취하한지 1년 4개월만이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아미타불 따라 떠나는 정토순례길 만들자

아미타불 48대 서원을 따라 삶을 돌아보는 웰다잉 코스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재수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원 전임연구원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가 11월 4일 동국대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이 같은 제안을 소개했다.

이 연구원은 주제발표 '한국 정토신앙 관련 순례코스 개발을 위한 제언'에서 본존불이 아미타불 등인 정토신행 사찰 48곳을 선정해 템플스테이를 겸한 정토순례길 '정토로 가는 길'을 만들자고 말했다.

제안에 따르면 48사찰을 다시 4개의 권역별로 나눠 방문객들의 편의성을 돕고, 각 사찰 방문시 (가칭) '극락가는 여권'에 스탬프를 찍게 해 성취동기 등을 높이도록 했다.

이재수 전임연구원은 "'정토로 가는 길'은 정토신앙과 연계되는 우리 전통문화를 재발견하는 길이다"라고 소개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법당 및 사찰 전각 마루 불사

틀어지거나 파손된 마루바닥을 시공초기의 모습으로 시공 및 복원합니다.
10여년간 각 시도 대형 체육관 및 관공서, 학교, 공연장 등 나무로 되어있는 **마루를 원목 그대로 살려 코팅하는 업체**로서,
이제 佛緣을 입어 스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양 작업 *마루철거 및 하부 보강 *샌딩 마침 *틈 메꾸기 *도정작업 2회 *완료

법당 및 요사채 등 온돌이 필요한 곳에
안전하고 빠른 시공 설치 하여 드립니다

원목 온돌마루 강화마루 필림온돌 전기온돌

밝은세상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474-28 2층 | 전화 02)433-5121 / 011-309-2119

일 주 문



관음종 죽산 스님 입적 1주기 법회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11월 12일 낙산 묘각사 원통보전에서 죽산 스님 입적 1주기 다례법회를 봉행했다.



혜담 스님 군법당 지원
조계종 재심호계위원 혜담 스님은 11월 9일 아름다운동행에 논산 군법당 건립 기금으로 3000만원을 전달했다.



수국사 주지 원담 스님 재임명
前 조계종 기획실장 원담 스님은 11월 9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으로부터 수국사 주지로 재임명 받았다.



법화종 대구·경북종무원장 취임
도광 스님은 11월 8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법화종 대구 · 경북교구 제13대 종무원장으로 취임했다.



지성 스님, 태고종 동부 종무원장
서울 승가사 주지 지성 스님은 11월 18일 전통문화전승관 대불보전에서 태고종 서울동부교구 제7대 종무원장으로 취임한다.



이기영 교수 추모회
이민용 한국불교연구원 원장은 11월 6일 유마정사에서 연구원 창립자 불연 이기영 교수 15주기 추모회를 개최했다.

〈인사〉 순천 선암사 관리인 현담 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9일 직영사찰인 순천 선암사 관리인에 총무원 총무국장 현담 스님을 임명했다. 임기 2년 보장과 중앙종회의원의 직영사찰 관리인 겸직금지를 골자로 한 직영사찰법 개정 이후 첫 직영사찰 관리인 임명이다.

자승 스님은 현담 스님에게 "조계종과 태고종이 함께 재산관리권을 인수해 운영하는 만큼 분규 해결의 새로운 모델로 소통하고 화합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담 스님은 "조계종 직영사찰로서의 역할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국제 기능 담당하는 교구본사로

제주 관음사 신임주지 성효 스님

"세계 7대 경관 선정을 앞둔 제주도의 국제 기능을 반영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교구본사로 발전 시켜 나가겠다."

11월 8일 제주 관음사 주지에 임명된 성효 스님(사진)은 "제주도는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도시로 발돋움 할 제주도의 환경에 맞춰 관음사가 제주불교의 축으로 문화도량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성효 스님은 그보다 먼저 관음사가 제주불교의 중심축이자 기도수행처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수행 · 나눔 · 생명 · 평화 · 문화의 5대 결사를 기치로 관음사 내 도량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 신도 교육시스템 강화로 본사 신도조직도 정비할 예정이다. 국제화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제주도 환경에 맞게 외국인 대안학교 건립도 모색하고 현재 관음사가 운영 중인 복지시설 3곳도 시설 및 인력 · 프로그램 확충에 나선다.

스님은 "본사가 본사의 역할을 다해야 지역 불교가 살아난다고 본다. 종단이 진행 중인 5대 결사를 통해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불교는 섬 특성 상 외지인에 대한 배타성이 크다. 이에 대해 스님은 "본사 위상 고취와 함께 도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피겠다. 지역 불자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화합도량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불심을 결집하기 위해 스님은 이례적으로 본사 차원에서 12월 16일 전임 주지 이 · 취임법회도 열 예정이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임명식에서 "본사의 면모를 갖추고 제주불교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 전심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성효 스님은 정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7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재정국장, 문화국장, 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조계종 소청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장 맡는 등 행정 실무직을 두루 거쳤다. 초선의원 최초로 법규위원이 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밖에 뉴



욕 정명사 주지, 법무부 교화위원, 용인시사암연합회장 등 다양한 활동을 폈다. 현재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 종립학교 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용인 용덕사 주지 등을 맡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광주불교 화합과 발전을 위해"

신임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혜향 스님



광주불교를 이끌 제21대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에 향림사 주지 혜향 스님(사진)이 당선됐다. 혜향 스님은 당선 일성으로 "연합회를 불교단체의 구심점으로 삼아, 합리적인 화합을 이뤄내겠다"며 "이를 발판으로 앞으로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혜향 스님은 "이번 성도재일을 기해 광주불교의 화합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는 △연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쌀 전달 △교도소, 경찰서, 각 시 · 구청, 운불련 등 각 불자회 법회 활성화 △노인복지, 아동복지사업 개발 △불교신행단체와의 공동행사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집행부를 12개 부서로 구성하고 종단을 초월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신임회장 취임식은 2011년 음력 12월 8일인 2012년 1월 1일 열린다. 이날 행사는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이 법문하며 아시아 6개국 전통무용이 펼쳐진다. 특히 다문화 가족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해 부처님 성도를 축하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김치보시로 부처님 법 전해요"

도봉구 서원암 주지 반야지 법사

"제 삶이 끝날 때 까지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서울 도봉구 서원암이 김장철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김장 나누기 행사를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원암 주지 반야지 법사(사진)와 40여 봉사자들은 11월 3일부터 김장을 시작해 1만 3000포기의 김치를 도봉구 일대를 비롯한 의정부와 포천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반야지 법사는 25년 전부터 김치 보시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7월에만 1만 5000포기의 김치를 전달했다.

반야지 법사는 "불교의 자비심은 무량공덕의 근원이며 수행의 근본이다. 그래서 중생들이 행할 수 있게 봉사의 장을 마련해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서원암은 이밖에도 매주 화요일 300여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반야지 법사는 "처음 봉사를 시작하고 7년 정도는 혼자서 봉사를 했다. 힘이 들어 중간에 포기할까 라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부처님의 참 진리를 실천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25년 동안 이 일을 진행해 오게 됐다"고 말했다.

반야지 법사는 이런 공덕으로 2010년 10월 서울시 봉사상 최우수상을 비롯해, 10여개의 각종 감사패와 표창장을 수여했다.

반야지 법사는 "묵묵히 옆에서 맡은 일을 행하는 보살님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오고싶은 도량으로 만들겠다"

남양주 봉선사 신임주지 정수 스님 취임

남양주 봉선사 제14대 주지로 정수 스님(사진)이 11월 9일 취임했다. 정수 스님은 이날 주지 진산식에서 조계종 수도권 교구본사로 역량 강화의 뜻을 밝혔다.

정수 스님은 "어른 스님들을 잘 모시면서 봉선사를 오고 싶은 도량, 밟고 싶은 도량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실 월운 스님은 "식견, 경험, 행정력을 십분 발휘해 소임을 잘 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으며 회주 밀운 스님도 "교구장은 힘이 드는 직책이지만 종도 간의 화목과 교구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한강 동북부의 최일선 거점으로 그 역할을 다해 달라. 스님이 지금껏 수행정진과 교구화합에 매진해 와 종단의 발전을 위해 큰 기여를 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진산식에는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 회주 밀운 스님(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조계종 원로의원 월서, 혜승, 종하, 암도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등을 비롯해 김문수 경기도지사, 박기춘 민주당 국회의원 등 1000여 대중이 참석했다.



봉선사는 진산식에 화환 대신 자비의 쌀 108포대를 모아 남양주 지역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법상종 제3회 아파타구신 도량제

법상종(총무원장 해월)은 11월 4일 천안 봉선 홍경사 주차장에서 '제3회 봉선 홍경사 아파타구신 도량제'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무원장 해월 스님, 천안 각원사 대원 스님, 송용삼 성환문화원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봉선 홍경사는 고려 현종이 아버지 안종의 뜻을 받들어 국태민안 도량제를 7일 동안 봉행한 법상종 국찰이었다.

해월 스님은 "법상종의 불교문화 중흥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해 흥겨운 축제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031)677-9950

노덕현 기자

붓다자비봉사단 창립 기념 법회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산하 국제붓다자비봉사단(총재 목탁)은 11월 3일 마포 롯데시티호텔 연회장에서 여성분과 창립 2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재 목탁 스님(미얀마문화원 원장), 비구니회장 보현 스님, 호법부장 진성 스님, 불자가수회 회장 너훈아 씨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목탁 스님은 김천대 회장을 비롯한 봉사단 회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그동안의 봉사활동에 감사하다. 진정한 인간방생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여성분과는 창립 이래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해 불서보급과 봉사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는 미얀마 어려운 불자를 위해 무료기술교육대학 설립을 위한 지원과 극빈촌 우물파기 운동 등 봉사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 (02)733-5665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태고종

서울동부교구종무원장 이·취임 법회



일 시 : 2011년 11월 18일(금요일) 11시

장 소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법륜사 3층 대불보전
(종로구 사간동 112번지)

문 의 : 02)739-3450 / 010-3722-3418

신임 제7대 서울동부교구종무원장 지성 스님

· 1969년 충담스님을 은사, 정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 묵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와 보살계 수지.
· 태고종 제5,7,8 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재무, 사회, 사정, 총무 부장 역임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 한국종교협회 이사 및 감사 역임
· 現 서울 승가사 주지 / 現 호명산 감로사 주지

〈역대 종무원장〉

◇동부분원
· 제1대 : 승가사 충담스님 · 제2대 : 용운사 만운스님(전 선암사주지)

◇동부교구종무원장
· 제3대 : 안정사 벽파스님 · 제4대 : 관음사 보산스님
· 제5대 : 안정사 백우스님 · 제6대 : 불국사 법선스님

한 국 불 교 태 고 종 총 무 원

치밀한 여성美 불국사… 투박한 남성美 부석사

석단(1) – 좋은 사례


불국사 석단(극락전 하부)은 긴돌을 다듬어 세련미를 표현했다.


화엄사 석단은 조화로운 이미지가 특징이다.


부석사 법고루 위 낮은 석단


부석사 안양루 전면의 높은 석단


불국사 석단(대웅전 하부)


화엄사 각황전과 대웅전 하부석단


봉선사 강대석 석단

석단은 건물을 앉히기 위해 경사지를 평평한 공간으로 다듬는 과정에서 공간과 공간사이에 생기는 수직면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고, 미학적으로 장식하기 위해 축조한 석조구조물이다. 산간 경사지에 주로 입지한 한국 사찰에서 석단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관요소이며 두드러진 장엄물로 취급돼 중요한 디자인 요소가 되어왔다. 특히 석단은 그 재료나 축조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경관성을 보이고 수직적 조형물로 기능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인식도가 크게 나타나는 구조물이었다.

한국사찰의 석단은 주로 자연석을 사용한 막돌 허튼층 쌓기방식으로 축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자연환경에 맞도록 절 주변 돌들을 주워 특별한 격식 없이 쌓아올렸기 때문에 스님들과 신도들의 울력만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석단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보니 석단을 구성하는 돌의 크기도 크지 않았고 석단의 높이 또한 높지 않았다. 더구나 자연지형 훼손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석단을 축조할 곳도 많지 않았다. 그야말로 자연에 순응하며, 어쩔 수 없이 석단을 축조해야 할 곳에만 석단을 쌓았던 것이다. 한국사찰의 석단은 이렇게 소박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 한국인의 자연친화적 성품을 엿볼 수 있는 친근한 대상이었다.

그러나 한국사찰의 석단이 소박하고 평범한 것만은 아니었다. 몇 몇 사찰의 석단은 아름답고, 장대하며, 독특한 조형성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 시대의 디자인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인 것이다.

이러한 석단은 재료의 사용이나, 축석기법 그리고 디자인 형태가 일반적인 사찰의 석단들과는 판이한 형식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불국사 부석사 화엄사 해인사 봉선사 용주사 석단이 대표적이다.

불국사 석단은 극락전 하부와 대웅전 하부를 연결하는 비교적 긴 선적 구성을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이 석단이 성의 공간과 속의 공간을 구분하는 경계가 된다고 이야기 한다. 그렇다면 석단에 놓인 청운·백운교와 연화·칠보교가 속의 공간과 성의 공간을 연결하는 다리인 셈이다. 구조적으로 속의 공간에서 성의 공간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가시되는 것이 석단이었을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불국사 석단은 매우 화려하고 정교하며 치밀한 조형성을 보인다.

불국사 석단의 조형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극락전 하부의 석단과 대웅전 하부의 석단이 형식적으로 대조를 이루어 서로 다른 이미지를 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극락세계와 연화장세계가 가진 상징적 의미를 암시하는 디자인적 표현으로 보인다. 한 영역에서 이러한 다양한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디자인적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불국사 석단의 상세를 보면, 극락전 하부의 석단은 긴 돌을 정교하게 다듬어 목가구식으로 짜 맞추고 돌로 만든 격자형 틀 사이에 크고 작은 돌들을 박아 넣어 세련미를 보이도록 했다. 특히 격자형으로 짜 맞춘 긴 돌의 비례, 질서 있게 튀어나온 첨차의 조형성은 8세기 신라의 월등한 디자인수준을 엿보게 한다. 한편, 대웅전 하부의 석단을 보면, 상부는 극락전 하부석단의 상세를 따랐다. 그러나 석단의 하부는 큰 돌을 자유분방하게 쌓으면서 돌의 생김새에 맞도록 상부의 다듬은 돌 밑부분에 그랭이질을 했다. 못생긴 막돌과 그랭이질한 다듬은 돌 사이의 조화는 가히 일품이다.

불국사 석단의 멋스러움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석굴암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세련되고 수준 높은 석조기술을 충분히 소화했기에 비로소 그러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러모로 볼 때 불국사 대웅전 하부석단은 돌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작품이다. 달인의 경지에 든 작가만이 해낼 수 있는 디자인작업, 바로 그것이 불국사 석단인 것이다.

한국사찰서 석단은 중요 경관요소
소박함부터 화려함까지 각양각색
불국사 부석사 화엄사 등이 대표적

부석사 석단은 도합 아홉 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계에서는 이것을 무량수경에서 설하는 삼배구품설과 대응시켜 부석사가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라고 생각한다. 부석사의 석단은 나름대로 독특한 조형성을 보인다. 그러한 조형성은 재료와 축조기법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이다. 석단의 상세를 살펴보면, 범종루 위 낮은 석단은 자연석을 크기가 서로 다른 네모난 형태로 잘 다듬어 쌓아 비교적 정연한 미를 연출했다. 안양루로 오르면서 발생하는 높은 석단은 자연석을 생긴 그대로 첩첩이 쌓아 올리고 돌 틈새에 작은 돌들을 끼워 넣어 이를 맞추고 있다.

부석사 석단에서는 불국사 석단과 같이 세련된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는 없으나 깊은 산에 잘 어울리도록 자연석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투박하게 쌓아올려 주변과 잘 어울리도록 했다. 이러한 디자인 기법은 다른 사찰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특별한 것으로 부석사는 다른 사찰들과 경관적으로 차별화된 아름다움을 나타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국사 석단과 부석사 석단을 비교해 차이를 이야기 한다. 불국사 석단이 치밀한 축조방식을 가진 여성적 아름다움을 보인다면 부석사 석단은 투박한 축조방식을 가진 남성적 웅장함과 강건함을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화엄사 역시 석단의 독특한 조형성을 볼 수 있다. 화엄사 각황전과 대웅전 하부 석단은 큰 돌을 장대석 모양으로 다듬어 쌓았는데, 웅장하고 조화로운 이미지를 동시에 느끼게 한다. 웅장한 이미지는 석단을 구성하는 돌의 크기는 물론 석단의 높이와 길이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 조화로운 이미지는 건물이나 공간과의 상관성을 통해서 느껴진다. 또한 돌의 규격을 달리해 변화의 아름다움을 추구했는데,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축조방식은 해인사 대적광전 하부 석단에서도 볼 수 있다. 해인사나 화엄사는 둘 다 대표적인 화엄사찰이었고 창건이나 중창에 왕실의 협조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석단은 국가적인 규모의 큰 불사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불국사 석단, 최고수준 세련된 작품
부석사는 자연과 조화된 투박함 백미
화엄사 · 해인사는 웅장함이 돋보여

조선시대에 조성된 봉선사와 용주사 석단은 장대석을 다듬어 축조했다. 조선시대에는 왕가의 공간에서만 다듬은 돌(숙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했기 때문에 장대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왕궁이나 왕실과 관련된 곳이었다. 봉선사와 용주사는 능침수호사찰이었기 때문에 장대석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능침수호사찰이나 왕실 원찰에 조성된 석단들은 왕실의 기술자들에 의해서 축조됐을 것이다.

봉선사 석단을 보면 장대석으로 3~4단을 쌓아올리고 그 위에 갑석을 얹어 완성했다. 경복궁 교태전 후원의 아미산 화계에 도입한 석단과 동일한 수법이다. 용주사의 석단 역시 잘 다듬은 장대석을 2~3단 쌓아올려 경사면을 안정시켰는데, 봉선사와 달리 갑석을 얹지는 않았다.

이렇게 장대석으로 쌓은 석단은 매우 정연한 구조를 보여 축조형식을 통해 질서와 통일감 같은 디자인 원리를 읽을 수 있다.



장대석으로 석단을 쌓은 사찰로는 봉은사, 보광사, 흥국사 등 여러 곳이 있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반야심경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신선한 발상, 새로운 접근, 알기 쉬운 해설!
문자 해석을 넘어 현대인의 감각에 맞는 현실적인 해설!



집착을 버려라
물질과 과학의 노예가 되어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현대인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해주는 책.
히로 사치야 저, 강인 옮김 | 국판변형 | 270쪽 | 값 10,000원

학술연찬회
주제: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11월 19일(토) 10:00~18:00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죽음을 알아야 삶이 보인다!
초기불교와 인도·티벳 불교, 선불교, 서양철학과
현대의학 등 각 분야에서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성찰한 책.
정준영·안성두·황금연·박찬국·우희종 저 | 348쪽 | 18,000원



밝은 사람들 총서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외 396쪽 | 20,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권석만 외 504쪽 | 23,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산 외 400쪽 | 20,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우희종 외 424쪽 | 20,000원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미산 외 416쪽 | 2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전화 (02) 926-8361 ●주문 (02) 3672-7181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100자 뉴스

조계종 태국 구호단 파견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최근 홍수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태국을 돕기 위한 구호단을 파견한다고 11월 9일 밝혔다. 종단은 구호단 파견 외에도 1억 원 규모의 긴급 구호 자금도 지원한다. 이번에 파견되는 구호단은 11월 18~ 22일 태국 현지에서 구호 물품을 구입하고 배분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펼친다. 박기범 기자

불교여성광장 건립기금 모금 문화제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이 11월 25일 오후6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불교여성광장 건립기금 모금 문화제'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불교르네상스의 꿈'을 주제로 이기향의 예술 의상쇼 '춤추는 단청' 및 성의신의 해금, 마하연의 실내악 연주, 정행 스님의 가곡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제5회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

국제포교사회(회장 배광식)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불자 청소년들의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어 학습에 흥미를 높이고자 제5회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를 개최한다.

암송대회는 2012년 1월 7일 전법회관 국제포교사회 사무실에서 예선을 거친 뒤, 1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본선을 치르게 된다.

참가대상은 초·중학생 1명 또는 2명 이상이 한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12월 20일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02)722-2206 이은정 기자

연꽃문화제 천진불 어울림 한마당 성료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가 11월 6일 제27회 연꽃문화제 천진불 어울림 한마당을 성료 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경인지역 어린이법회 지도사 및 어린이 200여 명이 모여 '등불, 기도, 보물'이라는 주제로 그림과 글짓기 등을 비롯해 우드마커 비누 클레이 만들기 체험 나눔놀이 소통놀이 도전108초 체육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이은정 기자

월정사 단기출가 모집

월정사(주지 정념)가 행자생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월정가 단기출가학교' 31기를 12월 7일까지 모집한다. 월정사 단기출가학교는 단기출가졸업 후 정식 출가희망자를 우선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정식 출가행자로도 등록이 가능하다.

대상은 20~26세까지 가능하며 40세 이상은 전체 정원의 30%만 선발한다. 최종합격은 심사위원 스님들의 면접을 통해 12월 10일 발표된다. 수행기간은 2012년 1월 4일~2월 2일 진행된다. (033)339-6616 이은정기자

'붓다와 다윈이 만난다면' 문광부 우수 도서

〈붓다와 다윈이 만난다면〉(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刊)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교양 도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8월 1일~2011년 7월 31일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교양도서를 대상으로 접수된 5389종의 도서를 심사해 〈붓다와 다윈이 만나다면〉 등 410종을 올해의 우수교양도서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붓다와 다윈이 만난다면〉은 면역학자, 불교학자, 생물학자, 철학자, 과학기술사학자가 학문과 종교의 경계를 넘나들며 불교와 진화론의 관계를 담론한 책이다. 이나은 기자

5대 결사는 총무원장의 본래 의무일 뿐



수행결사를 점검하기 위한 학술회의 자리에서 토론자들의 모습

"전문적 수행만 강조하며 수행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종교 장사 행위에 불과하다."

현대사회에 맞는 수행의 참된 의미를 논의하고 수행결사의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학술회의가 마련됐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는 11월 7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수행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추계 학술회의를 열었다.

발제자로는 우희종 서울대 교수와 김호성 동국대 교수가 참석해 '삶의 로의 수행'과 '자성과 쇄신의 결사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섰다.

우희종 교수는 생명과 비폭력의 개념을 통해 현대사회에 필요한 수행의 의미를 제시했다. 우 교수는 "생명존중과 비폭력이라는 두 수레바퀴와 수행이라는 동력으로 움직이는 대승불교의 모습은 보살행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수행은 연기실상을 깨닫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생명존중과 비폭력이라는 가치를 삶의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행위다"고 말했다.

현실과 분리된 곳에서의 전문가적 수행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수행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우희종 교수는 또 연기법을 관계성으로 이해하고, 폭력의 문제를 불교적으로 해석했다.

우희종 교수는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연기법에서 나온다. 존재의 관계성에 대한 무지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 폭력이며 이로 인해 모든 존재의 불필요한 고통이 생겨난다. 결국 폭력이란 관계의 단절이나 왜곡을 가져오는 행위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연기실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삼독심, 무명, 집착을 버리고 바람직한 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우희종 교수는 또 신자유주의 시

우희종, 수행의 실천 강조
"수행은 생명의 존중 구현"
김호성, 결사 자발성 한계

대에 따른 불교적 삶과 수행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시대적 흐름에 깨어있지 못하고 막연히 따라갈 경우 삶에 폭력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교적 수행과 가르침이 일상의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우 교수는 "주변에 단절되거나 왜곡된 관계로 고통 받는 이들이 있다면 그런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그런 노력을 통해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참여의 삶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불교적 삶이다"며 수행의 실천을 강조했다.

그러나 우희종 교수의 이런 주장에 대해 토론자인 조계종 교수 아사리 명법 스님은 큰 틀에서는 동의하면서도 비폭력과 참여를 강조하기 위해 연기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명법 스님은 "환멸문의 입장에서 연기는 관계의 파괴를 의미한다. 연기의 이런 측면은 또 다른 이름인 중도에서 더 분명해진다. 중도는 관계성이 아니라 대립의 양변을 떠나는 것이다. 연기를 비폭력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 사이에 존재하는 단절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면 사회 참여에 굳이 불교 수행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 단절의 외적 형태가 아니라 실존적 단절이다. 삶의 현장성 그 자체에 통일 못지않게 단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 김호성 동국대 교수는 '자성과 쇄신 결사에 대한 고찰'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이번 결사와 불교사의 다른 결사의 차이점과 결사 성립 가능성에 관심을 가졌다. 집행부와 총무원장이 앞장서서 결사를 선언하고, 동참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 의외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를 두고 '종단=결사'의 등식이 성립하는 이번 결사를 '종단 결사'로 규정하고 한계를 지적했다.

김호성 교수는 "종단이 결사이고 결사가 곧 종단이라는 것은 종단의 구성원이 결사의 구성원이 되기도 한다는 뜻이다. 아무런 자의도 없이 자발적 원력 실천이 아닌 타율적으로 동참하는 '위로부터의 결사'라는 점이다"고 밝혔다.

중앙결사의 의지만큼 대중들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5대 결사를 실천하느냐가 이번 결사의 성공을 가늠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김호성 교수는 또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이 주창해서 일어나게 된 이번 결사는 결사가 아닌 '즉비(卽非)결사'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사에서 실천하겠다는 5대 결사의 내용은 총무원장의 본래 의무일 뿐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결사 선언처럼 언행일치가 된다면 결사의 촉발 이유가 해소되고, 자주 종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한국불교는 새롭게 환골탈태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호성 교수는 이번 결사의 미흡한 실천방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히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천명한 수행결사가 교과서적이고 구체적 미흡한 실천방안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행결사의 실천규약, 실천방안 모두 '어떻게'에 대한 답이 부족하고, 윤리적 내용과 계학(戒學)에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호성 교수는 "이런 문제들이 중앙에서 정체성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긍정적 의미가 있다. 비어 있는 중심을 대중결사를 통해 선정하고 실천하면 좋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성전암, 진주시와 복원공사 '갈등'

시청·사찰 법리 해석 이견
성전암 "명백한 종교탄압"

진주 성전암(주지 성공)이 화재로 소실된 사찰 복구공사를 놓고 진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성공 스님은 11월 1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진주시가 전통사찰인 성전암의 복구 공사를 불허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종교탄압이다"고 주장했다.

2010년 5월 화재로 대웅전과 요사채 등이 소실됐던 성전암은 올해 4월 진주시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9월경 진주시청은 법적 기준에 미흡해 허가가 어렵다며 공사 중지를 통보했다. 성전암이 복구를 추진하는 요사채와 선방, 산신각 등은 종교용지가 아닌 산지를 일부 점용하고 있다. 성전암은 복구 공사를 하면서 이를 양성화 해달라고 시에 요청했고, 진주시는 종교용지 안에 지으라며 성전암의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성공 스님은 성전암이 명백한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18조에 산지전용 허가기준이 명시돼 있지만 10조 6항에 따르면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보존 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는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누구든지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을 존중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성전암측은 이런 법 규정을 근거로 진주시청의 공사 불허 통보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전 스님은 "이는 성전암 뿐만 아니라 전국 1000여 개 전통사찰의 보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부당한 문제를 바로잡을 때까지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고 말했다.

진주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법적 요건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앞으로 성전암측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한국불교 포교역사 한 눈에

포교원 〈포교총람〉 편찬



조계종 포교원(원장 직무대행 계성)이 근대기부터 현재까지 종단 포교의 흐름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포교총람〉을 편찬했다.

〈포교총람〉은 제1장에서 별원 이전의 종단 포교 약사와 1995년 별원 이후의 포교원을, 포교원장스님들을 중심으로 포교의 지향과 중점과제, 사업성과 등을 각 시대별로 정리했으며, 제2장에는 포교원의 주요 사업과 포교현황 등을 망라했다.

총 46차례에 걸친 포교종책연찬회의 주제와 그에 따른 세부 제목은 물론 포교와 관련한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비롯해 그동안 포교원이 어떤 고민을 해왔으며 그 대안을 어떻게 제시하려 했는지 설명해주고 있다.

이밖에도 신도교육과 조직 전법단, 수도권 포교에 대한 전반적 사업흐름의 의미와 성과 등을 조명하고, 각종 포교 신도단체와 포교와 관련된 규정·규칙 등도 상세히 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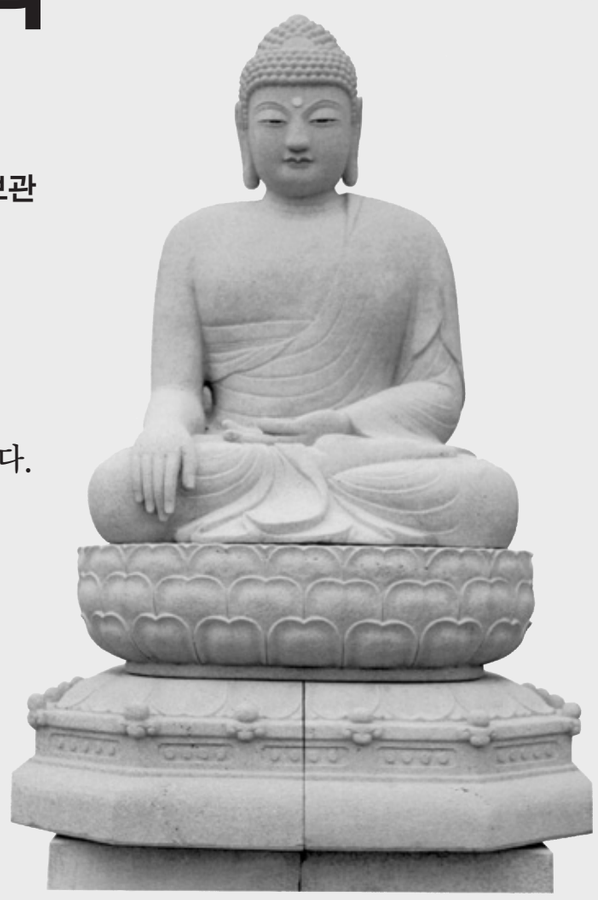
포교원은 "총람 발간을 계기로 포교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고려대장경 성보관 부처님 점안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입동지절을 맞아 각계 강호제현님과 제방의 대덕큰스님 그리고 사대부중 여러분께
부처님 가피가 충만히 나투어 소원성취 하시옵길 합장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재단법인 고려대장경진흥원유지재단에서는 고려대장경성보관
부처님 점안 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모로 분망할 줄 사료되오나
저희 재단법인에서 추진하는 고려대장경 석판본 성보관 건립을 성원하는 뜻에서
수희 동참하시어 뜻 깊은 법석을 빛내 주시옵길 앙망하나이다.
佛紀 2555년 11월 일

■일시 : 2011년 11월 26일(토요일) 13:00
■장소 : 재단법인 고려대장경진흥원 유지재단 성보관
■전화 : 054)533-5670, 팩스 054)533-8874
02)2198-5022~4 02)2198-5025

※행사장에 점심공양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양후 오후 1시부터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재단법인 고려대장경진흥원 유지재단
이사장 신 상 길 봉행위원장 서 의 현 합장

■ 고려대장경석판본 총본산 대장사
경북 상주시 화북면 장암리 산 18-1
TEL : 054)533-5670, FAX : 054)533-8874

■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송동 58(두산위브파빌리온 1019호)
TEL : 02)2198-5022~4, FAX : 02)2198-5025

죽어도 제대로 죽는다면 살 길 열리는 게 이 공부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조주 선사가 물었습니다.

"사중득활시(死中得活時) 여하(如何)오(죽었다가 살아나는 때는 어떠하오)"

이에 투자대동(投子大同)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불허야행(不許夜行)이라도 투명수도(投明須到)입니다. (야간통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날이 밝으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해야 합니다)"

생(生)의 한 편에 얽매여 사(死)를 보지 못하거나 사(死)의 한 편에 얽매여 생(生)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화두를 들고서 결제하는 납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송장인 까닭입니다. 그렇지만 죽어도 제대로 죽기만 한다면 거기에 또 살 길이 열리는 것이 이 공부길이기도 합니다.

묶을 끈도 없는데 스스로 묶이며, 또 본래 활기찼던 사람이 묶여서 스스로 죽은 사람이 됩니다. 억지로 법도를 만들어서 멀쩡한 화두를 죽은 화두를 만들어 버립니다. 사는 법만 알고 죽는 법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사는 법조차도 죽게 만들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공부법은 제대로 공부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화두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반대로 화두를 쥐고서 죽으려 하면 도리어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결제라고 하는 것은 죽는 가운데 살 길을 찾는 일입니다. 해제 때 돌아다니던 걸음걸이를 죽이고, 원숭이 마냥 사방으로 내달리는 번뇌를 죽이고,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치성해지는 망상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 죽음 속에서도 미꾸라지 같이 도망가는 화두를 챙기면서 살 길을 찾는 일입니다. 죽음 속에서 살 길을 찾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결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항상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중득활고래희(死中得活古來稀)
활중득사인무수(活中得死人無數)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는 옛날부터 드물었고 살려고 하다가 죽은 자들은 부지기수로다.

나와 부처가 무엇이 다른가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나의 아픔에서 남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 안아주면 우주만상이 자신을 따르게 된다.

우주만상 또한 나의 그림자임을 확실히 인지하고, 일심 믿음으로 실천수행하면 번뇌의 고통과 아픔도 치유되어 허상과 마군은 사라지고, 보는 것이 모두 즐거움이요, 듣는 것 또한 희망의 노래 소리일 것이며, 마침내 밝은 지혜 얻어서 참나를 찾을 것이다. 이것이 자유인의 진정한 행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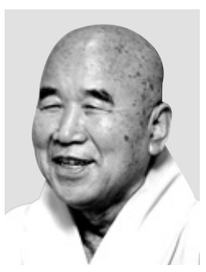
제방의 납자들은 이제부터 한 철, 한시각이라도 귀중한 보배로 알아 헛됨이 없이 수행에 매진하여 진정한 자유를 찾으라.

불성당현현(佛性堂顯現) 유정불능견(有情不能見)
약인오무아(若人悟無我) 아불면하주(我佛面何珠)

불성은 당당하게 드러나는데 정에 집착하는 유정은 보지도 못한다.
만약 사람이 나란 것 없음을 깨닫는다면 나와 부처의 얼굴이 무엇이 다르랴!

한 생각 놓아야 한 걸음 나간다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대도가향본불심(大道家鄕本不深)
세인담중자난심(世人擔重自難尋)
약능방하혼무물(若能放下渾無物)
변견영산불조심(便見靈山佛祖心)

대도라는 근본 자리는 본래 먼 곳에 있지 않거늘 세인들이 무겁게 짊어지고서 찾기 어렵다 하네. 만약 내려놓아 혼연히 거리낄게 없다면 문득 영산의 부처와 조사의 마음을 보게 되리라.

근본을 찾는다면서 참 근본은 외면 한 체 밖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산으로 바다로 헤맨들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애타게 찾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찾고자 애쓰는 그 생각부터 먼저 내려놓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고인이 말씀하시기를 "뭇 잡념으로 잡념을 그치려고 하면 그치려 할수록 잡념만 더해지지만 성성한 일념을 이어가면 뭇 잡념을 굳이 그치려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쳐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생각이라는 일념은 무엇이겠습니까? 화두가 일념이요 무념이 바로 일념입니다. 옳다 그르다 크다 작다고 하는 분별이 없는 근본의 일념(一念)을 말합니다.

혼연일체라는 말은 무념으로 내외가 명철한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 도리를 새롭게 알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러한 줄을 아는 것일 뿐입니다.

공부하는 이는 무념의 관력(觀力)으로 신심(身心)에 대한 집착을 끊고 경계에 대한 분별을 쉬어야 합니다.

한 걸음 나아간다는 것은 한 생각을 내려놓는 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조주 스님께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음에 "없다"라고 하신 것은 온갖 사량 분별에 대한 망상을 쉬고 오로지 천진면목에 다가서게 하는 형체 없는 징검다리라 할 것입니다.

일념지심즉시(一念之心即是)
하처별처심토(何處別處尋討)
대도지재목전(大道只在目前)
미도우인불료(迷倒愚人不了)

일념의 마음이 그대로 이것이거늘 어느 곳엣 따로 찾으려 하는가? 대도는 다만 눈앞에 있건만 미혹하고 어리석어 알지 못할 뿐이로다.

지금 합장하는 자 누구인가?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바로 여러분 눈앞에 밝고 뚜렷하게 산승(山僧)의 법문을 듣고 있는 그대들은 누구인가? 합장하고 예배하는 자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각자 점검해 보라.

여러분이 법문을 듣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주인공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렇다면 내가 그대들에게 묻겠습니다. 그것은 큰가 작은가, 긴가 짧은가, 깨끗한가 더러운가, 그 면목은 어떠하며 그 생김새는 어떠한가. 여러분이 알 수 있고 능히 볼 수 있는 주인공이란 무엇인가?

그러기에 옛사람이 그것은 부처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의 마음은 항상 눈앞에 있지마는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찾으면 찾을수록 더욱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한 생각 일어나기 전에 한결같이 참되어 망념이 끼어들지 않을 때는 그 깨끗하기가 옛 거울과 같고 그 밝은 것이 흔들림이 없는 고요한 호수와 같아서 삼라만상을 다 비추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비추고 옛날과 지금을 비추는데 조금도 숨김이 없고 조금도 걸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의 경계이며 또 여러분들이 옛 부터 지금까지 쓰고 또 써도 다하지 않는 본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의심이 없습니까? 만일 있다면 다시 말하겠습니다.

(주장자를 들어) 이것이 보이십니까?

(주장자로 탁상을 치고) 이것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보고 듣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분명하여 의심이 없으면 영원히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고통은 없어지고 즐거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방하제연심변공(放下諸緣心便空)
종자대도자연개(從玆大道自然開)
활개양안명여월(豁開兩眼明如月)
도처봉인현고풍(到處逢人現古風)

모든 반연 놓아버려 마음이 공하니 이로부터 큰 도가 자연히 열리네.
두 눈이 일월과 같이 밝아져 가는 곳 만나는 사람마다 참 모습 드러내네.

단박에 칼자루를 놓아 봐라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



주장자를 세 번 내려치시고 잠자코 계시다가 "아시겠습니까?" 대중이 아무 말이 없거늘, 대저 참선해 깨침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내가 부처다' 라고 하는 대신심과 화두를 드는 나와 화두 자체가 하나가 되는 대의심과 분통터진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화엄회상에서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 나서는 일과 법화회상에서 8세된 용왕의 딸이 남방무구세계로 발길을 재촉하는 일과 또 열반회상에서 소잡는 백정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는 단박에 칼자루를 놓아 버리는 일 등 이 같은 저들의 행보야 말로 대신심, 대의심, 대분심을 일으킨 결과입니다. 이같이만 하면 깨닫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대비보살처럼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밤에 뒷짐 지고 목심을 더듬는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이 만일 도리로 여기거나 늘어놓은 것이라 여긴다면 이는 업식을 들어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이 참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옛 부터 마음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량없는 겁으로부터 생사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본래의 경지라 여깁니다. 만일 사부대중 여러분이 빛과 소리를 그릇 알아서 집착하거나 짜고 싱거움을 그릇 알면 모두가 옳지 못한 일입니다. 모든 마음을 놓아 버리고 그렇게 했다면 마치 거울이 물건을 비추는 것과 같으며 골짜기가 메아리를 울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석가님은 천백 억의 몸을 나투고 대비보살은 천개의 눈과 천개의 팔을 갖추었습니다. 남자의 몸으로 선정에 들었다가 여자의 몸으로 선정에서 나오고 한 티끌에서 삼매에 들어갔다가 여러 티끌에서 삼매에서 깨어납니다. 말해 보십시오. 이럴 때엔 어떠합니까?

전익분등육합운(展翼奔騰六合雲)
박풍고탕사해수(搏風鼓蕩四海水)

날개를 펴니 6합의 구름 위를 날고 바람을 움키니 사해의 바닷물이 소용돌이를 치도다.

아만의 섭나무 지고 불 속 가지 말기를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



금년(今年) 삼동(三冬) 결제법문(結制法門)에는 아만(我慢)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공부(工夫)하는 이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아만(我慢)입니다. 고인(古人)의 말씀에 아만(我慢)을 가지고 공부(工夫)하면 섭나무를 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예배(禮拜)하는 것은 아만(我慢)을 조복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지 않고 예배(禮拜)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세(近世) 선지식(善知識) 보문(普門)스님은 누구든지 찾아와서 당신에게 절을 하고자 하면 부처님께 먼저 예배(禮拜)하고 오라고 하셨고 인욕(忍辱)으로 유명한 법주사(法住寺) 석상(石霜)스님은 보은(報恩)군수(郡守)가 만나러 왔는데 법당(法堂)에 안 가고 바로 오는 것을 보고 군수(郡守) 영감은 어째서 이 도장(道場)에 제일(第一) 어른이신 부처님께 예배(禮拜)하지 않고 오느냐고 크게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금년(今年) 겨울에 모인 결제대중(結制大衆)은 고인(古人)의 가르침에 따라 아만(我慢)으로부터 버리는 것으로 공부(工夫)의 기초를 삼기 바랍니다.

학도선회절만당(學道先?絶慢幢)
착아수도도불성(着我修道道不成)
영가증문육조갈(永嘉曾聞六祖喝)
빙석아만득돈오(氷釋我慢得頓悟)

도를 배우고자 하거든 먼저 아만심을 끊어라. 아만심을 가지고 공부하면 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가는 육조스님의 꾸지람을 듣고 아만심이 얼음처럼 녹아버리자 그 자리에서 크게 깨쳤다고 합니다.

금일대중(今日大衆)은 조계산(曹溪山)의 뜬 달을 보았습니까? 달은 차고 이즈러진 일이 없는데 중생(衆生)이 차별심(差別心) 때문에 초승달은 이즈러져 보이고 보름달은 둥글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늦어도 내년 해동(解冬) 때에는 이지러지고 차기 이전 달을 나에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주장자(柱杖子)를 세 번 구르고 하좌(下座)하다.

전문은 현불뉴스에 있습니다.

보조사상연구원 | 제22차 국내학술대회

구산선사의 생애와 사상

✻일시 : 11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법련사 대웅보전 ✻문의 : 02)733-5311



초대의 말씀

대자 대비한 부처님의 가호 속에 한 해의 결실을 수확하는 풍요로운 시절인연이 도래하였습니다. 이번 저희 보조사상연구원에서는 "구산선사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22차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본원으로써는 이러한 뜻 깊은 학술대회를 맞이하여 불교계의 선학자들을 모시고 그간의 성과를 뒤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내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귀하의 고견을 들려주시고 학술대회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사상연구원 원장 이법산 합장

학술대회 일정

≫ 제1부 식전 행사 [10:30 – 11:00]
· 사 회 : 황정일(본원 기획실장)
· 삼귀의례
· 반야심경 봉독
· 인사말 : 법산 스님(본원 원 장)
· 격려사 : 현호 스님(본원 이사장)
· 축 사 : 영조 스님(송광사 주지)

≫ 제2부 기조 강연 [11:00 – 11:50]
· 법산 스님(본원 원장) :
구산스님의 생애와 사상

• 점심공양 [11:50 – 13:00]

≫ 제3부 주제 발표 I [13:00 – 14:40]
(1) 신규탁(연세대 철학과 교수) :
구산 선사의 상당법어집「구산선문」분석 시론
· 사회 : 정도스님(동국대 선학과)
· 논평 : 인경스님(동방대학원대 교수)

(2) 김방룡(충남대 철학과 교수) :
九山 秀蓮의 禪사상 – 普照禪의 계승과 관련하여
· 사회 : 정도스님(동국대 선학과)
· 논평 : 종호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 휴 식 [14:40 – 15:00]

≫ 제4부 주제 발표 II 및 총평 [15:00 – 16:40]
(3) 한동민(수원박물관 학예팀장) :
1950년대 구산 수련의 종단 정화운동
· 사회 : 고영섭(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 논평 : 김경집(진각대학원 교수)
(4) 문경순(전북대 철학과) :
九山 秀蓮의 불교대중화와 한국불교의 세계화
· 사회 : 고영섭(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 논평 : 오경후(한국불교 선리연구원)
• 총 평 [16:40]
(5) 강건기(전북대 명예교수)

≫ 사홍서원 및 폐회사 [17:30]

Bojo Research Institute

승가의 일 세간에서 논의돼 안타깝다

한일불교유학생교류회(공동대표 인환 · 현해 · 리영자 · 원두 · 흥선 · 강동균)가 출범 2년을 맞아 교단과 계율 연구에 관한 세미나를 11월 5일 동국대에서 열었다. 연구회는 또 해방 이후 한국에서 출판된 교단과 계율 관계 논문을 조사하고 대표적 논문을 모아 단행본으로 발간했다. 이날 세미나는 논문집에 게재된 비구니 팔경법과 부동주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됐다.

"당시의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팔경법이라는 방편을 통해 성공적으로 비구니 승단을 설립할 수 있었다."
팔리문헌연구소 소장 마성 스님

"팔경법은 명백한 여성차별이자 여성출가자를 억압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조승미 서강대 종교연구소 연구원

팔경법의 여성 차별 문제가 제기된지 25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비구 · 비구니 간의 견해 차이는 여전했다.

제1발제에 나선 팔리문헌연구소 소장 마성 스님은 '팔경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과 현대적 이해'를 발표했다. 스님은 팔경법은 붓다가 직접 제정했을 가능성이 높고, 여성 출가를 허용하기 어려운 당시 상황에서 고안된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마성 스님은 "붓다에 의해 비구니 승가가 성립된 것이 사실이라면 팔경법도 붓다가 직접 제정했을 것이다. 비구니 팔경법이 제정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인도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붓다가 여성 출가를 망설인 이유를 바라문들의 반대와 승단 내부의 보수적 비구니들의 반대에서 찾았다. 특히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았던 당시 인도에서도 여성 출가를 허락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또한 승단 내부에서도 바라문 출신의 보수적 비구들은 여인의 승가 합류를 원치 않았다.

마성 스님은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팔경법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받음으로써 승단 내외의 저항을 무마시켰다. 붓다는 결코 여성차별주의자가 아니었다. 팔경법은 당시 비구니승단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장치였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시간이 경과하면서 보수적 비구들에 의해 팔경법 내용 일부가 수정됐을 것으로 추측되나 이런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논리라면 부처님 후대에 제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대승경전이나 대승계경 모두 폐기 대상이기 때문이다.

스님은 "지금 당장 팔경법을 폐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팔경법은 비구니계의 바일제법에 명시돼 있으며 이부승(二部僧) 제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불교승가에서 이부승 제도가 유지되는 한 팔경법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마성 스님은 팔경법 극복 방안으로 현대적 재해석과 비구승가와 비구니 승가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별도의 규정 신설을 제시했다. 그러나 스님은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비구니 승가의 복구에도 반대하는 상좌부 장로들 때문에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성 스님은 "한국 불교 승단으로만 한정한다면 수정안보다는 제정안이 실현 가능할 것이다.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흥기한 이후 당시 부파불교에서 전해져 내려온 성문계(聲聞戒)를 버리고 새로운 보살계(菩薩戒)를 제정했다. 한국불교 승단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말했다.

토론자인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은 승가의 일이 세간에서 논의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율사의 입장에서 원론을 강조했다.



마성 스님, 도일 스님, 조승미 연구원(왼쪽부터)이 팔경법의 현대적 이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도일 스님은 "팔경계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비구니를 안 하겠다는 것이다. 팔경계 논란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결점이 달라진다. 승단은 남성 · 여성이 아닌 비구 · 비구니라는 수행집단이다"고 말했다. 팔경계는 세간의 가치와 다른 출세간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스님은 또 팔경계의 주요 조목인 비구에 대한 공경도 여성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 비구 승단과 비구니 승단의 좌차를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성인 사미가 여성인 식차마나에게 예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했다.

도일 스님은 "비구 비구니들이 자신이 수행을 위한 출가 집단이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남녀 평등 문제로 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성품을 잘 닦은 수행자라면 남녀의 상을 떠나 근본적으로 인간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비구니 스님들과 여성 불교학자들은 팔경법이 명백한 여성 차별이라고 반박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승미 서강대 종교연구소 연구원은 "현대사회에서 젠더를 근거로 위계를 정하고 그에 대한 비판 자체가 금지되는 조항을 명문화 하고 있는 것은 종교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팔경법이 비구니 승가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비구에 대한 비방이 종단에 대한 발언과 동일시 되면서 비구니의 발언권 약화로 이어지고, 비구니 승가 내부 검열이 강화되면서 의견도출 통로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제2주제 세미나에서는 '율장에 나타난 부동주'를 주제로 이자랑 동국대 HK 연구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자랑 교수는 부동주(不同住)가 부파 분열의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해인사 前 율원장 혜능 스님과 중앙승가대 강사 경성 스님은 화합과 평화를 지향하는 승가의 정신 속에서 부동주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비구니 부총무원장 두면 해결될 일

토론서 팔경법 극복 방안 제시

팔경법과 부동주에 관한 세미나 후 모든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종합 토론을 펼쳤다. 종합토론에서는 팔경계의 여성 차별을 지적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반론이 이어졌다. 특히 한일불교유학생교류회 공동대표 원두 스님은 비구니 부총무원장 제도 도입 등 장기적 해법을 통해 불평등 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두 스님은 "비구니 부총무원장 제도를 통해 비구 · 비구니 스님들이 질서 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계율도 많기 때문에 종헌은 바꿀 수 없어도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마성 스님도 팔경법 극복 방안을 제시하면서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의 동등한 지위를 강조하기도 했다. 스님은 "제1경법에서부터 제3경법까지의 조항을 이부승가의 합의에 의해 별도의 규정을 만들고 제4경법에서 제8경법의 항목은 이부승 제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비구니 승가가 비구 승가로부터 독립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를 이원화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인데 마성 스님은 이 경우 별도의 기구를 신설해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혜영 대진대 초빙교수는 "공동체의 일원을 어떻게 가름하고 화합과 번영의 차원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붓다의 관점을 통한 이해와 해석이 필요하다. 붓다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문헌학적인 자료라도 재검토하고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승가대 오인 스님은 이자랑 교수에게 비구니 팔경법과 부동주를 연계한 질문을 던졌다. 오인 스님은 "부동주에 따라 뜻이 같은 비구니 스님들이 교단을 만들겠다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자랑 교수는 "부동주는 파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율장에서 파승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비구뿐이다"고 답했다.

박기범 기자

팔만대장경 눈으로 볼 마지막 기회

11월 15일부터 국립고궁박물관서 특별전

초조대장경 천년의 해를 맞아 대장경 관련 국보 · 보물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11월 15일~12월 18일 국립고궁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천년의 기록, 내일을 열다'를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문화재청 발족 50주년과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 판각 천년을 기념해 열리는 행사에서는 국보 제243호 '초조본 현양성교론 권11', 국보 제266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75' 국보 제32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등 국보 19점, 보물 13점 등 총 51점의 대장경 관련 유물이 공개된다.

초조대장경은 1011년(고려 현종2)에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하여 판각한 국내 최초의 목판대장경으로 중국 북송 때 만들어진 개보칙판(開寶勅版) 대장경(971~977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한역 대장경이다. 아울러 세계


2002년 해인사 장경각을 방문한 중국불교대표단이 대장경을 살펴보고 있다.

기록유산인 해인사 소장 재조대장경의 근간이 되며 역사적 · 민족적 ·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리 민족의 찬란한 문화유산이다.

특히, 해인사 대장경판은 이번 전시를 끝으로 더 이상 일반에 공개하지 않을 예정으로, 일반인들이 팔만대장경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탱(幀)' · '탱화(幀畵)' → '도(圖)'로

국보 · 보물 등 348건 명칭 변경

불교회화를 지칭해 온 '탱(幀)', '탱화(幀畵)' 명칭이 '도(圖)'로 변경되는 등 국보 · 보물 348건의 명칭이 변경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 · 보물 348건(국보 72건, 보물 276건)의 지정 명칭을 변경한다고 11월 9일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지정 명칭의 명명(命名) 방식이 일제강점기와 근 · 현대를 거치며 왜곡되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워 일제 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지정 명칭 변경은 공예, 회화, 도자 등 분야별 관계전문가의 의견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등을 거쳐 진행됐다"며 "유물의 특성을 정확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으며, 종전에 붙여 쓰던 문화재 명칭 표기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불교 회화는 불화를 통칭하는 '탱(幀)', '탱화(幀畵)' 사용대신 '도(圖)'로 통일해 표기했다. 불화의 한 장르인 벽화는 명칭에 벽화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벽화'로 표기했다. 또, 일반 회화는 기존의 작품명 앞에 "호(號)"를 표기하였던 것을 작가명 표기로 변경했고, 작가명과 작품명 사이에 "필(筆)"자를 표기했다. 도자기의 명명은 종류〉기년명〉시문기법〉문양〉기형 순으로 표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쉬운 이해를 위하여 기존 한자어 표기를 한글로 풀어 표기하되 지나친 한글 전용은 지양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경주 불국사 대웅전(慶州 佛國寺 大雄殿)', '경주 불국사 가구식 석축(慶州 佛國寺 架構式 石築)'과 '논산 노강서원 강당(論山 魯岡書院 講堂)' 등을 11월 11일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조동섭 기자

학술 단신

현각 스님, '선과 두뇌' 특강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로 유명한 현각 스님이 '선과 두뇌'를 주제로 강연한다.
행사는 서울 신수동 문화공간 '숨도'에서 11월 17일 오후 7시 열린다. (02)717-3535

미국 생태심리학자 진흥원서 특강

생명의 소중함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강연이 열린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은 11월 17일 오후 2시 다보빌딩 법당에서 미국 생태심리학자 조나단(Jonathan A. Barfield) 박사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한다. 이어 18일 오후 7시에는 문화공간 '숨도'에서 영어로 워크숍을 진행한다. (02)719-2606

조동섭 기자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제5회 법계고시 시행 공고

(사)한국불교 조계종 법계고시를 종법에 의거 (제5회 법계고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덕 대선 및 대덕, 종덕 및 종사, 대종사 품수를 응할 대덕큰스님은 소정의 절차를 기간 내에이행 하시어 법계고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 시 명 : 제5회 사)한국불교 조계종 법계 고시

■ 일 시 : **2011년 11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 장 소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1리 300번지 총본산 총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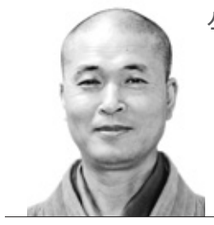
■ 종사급 이상 품계를 받는 분에게는 인증패 불자등을 수여함

품 계	연 령	법 납	학력경과	경과년수
선 법	25세 이상	5세 이상	고졸 사교	1. 선법 법계를 받은 후 5년경과 입적 후 5년 경과한 자 2. 중법, 대법 법계를 받은 후 5년경과 후 입적 후 10년 이상 경과 3. 승정, 종사 품수로서 5년경과 후 60세 이상 경과한 자 4. 대종사는 역임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 법	30세 이상	10세 이상	고졸 사교	
대 법	35세 이상	15세 이상	대졸 이상	
승 정	40세 이상	20년 이상	대졸 이상	
종 사	60세 이상	35세 이상	대졸 이상	
대종사	60세 이상	40세 이상	대졸 이상	

♠ 신청 및 구비서류 : (1) 법계고시 신청원서 (총무원에서 발급한 양식) (2) 증명사진 1매
♠ 신청마감(서류전형) : 2011년 11월 30일까지
♠ 문 의 : 전국대표번호 1577-1016, (054)-572-1034

불기 2555년 11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제5회 법계고시 시행 공고
종 정 대 행 총무원장 대 봉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도가 깊을수록 평범하다

학승이 물었다.
"저는 남쪽으로 가서 어느 정도 불법을 배우려고 합니다만 어떻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 남쪽에 가서 부처님이 계시는 곳을 발견하였거든 급히 달려서 지나가라. 또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도 머물러서는 안 돼."
학승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의지할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버드나무의 솜, 버드나무 솜."

問 學人擬向南方學些子佛法去如何 師云 你去南方 見有佛處急走過 無佛處不得住 云 與麼即學人無依也 師云 柳絮柳絮

부처는 모양에도 없고, 이름에도 없고, 느낌에도 없다. "만약 여기에 부처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그 어떤 것이라고 해도 절대 부처가 아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들은 부처가 있는 처소를 만나게 되거들랑 급히 지나갈 것이고, 부처가 없는 처소를 만나거들랑 더더군다나 머물지 말아야 한다. 이 말에 깊은 뜻이 있으니 바로 알아차리길 바란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엔가 의지할 것이 없어지면 두려워하고 당황하게 된다. 이것은 나약해졌기 때문이다. 원래 본심은 나약하지 않다. 스스로 강하고 위대하다. 무엇엔가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불종자가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 마치 버드나무 솜처럼 스스로 자유로워져라. 나중에 조주 스님의 가르침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세 치 혀에 의지하지 않아도 역시 지금[今時]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내가 자네의 말에 따른다면 자네가 어떻게 알겠는가?"

問 不籍三寸 還假今時也無 師云 我隨你道 你作麼生會

현재에 대해 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버리는데 어떻게 현재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말로 표현하지는 못해도 현재는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설사 현재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 현재를 알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현재는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은 단 한 번도 정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말이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특히 마음, 근원 사랑 미움 진리 등 중요한 단어에 대한 것들은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런 것이 분명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인간사가 복잡해지는 것이다. 이들이 허망한 것임을 파악하고, 이 모든 것을 떠난 초인이 된다면 우주를 관통한 대인(大人)이 될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노스님의 가풍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끝없는 우주에 사람이 수수히 많아."
학승이 말했다.
"청컨대 노스님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대답 없이 있어야 해."

問 如何是和尚家風 師云 茫茫宇宙人無數 云 請和尚不答話 師云 老僧合與麼

조주의 가풍에 대해 여러 번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대답을 달리하고 있다. 여기서 "끝없는 우주에 사람이 무수히 많다"라고 말한 것은 "나 같이 평범한 사람이 망망한 우주에 무수히 많은데 가풍을 물어서 무엇 하겠느냐? 특별한 것이 있어야 나의 가풍은 이렇다하고 말해줄 것이고, 해줄 가풍이라는 것이 있어야 말해줄 것인데, 나는 평범한 다른 노인과 전혀 다른 바가 없다"라는 뜻이다.

도가 깊어질수록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된다. 고품격의 단어들은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평범한 노인들의 말만 오고 간다.

무불선원 선원장

선경 해제
한국선과 선어록

열반경

열반과 불성을 담은 경전

열반은 불교에서 지향하는 궁극의 목표이며 최고의 가치이다. 그런 만큼 열반은 인간의 완전한 이상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석존의 열반은 바로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에 대한 전형이다. 그 열반의 바탕에 불성이 자리하고 있다. 불성은 그와 같은 열반에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이 석존의 열반을 통해서 발견해 낸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고 가장 이상적인 원리였다. 따라서 연기법이 석존의 정각을 통해서 드러났다면 석존의 열반이 창출해 낸 걸작은 불성의 사상이었다.

석존의 열반은 불교교단사의 입장으로 보면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 아울러 사상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석존의 열반은 이전까지의 열반과 이후의 열반의 개념이 가장 함축적으로 제시해 주었다. 이전의 열반 개념은 늘상 현실에서 부딪치는 문제점에 대해 그 원인과 과정과 해결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목표로서 불도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의 열반개념은 모든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일체의 유정 무정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불성은 열반의 바탕 · 속성으로 발전
〈열반경〉은 편찬본과 창작본으로 나뉘어
〈원시열반경〉, 불멸상주의 실체 없다
〈대승열반경〉, 상주불멸하는 불성이 있다

여기에서 비로소 불성이 완전하게 그 개념을 확보하여 수행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었다. 곧 불성은 열반의 바탕 내지는 열반의 속성으로까지 발전했다. 그래서 불성은 법신이 모든 대상에게 충만하고, 진여불성은 모든 대상에게 무차별하며, 여래의 종성이 모든 대상에게 구비돼 있다는 의미로 확장됐다. 심지어 대비천제의 개념을 창출해 일천제에 이르기까지 궁극적으로 불성의 실현을 주장했다. 이 점은 불성이 지금의 현실을 넘어서 먼 미래에 이르기까지 형이상학적인 범위로 확대되어가는 출발이 됐다.

경전은 그 성립과 성격으로 보면 편찬된 경전과 창작된 경전으로 분류된다. 〈대반열반경〉도 편찬본과 창작본이 있다. 그 성립으로 보면 전자는 고본 〈대반열반경〉이고 후자는 신본 〈대반열반경〉이다. 고본 〈대반열반경〉은 초기불전에 속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원시열반경〉으로 불리고, 신본 〈대반열반경〉은 대승불교에 속하기 때문에 〈대승열반경〉이라 불린다. 〈원시열반경〉은 빨리어로 씌어져 있고, 〈대승열반경〉은 산스크리트어로 씌어져 있다. 전자는 일반대중에 대한 설법으로서 특별한 해설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임에 비하여, 후자는 보살들을 상대로 설법한 것으로 철학적 형이상학적인 내용까지 가미되어 있다.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우선 〈원시열반경〉에서는 제행무상 일체행고 제법무아라는 불멸상주의 실체가 없다고 설해져 있다. 그러나 〈대승열반경〉에서는 상 · 락 · 아 · 정이라는 출세간의 상주불멸하는 불성이 있다고 설해져 있다.

〈대승열반경〉은 최초 부분에서 불타는 대선정에 들어가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설한다. 불타의 열반은 소위 죽음과는 달리 수명이 무량하여 유구불멸하다고 설한다. 그리고 불타의 신체는 상주불괴하고 불타의 언설은 진리이다. 이 두 가지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불타는 언제나 중생의 곁에 있으면서 보살펴주는데, 그 남겨놓은 진리의 말씀을 암기하고 염송하며 서사하면 우리네 몸에 불타의 공덕이 터득된다고 가르친다.

경전의 중간 부분에서는 아사세왕의 병과 고뇌가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가 불타를 만나고 설법을 듣는 장면이 나온다. 그는 불타의 설법에 감명을 받고 반성을 하며 엘란다라는 독나무에서 전단수의 싹이 트는 것을 비유하고, 포학한 마음이 없는 자신에게 이제는 불타에게 귀의하고 싶다는 생각이 생겨났다고 말한다. 경전에서는 뿌리가 없는 믿음이 만들어 낸 불가사의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마찬가지의 중간 부분에서는 열반에 대하여 계속 상세한 설명을 하고 그 열반에 들어가기 위한 갖가지의 수행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서 불성에 대해서도 갖가지 비유를 들어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열반경의 핵심사상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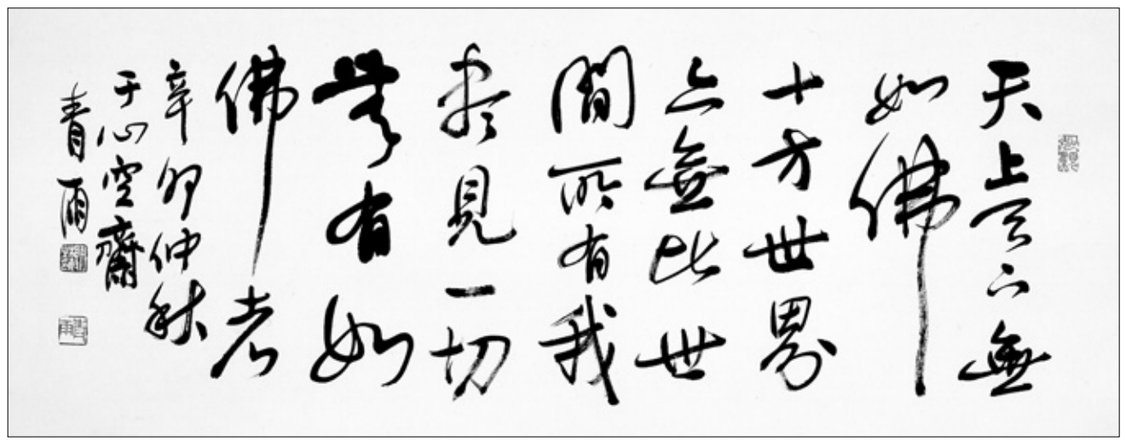
불성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실천해야 하고, 불성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와 드러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그리고 불성의 소재에 관한 설명에서는 인중유과설 · 인중무과설 · 중연화합설에 대하여 설명한다. 경전의 끝 부분에서는 어째서 쿠시나가라에서 임종을 맞이하는가에 대하여 설명한다. 여행 도중에 병에 걸리는데 그 장소가 쿠시나가라에서 가까웠기 때문이 아니라 쿠시나가라에서 임종을 맞이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나아가서 불타가 일찍이 바라문과 대론했던 내용을 길게 설명한다. 특히 아트만에 관한 선니외도와의 대론은 불성사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르침이다.

〈열반경〉의 가르침은 열반과 불성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열반의 속성으로는 법신 · 반야 · 해탈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 나아가서 상 · 락 · 아 · 정의 네 가지 덕성은 각각 상바라밀 · 락바라밀 · 아바라밀 · 정바라밀 등 사바라밀다로 설정되어 있는데 네 가지 고 · 공 · 무상 · 무아의 사전도행을 물리치는 개념이다. 불성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출체문 · 인과문 · 견성문 · 유무문 · 삼세문 · 회통문의 6가지로 분별하여 설명한다. 이와 같은 〈열반경〉이 보여주는 선법의 요소는 대단히 풍부해 달마로부터 혜능에 이르는 초기선종에서 〈유마경〉 〈반야경〉과 더불어 가장 널리 의용됐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윤상민의 **서화산책** 석가모니 찬탄 게송



청우신불무진간역시여천
우심묘 견소무방불상
공중 유 일유비세 천하
재추 자여체아세계 무

亦: 또 역
比: 견줄 비
盡: 다할 진
切: 온통 체, 끊을 절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부처님 같은 이 없네

天上天下無如佛 十方世界亦無比 世間所有我盡見 一切無有如佛者(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역무비 세간소유아진견 일체무유여불자)

하늘 위나 하늘 아래 부처님 같은 이 없으며 시방세계에서도 또한 비교할 사람 없네.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다 둘러보아도 그 무엇도 부처님 같은 이 없네. - 〈치문〉

분한신고 안내

◐ 기 간 : 2011년 11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 접 수 처 :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 신고요령 및 절차
1. 신고인은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총무원에 제출한다.
2. 총무원 종회, 원로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3. 총무원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 준 비 서 류
승려 및 분한신고서 1부. 서약서. 주민등록증등본 1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승려증 사본 1부. 구 사원등록증. 구 주지 임명장. 사진 5장. 학력,경력 증빙서류첨부.
이력서 1부 (서류경비 10만원)

◐ 유 의 사 항
1.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종도는 자격정지, 탈종, 고유번호 및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분한 신고기간 후 본 종단에 앞서 발행한 모든 증빙서류는 효력 상실되오니 기간안에 종도님들께서는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분담금 및 제반 공과금 미납시 신고 및 접수 불가 합니다.
4. 제반 사항 하자시 신고서를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원에 문의 바랍니다.

2011년 11월 11일

(사)한국불교 조계종 총무원

주소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1리 300번지 총본산 백봉사 전화 : 1577-1016

총무원장 대봉 합장

경 고 문

(사)한국불교 조계종

상기 명칭은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4호 전사련
법인으로 등기된 명칭이오니
무단사용하거나 도용하면
민형의 법적 책임이 있음을
공고합니다.

(사)한국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대봉 합장

研究 및 受講生 모집

東醫寶鑑 方藥合編. 藥草學
강 의 합 니 다
(스님들 특별히 환영합니다)

한약 효능 안내

기효만령단 (寄效萬靈丹)	고혈압, 중풍, 당뇨병, 관절신경통, 견비통, 요통, 근육통, 골절통, 편정두통, 좌골신경통, 자궁근종, 안면신경마비증, 수족신경마비증, 일체담증, 수족냉각증, 산후풍증, 중이염, 골수염, 고환염, 말초신경염, 여드름, 치질, 치루, 통풍, 악성피부질환, 소화불량, 양기부족 등
안중산(安中散)	위궤양, 위염, 십이지장궤양, 궤양성 대장염
창이환(蒼耳丸)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호마산(胡麻散)	백전풍, 백나병, 백반증
익수환(益壽丸)	당뇨, 정력, 빈뇨, 전립선염, 방광염
청보환(淸補丸)	신종플루, 해수, 천식, 기침, 기관지염, 감기
생간건비탕(生肝健脾湯)	간염, 간경화, 간암, 지방간, 황달
소풍산(消風散)	이명, 보약, 두목, 혼현, 비색, 부인혈풍두양
청심연자음(淸心蓮子飮)	심장 신장 기능 강화, 요실금, 오줌소태, 전립선염
신효과루산(神效瓜蔞散)	유방암, 유선염
팔진탕(八珍湯)	임신구토, 임신빈혈
귀비온담천마탕 (歸脾溫膽天麻湯)	현훈(眩暈), 어지러움증, 불면증, 신경쇠약
총명익기탕(환) (聰明益氣湯)(丸)	안혼(眼昏), 이명(耳鳴), 이농(耳聾), 정신상쾌, 식욕증진, 오로칠상 허손(五勞七傷 虛損), 간상(肝傷), 치매, 냉누출(冷淚出), 양기부족
항암식품(抗癌 食品)	오백산(五白散), 강유탕(糠榆湯)

(참고문헌 : 東醫寶鑑)

문의 : 慈悲會 02)722-4848 / 010-2538-7789

고려불교처럼 우리도 한마음으로

부산불교聯, 전통문화 팔관회 봉행

〈고려사절요〉 등 고려시대 문헌에 기록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려 팔관회의 원형을 알리고 계승·재현하기 위한 전통문화 축제가 열렸다.

부산시불교연합회(회장 정여)는 11월 5~6일 부산 어린이대공원 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 일원에서 2011년 전통문화 팔관회를 개최했다.

첫째 날인 5일에는 팔관회 기념 부산시민걷기대회 '명상따라 걷는 부산불교' 가 열렸다.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참석해 걷기 명상으로 부처님 수행을 실천했다.

이튿 날인 6일에는 팔관회 재현법회를 비롯해 수계법회, 문화행사가 진행됐다.

팔관회 재현법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정여 스님(부산 범어사 주지)과 수석부회장 화산 스님, 허남식 부산시장, 제종모 부산시의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비가 내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팔관회 재현법회는 차분히 진행됐다.

팔관회 재현법회에 이어 온가족이 함께 하는 전통문화체험, 국태민안 기원 호국 영산대재, 전통궁중음악 연주, 팔관회 축하공연인 '우리가락 한마당', 인기가수 초청공연 등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팔관재계 수계법회는 200여 불자들이 일제히 수계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팔관재계는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 거짓말, 음주를 금하는 다섯 가지 계율에 '부모님께 효도하라', '스승을 공경하라', '나라에 충성하라'의 3계를 더한 계로 불자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해 바른생활을 실천해 가도록 하는 계다.

한편, 팔관회는 신라 진흥황이 토속신앙을 제천행사로 통합시키고 불교의 의례를 결합하여 처음 개설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이 있다. 고려 태조 왕건은 신라 팔관회를 계승해 어지러웠던 시국 국민통합의 수단으로서 불교의례로 봉행했다. 고려 팔관회는 건국 공신들을 추모하는 위령제 등이 추가돼 고려 최고의 문화 축제로 자리



2011 팔관회 재현 법회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여 신도들이 참석했다.

했다. 하지만 조선시대 억불숭유 정책에 의해 700여 년 가까이 민중 속에 묻혀 있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13년 전인 1998년 팔관회의 문화적 가치를 살리기 위해 불교 행사를 넘어 민족 문화 창달의 범국가적 행사로 팔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백양사, 산사음악회 '쌍계루의 추야몽' 개최

각종 전시회 2000여 명 참여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지역민들과 음악이 함께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장성 백양사(주지 시몽)는 11월 5~6일 2011 백암산 단풍축제 '쌍계루의 추야몽'을 개최했다. 20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6일 백양사 박물관에서 만암·서옹 스님을 비롯한 백양사 고승 관련자료 전시회와 나비 전시회를 시작으로 네잎클로버 300만잎 전시, 수석으로 만나는 부처, 달마, 나한상 등의 다양한 전시회가 진행됐다.

6일 열린 야단법석에는 굿패마루의 대북공연, 어린이 트롯트신동, 가야금 병창이 공연됐으며 지역민 중 효자·효부 표창과 조손가정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7일에는 인기가수 박상철, 윤태규, 정정아 씨의 공연과 장성지역 어르신들의 민요가 선보였다.

시몽 스님은 "백암산 백학봉과 어우러지는 백양사는 최고의 관광지이자 수행처"라며 "백양사를 찾은 모든 이들이 마음을 공부하는 좋은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행사와 별도로 쌍계루 주변에서는 JTS의 북녘돕기 캠페인과 단주만들기 체험, 떡매만들기, 솜사탕 만들기 등이 펼쳐져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자비신행회, 아침밥 나누기 행사 진행

광주지역 대표 신행단체가 청소년들의 아침을 챙겨줘 화제가 되고 있다.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11월 4일 전남여고 교문 앞에서 등교하는 청소년들에게 '십시일반 밥차 청소년 아침밥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강에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다뜻한 사회의 정을 느낄 수 있게 하고자 실시됐다.

행사에는 광주무진로타리클럽 회원들이 봉사자로 참여하여 350여 개의 주먹밥을 아침 7시부터 2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다.

한편 자비신행회는 2008년부터 지역 사찰들과 공동으로 십시일반 밥차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먹거리를 나누는 무료급식사업을 120여 회 진행해 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스님들, 태국 수해 돕기 나섰다

승보회, 태국 고승에 성금 전달

조계종 광주 승보회(회장 일명)는 11월 4일 자비신행회 강당에서 태국 수재민을 위한 기금 500만원을 붓타라키타 스님(보리수 선원 선원장)에게 전달했다.

현재 태국은 수도 방콕을 비롯해 태국 전역에서는 5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큰 수해가 발생하여 400여 사망자와 300만 이재민이 발생했다.

붓타라카타 스님은 "이번에 지원된 금액은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 구호비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승보회 회장 일명 스님은 "TV를 통해 불상이 물에 잠기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태국 시민들의 고통에 회원들의 힘을 모아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붓타라카타 스님은 11월 7일 태국 현지에서 구호 사용처를 조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소아암 환우 위한 무등산 걷기 열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는 11월 6일 무등산 제4수원지 청풍쉼터에서 원효사까지 무등산 옛길 희망걷기를 진행했다.

비가 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에는 현지, 지각, 일명 스님을 비롯해 운전자 불자회, 원각사 청년회 등 300여 불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개방한 무등산 옛길을 따라 5.35km의 산행이 진행됐다.

또 오후에는 원효사에서 주권기, 김제선, 유미랑, 소리섬사람들의 공연과 마술쇼 등이 이어졌다.

현지 스님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병상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병마를 이겨내기를 기원한다"며 "천진불처럼 항상 밝은 웃음을 잃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익산 정각사 삼존불 점안법회 봉행

익산 정각사(주지 일행)가 익산 서부 전법도량으로 탄생했다. 정각사는 11월 6일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대웅전 삼존불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익산사암연합회장 지광 스님(숭림사 주지), 남원사 주지 상래 스님, 관음사 주지 덕림 스님 등 지역스님들과 김진수 전북포교사단장, 이춘석 민주당 국회의원 등 3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월주 스님은 증명법어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대승보살의 자세로 신행생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행 스님은 "삼존불 조성불사를 계기로 정각사가 수행과 교육, 전법도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오심 스님의 달빛 고운 절에서

얻은 것도 얻지 못한 것도 없다

〈숫타니파타〉의 내용 중에 '죽기 전에' 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글은 다음과 같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계율을 지키는 자를 '평안하다' 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고오타마여, 그 최상의 도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이 대답했다.

"죽기 전에 애착을 떠나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에 있어서도 이것저것 생각하며 근심 걱정하는 일이 없으면 그는 미래에 대해서도 특별히 염려할 것이 없다."

성자는 노여움을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랑하는 일이 없고 후회하지 않으며, 주문을 외거나 들뜨는 일 없이 말을 조심한다. 미래를 원하는 일이 없고 과거를 추억해 수심에 잠기는 일도 없다. 감관에 닿는 갖가지 사물에서 멀리 떠나 온갖 견해에 유혹됨이 없다. 탐욕에서 멀리 떠나 거짓을 모르며, 욕심을 부리는 일이 없고 인색하지 않으며, 거만하지 않고 남에게 싫은 인상을 주지 않으며, 말이 부드럽고 온화하며, 믿는 것도 없고 욕망에서 떠날 일조차 없다. 이익을 바라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 이익이 없다고 해서 노하지도 않는다. 집착 때문에 다른 사람을 거역하는 일이 없으며, 맛있는 음식을 탐하는 일도 없다. 갖가지 욕망을 돌이켜 생각지 않는 자야말로 '평안한 자' 라고 나는 말한다. 그에게는 얽매이는 사슬도 없고, 이미 모든 집착에서 떠나버렸다.

그에게는 자식도 가축도 논밭도 주택도 없다. 이미 얻은 것도 없고 또 아직 얻지 못한 것도 그에게는 없다. 범부나 사문, 또는 바라문들이 그를 비난하여 탐욕의 허물이 있다고 말하겠지만 그는 탐욕을 생각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갖가지 논란에도 동요하지 않는다. 성인은 탐욕을 떠나 인색하지 않으며 '자기는 잘났다' '자기는 동등하다' '자기는 못났다' 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분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망상분별에 따르지도 않는다. 성인은 세상에서 소유하는 것이 없다. 또 지닌 것이 없다고 걱정하지도 않는다. 그는 모든 사물에 관심을 가지는 일도 없다. 실로 그를 '평안한 자' 라 할 수 있다.

"이미 얻은 것도 없고 또 아직 얻지 못한 것도 없다"라는 말이 자꾸만 뇌리를 스친다

마음이 평안하면 욕망도 사라진다. 삿된 마음이 욕망으로 변하여 종영에는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이 불 보듯 뻔한 이치이다. 서로 잘 났다고 나의 의견만이 옳다고 너의 의견은 틀렸다고 하는 세상이다 이것도 자신만의 욕심이라고 생각한다. 조금씩 한발 물러나서 쳐다보면 더 멀리 볼 수도 더 넓게도 볼 수 있는데 서로 가까이서 으르렁 거리면서 보니 바로 화난모습 찡그린 모습만 보일 수밖에 더 있겠는가?

남이 변하길 바라기전에 내가 먼저 변해보는 것은 어떨까? 남이 먼저 손내밀기전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것은 또 어떨까?

웃는 얼굴에 침 못뱉는다는 옛 속담도 있지 않은가? 웃어보자.

욕망은 끝이 없는 아주 못된 마구니와 같다. 매달려 있으면 서있고 싶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있으면 자고 싶은 것이 인간의 무한정한 욕망이다.



옛 말씀에 '조고각하' 라는 말씀이 생각난다. 자신의 발밑부터 살피면 더큰 욕심은 꿈꾸지 않지 않겠는가?

오심 스님(월봉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200 종도들에게 올리는 글

존경하는 200종도 제위 여러분
부처님이 불법을 개창하고 전법해온지 2555년 그간 우리 불자들은 상구보리 하화중생 정토구현의 가치를 내걸고 면면히 그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종단의 창종주이신 대곡당 법보대종사께서 환우로 투병하시면서 종단의 인허가를 득하여 공포한지도 4주년이 지난 이후 종단의 진로는 심히 유감스럽게도 안정을 찾지 못한 채 일부 불순한 생각으로 종권에 욕심을 두고 있는 몰지각한 몇 명의 승려들에 의해 표류해오다 다행이도 창종주이신 대곡당 법보예하께서 환우가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회복되시어 지난해 10월 19일에 충본산인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474-1 용문사에서 대곡당 법보예하께서 지시하여 종회의장 법헌스님께서 구종 대책회의를 열어 화기애애한 가운데 여법하게 총무원장 청곡스님을 추대 하였던바 스님의 사찰에 화재등으로 사임하고 또다시 표류 해 오던 중 월광스님을 종정예하께서 추천하였으나 종회에서 심의결과 월광 총무원장께서는 타종단의 종정직에 재임중인바 민족불교총무원장직에는 안맞는 관계로 2011년 11월 3일 종회의장 법헌스님 주석사찰인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관한1리 정각사 대웅전에서 종정예하를 모시고 종단 최고 종책회의에서 비상대책회를 발족하여 종회의장께서 종령으로 민족불교조계종의 모든 종무기관의 해산을 확인하고 종헌 종법을 일시정지하고 당분간 법인 이사회의 주도로 조직하고 입법, 행정, 호계의 3권을 관장토록 하여 법인의 정관과 종헌 종법을 일부 개정하여 3권을 관장토록 하여 법인의 정관과 종헌 종법을 일부 개정하여 교구종무원과 중앙종회의원을 새로 선출하고 새로 개회하는 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을 비롯한 전 종헌, 종무기관을 새롭게 선임하여서 종정추대위원회를 개의하여 종정, 총무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사오니 애교 애종하는 전 민족불교조계종 종도께서는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5(2011)년 11월 10일

(사)민족불교조계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법헌 위원 : 금담. 수혜. 대진. 성청. 도효. 법성. 수연. 성연. 우연화. 청정수

■ 본 산 :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474-1 063) 834-3044 017-328-3009
■ 비상대책위원회 031)883-0417 010-481-2560

제 3회 원효학술상 공모

元 曉 學 術 賞

(재)대한불교진흥원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에서는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주도할 학자를 격려하고 인재를 육성하여 한국철학이 국제사회에서 세계 철학을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회 원효학술상 공모를 실시합니다.

■ **공모 주제** -.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위한 불교사상 연구 부문
-. 서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서양사상 연구 부문
-. 동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동양사상 연구 부문
(상기 부문 중 자유선택, 1인 1편 응모)

■ **시상 부문 및 상금** -. 교수(전임강사 이상 및 그에 준하는 자), 저술상 : 1,000만원 혹은 논문상 : 700만원
-. 박사과정 후 비(非)전임교수 1인, 논문상(저서 포함) : 500만원
-. 석, 박사과정 학생 3인 이내 금상 : 300만원, 은상 : 250만원, 동상 : 200만원
(모든 부문 공통 : 국내 및 재외국인·외국인 포함, 영어에 한함)

■ **제출서류** 1) **지원서 1부** (양식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저술 2부, 논문(별쇄본) 3부**
① 학생 논문의 경우 교수(전임강사 및 그에 준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것.
② 심사 대상작품은 최근 5년 이내(2007년 1월 1일~2011년 12월 30일까지)에 발표된 저술이나 논문에 한함(저서는 ISBN 등록본).
3) **재외국인과 외국인의 경우, 영어에 한하며 한국어본 초록(A4 3매 내외)을 제출해야 함.**

■ **접수 방법** 1) **접수 기간 :** 2012년 1월 2일(월) ~ 2012년 2월 29일(수) 오후 5시까지
2)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당일자 소인 유효)
3) **접수처 : 주소**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15층,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원효학술상 담당자
전화 (02) 719-2606

■ **수상자 선정 및 시상식** 1) **심사 후 선정 및 통보** 2012년 4월 중순(선정자에 한해서 개별 통보)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 부문 또는 상금 내용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음.
2) **시상식 :** 2012년 4월 말(추후 공지)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 www.kbpf.org, 문의: 02-719-2606



①


②


③


④



⑤

①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전경. 왼쪽이 신축법당, 오른쪽이 기존 법당이다.
②상량식에는 청동 현판이 사용됐다.
③그동안 불사에 참여한 동참자 현판
④상량식에는 600여 불자가 참여했다.
⑤지인 스님의 진혼무

비상하는 젊은 불자들의 요람, 마침내 대들보 올리다

조계종 군종교구, 5일 논산 호국연무사 신축법당 상량식 봉행

"군포교 발전의 토대가 될 호국연무사 신축법당의 원만 회향을 기원합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논산 육군훈련소. 11월 5일 논산 육군훈련소의 문이 활짝 열렸다.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자광)가 진행한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 신축법당 상량식이 열린 것이다.

이날 호국 연무사를 찾은 600여 불자들은 35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호국 연무사 신축법당의 자태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직 건물 기둥과 지붕뿐이지만 그 크기 만으로 완공 시 위용을 가늠케 했다. 행사를 앞두고는 흐릴 것으로 예상됐던 날씨조차 맑게 개었다.

이날 상량식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을 비롯해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 동학사 주지 견성 스님, 갑사 주지 태진 스님을 비롯한 스님 50여 명과 군법사 80여 명, 김정호 육군훈련소 소장, 최용림 국군불교총신도회장 등 군 관계자 30여 명이 함께 했다. 또 민병덕 군국불교후원회장, 김옥분 불교어머니회장 등 그동안 호국 연무사 신축법당 건립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불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워 신축 불사 회향을 서원했다.

포교원 포교국장 남전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상량식에서는 군법당이 들어서는 논산에서 희생된 수많은 군장병과 뭇생명을 위로하는 지인 스님의 진혼무가 진행됐다.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은 "불사를 둘러싼 아쉬움과 섭섭함을 다 털고 원만한 회향을 위해 상량식을 열게 됐다"며 "훗날 장병 포교의 요람이 될 호국 연무사의 원만 회향을 위해 사부대중의 원력을 좀더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현재 120억 원의 공사비용 중 75억 원이 모연된 상태다. 30년간 설렁탕 장사로 모은 돈을 희사한 노보살님, 본인은 양로원에서 생활하며 용돈을 모아 불사에 희사한 노보살님 등 수많은 불자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조계종 종회의장 보선 스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들의 불사 진행을 기원하는 격려사도 이어졌다.

보선 스님은 "호국연무사는 한국불교 최대 전법도량으로 군포교의 새 역사, 한국불교 중흥의 전환이 될 대불사"라며 "원만 성취를 위해 모든 사부대중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도 "논산훈련소는 군 장병을 육성하는 중요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각계의 축하와 격려의 말에 이어 사부대중은 일제히 일어나 "정법포교의 깃발 아래 걸어 온 걸음마다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이 도량이 원만 중창돼 모든 젊은 청년의 발원을 다 품어줄 대도량으로 우뚝설 때 군포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발원했다. 끝으로 "상량, 상량, 상량"의 세 번의 구호와 함께 '비상하는 젊은 불자들의 요람! 영원하소서'라는 글귀가 적인 상량문이 대들보에 걸어졌다.

이날 상량식을 시작으로 호국 연무사는 본격적인 불사 마무리에 들어가 2012년 부처님 오신날 완공될 예정이다. 대지 4만 6000m²에 연면적 4680m²(1415평) 규모로 현재 6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계단식 실내 바닥공사 및 지붕 덮개 씌우기가 완료됐으며 외장 및 내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1500명 수용이 가능한 기존의 호국 연무사 법당은 교육관으로 사용되며 3500명 수용이 가능한 신축법당을 포함해 최대 5000명 규모의 법회 등 행사가 가능하다.

법당에는 4m높이의 삼존불을 비롯해 원불 1560기가 봉안되며 스님 대기실과 합창단실, 공연준비실 또한 마련된다. 군장병들의 편의를 위해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사용한 개인용 의자 3500석이 구비된다.

호국 연무사 불사에는 4500여 대중이 참여해 총 공사비 120억 원 중 75억 원이 모연된 상태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과 해인사 자비원에 거주하는 영진 스님이 각각 10억 원을 보시했으며 재가자 이분선(가명) 씨가 5억 원을, 김의정 중앙신도회장이 3억 원을 희사했다. 또 1000만원 이상 고액 보시는 150여 명이나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45억 원이 모자란 상태로 군종교구는 삼존불 복장 반야심경 사경불사 등을 통해 이를 모연할 계획이다.

후원계좌 농협 301-0063-3042-71(예금주 군종특별교구)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사찰스님 20% 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앞면 뒷면
호신불규격 직경 : 3.5cm, 세로 4.5cm

안전과 사고예방 축원불공마쳐!

호신불

험한세상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영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안전의 선물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부처님 법구 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쟁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한 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에 사고나 불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오늘도 안녕을 지켜주는 호신불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과 친지에게 뜻깊은 선물을 하면 평생 공덕을 쌓는 것이다.
호신불 뒷면에는 가는 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을 보호하고 사고예방과 안전을 기원하는 축원불공을 마친 호신불을 가방 또는 지갑속과 자동차에도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45,000원 (사찰스님 20% 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자기와 맞는 사람은 없다. 자기가 맞추며 살아야지

법륜 스님, '영108과 법륜 스님의 신나게 혼나는 여행'서 희망 전달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이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의 영108 젊은 불자들을 위한 강연에 나섰다. 법륜 스님은 11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진행된 '영108과 법륜 스님의 신(新)나게 혼(魂)나는 여행-법륜 스님 불교청년에게 한소리 하다' 에서 고뇌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스님은 젊은 불자들의 모임인 영 108 회원들과 대중들을 위해 대담과 즉문즉설을 통해 청년들이 나아가야 할 수행 방향과 자세, 마음가짐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대담의 요지이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11월 5일 불교여성개발원의 '영108과 법륜 스님의 신나게 혼나는 여행' 에서 고뇌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전하고 있는 법륜 스님

서용근(영108 회원): 불교가 좋은 건 알겠는데 청년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

법륜 스님: 불교 뿐 아니라 기성 종교들도 젊은이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불교든 기독교든 종교자체를 별로 중요시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비상식적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진리는 고사하고 상식적인 전도 수준은 돼야 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종교의식 · 교리 · 행동이 상식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부처님 계시던 시절을 보면 부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지 나이든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이에 대한 일화가 있다. 부처님 시절에 방황하는 청년들이 있었다. 남 · 여 30명이 짝을 맞춰서 야외로 놀러갔는데 한 사람이 여자 친구가 없어서 유녀(遊女)를 데리고 갔다. 다들 술 마시고 놀다 취해서 쓰러져 잤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그 유녀가 패물을 모두 챙겨서 도망갔다. 젊은이들은 여자를 잡으러 가다가 부처님을 만났다. 젊은이들이 "여기 한 여자가 도망가는 것을 못 봤습니까?"하자 부처님은 "왜 그러느냐?" 했다. 이어 젊은이들이 "그 여자가 우리 패물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하자 부처님은 "잃어버린 자아를 찾는 것이 중요한가, 잃어버린 패물을 찾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물었다. 이 말에 젊은이들은 단박에 깨달음을 얻고 출가를 했다.

그 당시 사회적 변환기에 방황하는 청년들이 쾌락에 젖어 있을 때 새로운 가치와 희망을 준 사람이 부처님이었다. 당시 종교인 브라만교는 관념적이고 권위적으로 변질 돼 젊은이들에게 아무런 호감을 주지 못했다. 반면 불교는 젊은이들에게 획기적인 호응을 얻어 수많은 출가자들을 배출했다.

불교는 현재 방식으로는 젊은이들에게 호감을 얻기 어렵다. 기성정치권은 여 · 야, 진보 · 보수로 나뉘어 싸우는데 젊은이들에게는 그들 모두가 자신들에게 무관심한 기성세대일 뿐이다.

발상자체가 달라야 청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불교든 다른 종교든 부처님처럼 젊은이들의 문제에 새로이 접근해야 한다.

서용근: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명상을 할수록 행복해지고 편안해 지는 것을 느낀다. 이런 경험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은데 쉽게 잘 안 따라온다.

법륜 스님: 내가 좋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문제로 고뇌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무엇을 하자" 이런 것 보다 먼저 얘기를 들어줘야 한다.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문제로 고민하는가를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나도 그런 고민이 있어서 이런 경험(명상이든 불교공부이든)을 했더니 참 좋더라" 등 자기 경험을 통해 상대에게 신뢰를 쌓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젊은이들은 명상을 통해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체질적으로 들떠있기 때문에 거부반응도 일으킨다. 그럴 때는 절을 하면 좋다. 약간 다리가 아프지만 조금만 참으면 할 수 있다. 땀도 나고 운동한 맛도 나고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절은 자신을 낮추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이렇게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

그리고 명상을 불교적 가르침에 맞게 지도해야지 명상이란 이름으로 외도들의 명상, 예를 들면 복식호흡, 요가를 가르치는 것은 아무리 효과적이어도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다.

명상의 첫째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 두 번째는 어느 한 곳에 집중하는 것, 세 번째는 그 상태에 깨어있는 것이다. 그런데 편안하면 졸리고 깨어있으면 긴장하게 되면서 편안함을 놓치게 된다. 처음에는 이러한 모순을 겪지만 계속 하다보면 고요한 가운데 깨어 있는 걸 잘 조절하면 집중력도 좋아지고 인간관계에서도 화를 줄이게 된다.

우리나라의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차근차근 노력하고 저축해서 돈을 모아 부자가 되겠다는 성실한 태도가 아닌 복권 당첨과 같은 욕심을 부린다. 단박에 깨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욕망이다. 욕망을 내려놔야 해탈로 가는데 깨달음이 욕망과 결합이 될 때 수행이 힘들어지고 지친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절망하게 된다. 수행을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번뇌 내 앞의 상황이 수행의 대상이 돼야

이미선(영108회원): 명상을 열심히 하는 동생이 있는데 할 때는 마음이 편하고 좋은데 현실로 돌아오면 괴리감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법륜 스님: 첫째는 선원에 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이득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일상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껴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 호흡을 하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열심히 하면 일상 속에서 화가 날 때 자기가 화나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챌 수 있다.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버렸으면 '아 내가 화를 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주의를 해야 한다.

수행을 하는데 '난 왜 안 돼지?' 라는 생각을 하면 자기 학대, 비하가 생긴다. 넘어지면 넘어졌구나 생각해야지. '왜 난 자꾸 넘어졌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넘어지면 다만 일어나고 앞으로 갈 뿐이지 주저앉아서 넘어진 것을 한탄하면 안 된다. 이게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할 원칙이다.

그리고 자기 앞에 주어진 상황이 수행의 대상이 돼야 한다. 앉아서 호흡을 할 때는 호흡만 관찰하고, 상대와 대화를 할 때는 대화에 깨어있고 운전할 때는 운전에 깨어있는 것처럼 매 순간 깨어서 현재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할 때 자기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은 망상을 하는 것이다.

서용근: 매 순간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일상생활에서 순간에 집중하기가 잘 안 된다.

법륜 스님: 회사에서 부장이 업무를 지시하면 지시에 깨어있어야 하고 야단을 치면 야단에 깨어있어야 한다. 내가 깨어있을 때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여러분이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와 싸울 때 그 상태를 지나고 나면 후회를 한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깨어있으면 지금 가장 잘 할 수 있다. 우리가 대화에 깨어있다면 그때 대답을 잘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대답을 잘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 이렇게 대답할 걸' 이라고 후회한다.

멋있게 말하려고 하거나 잘 보이려고 하거나 다른 곳에 정신을 빼앗겼기 때문에 적절한 내 수준에서 이야기를 못한 것이다. 항상 그 상태에 깨어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 안되면 다시 알아차리고 다시 깨어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내 이야기를 들을 때 '집중해야지' 하는 건 집중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다. '~해야지' 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다. 번뇌지.

명상할 때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다. 정정(正定, 고요함), 정명(正命, 뚜렷이 깨어있어야 함),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 마지막으로 정정진(正精進)이다. 하지만 명상을 할 때 자꾸 놓치게 된다. 놓치면 다시해라. 또 놓치면 다시해라. 그것이 정진이라는 의미다. 놓쳤을 때는 놓친걸 알아차리고 다만 그렇게 할 뿐이고 돌아가면 된다. '왜 난 놓쳤지' 하게 되면 번뇌다. 잘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다. 대부분은 "왜 안 되지?" 라고 한다. 안 되는게 정상 아닌가? 피아노를 처음 치는 사람이 '왜 피아노가 안쳐지지' 하는 이런 생각은 공짜로 먹겠다는 것이다. 계속 연습해야 한다.

서용근: 짝을 찾으려는 젊은이들이 영108에도 많다. 인연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 속에 상(相)을 정해놔서 짝을 찾는게 힘든건지 모르겠다.

법륜 스님: 길거리에 온갖 여자 남자가 있는데 짝이 없다는 것은 눈이 높아서 안 되는 것이다. 옛날에 선을 볼 때 중매자가 상대방의 조건을 살짝 속이기도 했다. 고졸인데 전문대 나왔다고 하고 전문대 나왔으면 4년제 나왔다고 하고. 서로들 조금씩 자신의 조건을 높이고 속이니까 막상 살아보면 내 기대치와 다르기 때문에 신혼 초에 갈등을 겪는다. 그래서 진짜 결혼하고 나서 행복해지려면 짝을 만났을 때 화장을 다 지우고 나가고, 평소에 높은 구두를 신고 나갔으면 슬리퍼 신고 나가고 좋은 옷 대신 평범한 옷 입고 나가봐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서로가 맞출 수 있다. 그러다가 결혼할 때 예식장에서 신부가 화장한 모습을 보고 '우리 마누라 화장하니 억수로 이쁘네!' '우리 신랑 멋지네!'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신혼 생활이 좋다. 여러분들이 상대의 기준을 높여서 찾는 것이 불행의 원인이 된다.

서용근: 아는 누나가 남자 보는 눈이 높았는데 결국 그렇게 고르고 골랐는데 "결국 그놈이 그놈이더라"라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법륜 스님: 맞는 사람이 어딨나. 맞춰야지. 맞추기 어려우면 나같이 혼자 살던지 해야 한다. 선택을 해야 한다. 내가 성격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닌데 만약에 결혼했으면 내가 고치든지 괴로워하든지 둘 중 하나다. 자기 성격이 원래 이런 줄 알면 거기에 맞게 살면 된다.

내가 스님으로서는 괜찮은 성격인데 결혼하기에는 절대로 좋은 성격이 아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사적인 여유로움은 전혀 없는데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나. 하지만 스님으로서는 존경을 받는다. 다 자기 기질에 맞게 사는 것이다. 자신의 카르마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내 성질대로 하면서 같이 살겠다. 내가 예쁜 여자와 결혼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자. 반드시 예쁜 사람은 예쁜 값을 하고 돈 많은 사람은 돈값을 한다.

한 남자가 어떤 여자를 3년 동안 따라다녀서 결혼을 하게 됐다. 남자는 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에 보상심리가 생겨 결혼 후 행동이 돌변하기도 한다. 여기서 여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여자가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일 때 '저렇게 나에게 매달렸으니 내가 결혼 후에는 다 진 빚을 다 갚아야 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승낙해야 하는데 '저 정도로 나한테 매달리니 결혼하면 편하겠다' 하고 승낙하면 오산이다. 자기 밖에 생각 못하는 것이다. 인간의 심리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자기 자신은 중생심으로 살면서 상대는 항상 보살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지만 내가 중생이듯 상대도 중생이다. 내가 한눈팔 수 있다면 상대도 한눈팔 수 있다.

사랑의 핵심요소는 '이해' 라고 생각한다. 이해 없는 사랑은 폭력이다. 자기가 좋으면 상대방 배려 없이 자기 좋은 대로만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 010-3565-2462, 070-4187-4747
☎ 055)364-4747 / FAX 055)364-4849
☎ 010-2840-820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범음범패 교육대학 9기생 모집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명예종정 명진 석법운

(종정실 사서실장 : 박선혜화) (종정실 경호실장 : 석법진)

원로회회장 석홍섭
원로부회장 석무공
원로부회장 석만월
승정원장 석원정
종회의장 석법일
기획원장 석법상
호계원장 석월오
감사원장 석동원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총무부장 석능현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도현
행사부장 석명오
의전부장 석근홍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호법부장 석윤오

감찰원
감찰원장 석다우
감찰부장 석지혜

문화원
문화원장 석지명
문화부장 석혜주

사정원
사정원장 석현종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운
포교부장 석혜통

교육원
교육원장 석무겸
부 원 장 석운오
부 원 장 석대명
부 원 장 석법오
1 국 장 석대덕
2 국 장 석해인

교구종무원
대구종무원장 석청명
김해종무원장 석청해
거제종무원장 석덕운
창원종무원장 석범일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비구니원
원로회장 석효각
원 장 석청명
부 원 장 석광명
석정은 석능현 석도현
석혜안 석혜문 석수진
석수해 석해인 석지현
석효선 석해연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대심행)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문화위원장 박무근
중앙교육위원장 능오 김원렬

범패, 육효, 학인모집
양력 11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강의함.
문의 전화 : 055)364-4747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유사 대원불교조계종이 "진주"에 있사오니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 이야기 말고 '내 눈 뜨기' 부터

한다. 그것을 사랑이라 표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집착' 이다. 상대에 대한 배려, 이해가 기초가 돼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서용근: 불자들과 영108 회원들에게 한 마디 한다면.

법륜 스님: 대한민국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불평과 좌절이 많다. 하지만 "빈민국이나 오지에가서 살래? 한국에서 살래?"하고 물으면 한국에서 살 거 아닌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살만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살만한 나라다. 난 거기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불교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많은 모순들을 볼 것이다. 그래도 다른 종교와 비교해보면 나은 면이 있다. 그래서 불교가 좋은 것이다. 자꾸 불교를 비판하다보면 좋은 점을 모른다. 자기가 놓여있는 현실에 대해 긍정해야 한다.

남편이 매일 술 마시고 들어와 힘들다고 하는 보살이 있다. 내가 그 보살에게 "술 마시는 남편 죽고 없으면 좋겠습니까?"하고 묻는다. 그러면 보살은 "죽으면 안되죠"라고 말한다. 그러면 나는 "그럼 남편이 가끔 술 마시고 뻗어서 뒤치다꺼리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중풍에 걸려서 매일 병간호를 하는 게 낫습니까?"하고 묻는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보살로 하여금 '우리 남편 술 마시는 거 괜찮네' 하는 것을 자각시키는 것이다.

'우리남편 문제야, 나쁜 놈이야' 이것은 상(想)이다. '그 사람은 술을 마신다' 라는 하나의 행위만 있을 뿐이지 그 행위가 좋고 나쁜 것도 아니다. 이게 비상(非想)이다. 공(空)이다. 이것을 자각하면 괴로움이 없어진다. 앉아서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만 번 설명해봤자 인생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생활 속에서 터득을 해야 한다.

만약 내가 아팠는데 어떤 약을 먹고 나았다. 지금 누가 그 병으로 인해 아프다. 그럴 때 우리는 "이거 한번 해봐라. 이거 한번 먹어봐라. 어디 수련 가봐라"고 권하게 된다. 자기가 그 문제를 풀었기 때문이다. 전법(傳法)이 금방 되는 것이다. 신뢰가 가기 때문에 상대에게 퍼지는 파급효과가 크다.

그래서 '내 눈 뜨기'를 먼저 해야 한다. 세상, 가족, 남편, 자식 이야기 하지 말고 그 속의 내가 먼저 눈을 떠야 한다. 그러면 바로 지금의 내 삶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 수행을 해야 한다. 그러나 수행자는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를 대면 안 된다. 남편이 어떻고 절이 어떻고, 스님이 어떻고



법륜 스님과 대담을 나눈 이미선과 서용근 영 108 회원(왼쪽부터)

비판만 하다보면 좋은 점 몰라
자기가 놓여있는 현실 긍정해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자기를 먼저 봐야 한다.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일곱 걸음을 걸은 뒤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 삼계개고 아당안지(三界皆苦 我當安之)"라고 외쳤다. 우리는 첫 구절만 알지 두 번째 구절은 잘 모른다. 두 번째 구절의 뜻은 "삼계(천상계 · 인간계 · 지옥계)가 모두 고통스러우니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라는 뜻이다. 이것을 대승불교가 정리한 것이 상구보리 하화중생이고 성불과 정토이다.

때문에 이 정토의 길 즉, 아름다운 세상, 보다 나은 세상 만들기는 불교가 해야 할 본질적인 과제이다. 하지만 지금은 불교의 본질적 문제에서 벗어났다. 불교가 2500년 동안 사회적인 지도력을 상실하고 천시 받으면서 결국에는 절름발이가 됐다. 이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물려받은 유산이다. 이건 '정통불교'가 아닌 '전통불교'이다. 우리는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정통이 아니다. 왜곡된 불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구절을 복원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수행을 해서 스스로가 우선 좋아야 한다. 스스로가 먼저 가피를 받고 난 뒤 '이 세상에 불법이 전파돼서 다른 사람들도 좋아져야 돼' 해야 한다. 이것이 전법이다. 그런데 불자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인연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 그들도 극락에 가야 한다. 나를 욕하는 사람들도 데리고 가야한다. 이것이 보살사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개선해야 한다.

우리사회가 민족적으로 볼 때 먼저 개선돼야할 것이 평화 정착과 통일 문제다. '나는 수행하기 때문에…' 라며 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수행은 하면서 하는 거다.

환경문제를 위해 활동하고 극빈층을 보호해야한다. 북한아이들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누구와 같이 할 수 있을까. 개신교인들과 같이 할 수 있다. 어른들과 같이 할 수 있다. '기성세대들은 자기 생활에 빠져서 안주한다' 라는 생각은 중생심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현실이 그렇더라도 젊은이들은 진흙에서 연꽃을 피우듯이 이걸 딛고 전체 이익을 위해 각성해야 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불교 신행활동도 하고 또 연애도 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고 그런다면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불교가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게 된다. 비불자들은 불교의 발전보다는 불교인이 우리사회의 민주화 변혁 통일 평화 등 사회 발전에 어떻게 기여 하는지를 중요시 여긴다.

법륜 스님과 함께 하는 즉문즉설

즉문1: 개신교가 불교에 대한 문화를 훼손하는 문제가 많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법륜 스님: 봉은사 땅밟기는 일종의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분명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니 이에 대해 대응을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얼마 전 문제 됐던 템플스테이 예산삭감도 마찬가지이다. 전통 사찰과 문화재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가가 국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불교의 원칙은 상대가 칼을 휘두른다고 나도 칼을 들고 막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고 쓰러지는 것이다. 국민의 권리를 주장해 이들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한 이익집단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비불자들에게는 공감을 얻지 못한다. 불교를 넘어선 전체 이익을 위해 힘쓴다면 이미지가 개선되고 불교가 사회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다.

즉문2: 세계적 불교 인구는 늘고 있는데 한국 청년 불자는 감소추세이다. 청년회를 이끌면서 법사 스님과 시스템은 한정돼 있어 많은 답답함을 느낀다.

법륜 스님: 기독교 문명이 만들어 놓은 현대문명의 폐해를 불교가 해결할 수 있다. 불교는 아쇼카시대, 당나라에 이어 제3의 부흥기를 맞이했다. 불교에 호시절이 왔다. 그러니 한국불교는 한국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불교의 장점은 많다. 지도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시작해야 한다. 불교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스님이 아니라 여러분이다. 수행을 바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 그것을 사회로 확대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불교와 한의학 1.법화경 약초유품(藥草喩品)

근기에 맞춰 병을 치료하라

불교경전 중에는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는 과정을 의사가 병자를 치료하는 것에 비유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 〈법화경〉 약초유품(藥草喩品)은 이러한 비유를 사용한 대표적인 경전이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의료과정은, 엄밀히 말하면 한의학이라기보다는 경전 성립 당시 인도나 네팔에서 행해지던 보편적인 의학의 모습을 채용한 것이다. 즉 모든 질병을 관절질환(rheumatic disease), 소화기질환(choleric disease), 내분비질환(phlegmatic disease), 상한체액에 의한 복합증(complication of the corrupted humours)의 네 종류로 분류한 데에서 당시 행해지던 보편적인 의학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이 네 종류의 질환을 경전에서는 각각 중생의 삼독심(욕심, 성냄, 어리석음)과 삼독심으로 인해 만들어진 62가지 삿된 견해(The sixty-two false theories)에 비유했다. 한문 해석은 각각 풍(風), 황(黃), 융(癰), 등분(等分)으로

모든 질병은 중생의 삼독심과
62가지 삿된 견해에서 비롯돼

되어 있는데, 등분(等分)은 앞의 세 가지 병을 고루 갖추고 있는 복합병으로 볼 수 있다.

한의학에서 풍병(風病)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풍(中風)을 포함해, 내적외적 요인에 의해서 개체의 기장(氣場; '오오라'와 비슷함)에 질서가 무너지는 병을 말한다. 즉 모든 개체는 나름대로 각자의 기(氣)가 펼쳐지는 마당을 형성하고 있는데, 체외 혹은 체내의 어떤 원인에 의하여 이 기(氣)가 펼쳐지는 마당이 손상을 입게 되면 그 개체의 기(氣)가 비정상적으로 새어나가게 된다.

이 때 기(氣)가 비정상적으로 지나치게 발생되므로 발열이나 떨림 증상이 나타나고, 동시에 기(氣)가 새어나간 조직은 뻣뻣해져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

황병(黃病)은 황달(黃疸)과 같은 것으로, 음식을 소화해 흡수하고 찌꺼기로 내보내는 육부(六腑; 위, 담, 소장, 대장, 방광, 삼초)의 기능이 멈춘 것을 말한다. 원인은 육부에 더러운 것이 오래도록 쌓였거나, 간이나 담에 문제가 생겨서 육부의 음식 소화 작용을 돕지 못하기 때문이다. 융병(癰病)은 소변 배설에 문제가 생긴 병으로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자주 보게 되는 것을 말한다.



〈법화경〉

경전에서는 의사가 산 중의 왕인 히말라야에서 네 가지 종류의 약초를 구하고, 그 약초를 여러 가지 조제법이나 치료법으로 투여함으로써 장님이었던 병자가 시력을 회복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의사가 선척적인 장님인 병자에 대해 전생의 악업 때문이라고 병의 원인을 파악하고서도, 다시 네 가지 종류로 질병을 분류했다. 그런 다음 최상의 약초를 얻기 위해 히말라야에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히말라야에서 네 가지 종류의 약초를 구한 후에도 병자가 약 기운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약을 조제하고 치법을 구사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는 부처님이 각 중생의 근기에 맞게 제도하시는 과정을, 의사가 모든 의료지식과 환자에 대한 판단을 갖추고 온갖 정성과 세밀한 기술을 다 발휘해 각각의 병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치료하는 의료행위에 비유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의료는 매우 당연하게 생각되나, 사실 현대의 서양의학은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잘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한의학은 비슷하게 보이는 질병에 대해서도 환자 개개인에 따라 그 병리를 다양하게 파악하며, 그에 따라 치료법도 다르게 함으로써 환자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치료한다.

따라서 서양의학 보다는 한의학이, 중생의 다양한 근기에 맞추어 다양한 제도법을 구사하는 부처님의 의왕(醫王)으로서의 모습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류정아(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술연구교수)

붓다 자비 봉사단 모집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봉사단에서는
살아 숨쉬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숨결따라 12인연과 사무량심을 실천하고자
30 여년 국내외에서 헌신과 봉사로 포교 일선에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저희 불제자들은 평등한 마음으로 인간 방생, 중생 구제라는 사명으로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들이 즐거워 하는 것을 보며
저희들도 흐뭇한 마음으로 보람을 느끼곤 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는 후진국 극빈자들을 위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마음과 행을 나눌 마음이 따뜻한 불자, 헌신과 봉사를 아는 불자들을 모집합니다. 모든 불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총재 : 목탁 혜은 봉사단장 : 보덕화 김천대
붓다 자비 봉사단
02)733-5665. 010-3618-6061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느티나무 이야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신약성서〉 마태복음 11장 28~30절



도시와 농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느티나무 그늘의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 시골 마을 어귀에 큼지막이 자리 잡은 느티나무 정자목, 도시의 공원, 아파트 내 소공원, 대학 캠퍼스에도 느티나무 그늘은 넉넉한 쉼터다. 성서의 구절을 느티나무가 읊조리는 것 같다. 느티나무 아래는 정자나 평상, 벤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 아래서 나누는 담소는 저절로 은은하고 여유로워진다. 갑론을박 하기를 좋아하는 노인들도 그 아래서는 신선이 된다. 느티나무 아래서 책을 읽는 여학생의 모습은 그대로 한 폭의 그림이다.

느티나무의 별명은 '나무의 황제'다. 은행나무와 함께 수명이 가장 길다. 몇 백 년은 보통이고 웬만하면 천 년을 훌쩍 넘긴다. 산림청의 지도 감독을 받아 각 지자체가 지정, 관리하고 있는 고목은 약 1300 그루다. 그 중 느티나무가 7100 그루로 가장 많다. '고목=느티나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목재 또한 제일로 친다. 나뭇결이 곱고 황갈색의 중후한 윤이 나며 썩거나 벌레 먹는 일이 적다. 건조시킬 때 비틀림이 적고 단단하여 충격과 마찰에 강하다. 천마총을 비롯한 임금의 시신을 모시는 관은 느티나무로 만들었다. 건축재로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해인사 대장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법보전, 고궁과 사찰의 기둥 역시 느티나무다. 탁자 뒤주 장롱 궤짝 등의 가구 재료도 느티나무를 최고로 친다. 음향이 좋아 악기를 만드는 재료로도 쓴다.

전주에서 남원으로 가다보면 '오수'라는 마을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여 년 전 신라시대 거령현(현재의 전북 임실군 지사면 영천리)에 김개인(金蓋仁)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개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어디를 가든 항상 데리고 다녔다. 개 역시 그를 충심으로 따랐다.

어느 따뜻한 가을 날, 그는 개를 데리고 이웃마을 친구 집에 나들이를 나갔다가 만취하여 귀가 길에 그만 지금의 원동산 부근 풀밭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그런데 난데없는 들불이 일어 김개인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었다. 주인의 생명이 위급함을 알아차린 개는 주인을 입으로 물고 밀면서 깨우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술에 곯아떨어진 주인은 주위의 화마(火魔)도 아랑곳없이 깨어날 줄 몰랐다.

뜨거운 불길이 점점 주인의 옆까지 번져오자 개는 주인을 깨울 수 없음을 깨닫고 가까운 냇물로 쏜살같이 달려가 온 몸에 흠뻑 물을 묻혀와 잔디를 적시기 시작했다. 수백 번을 이렇게 왔다갔다하여 잔디는 물에 젖고 싸늘함을 느낀 주인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기진맥진한 개는 주인의 옆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 주위를 둘러본 후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김개인은 몸을 바쳐 자신을 구해준 개를 부여안고 크게 애통해 했다.

비틀림 적고 단단해 목재중 으뜸으로 여겨

부석사 무량수전, 해인사 법보전 기둥 사용

주인은 개를 장사지낸 뒤 개의 무덤 앞에 자기가 지니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아두었다. 그 후 그 지팡이에서 싹이 트고 자라 큰 느티나무가 되었다. 이 때부터 마을 이름을 오수(獒樹 : 개나무 마을)라 부르게 되었다.

그 동안 세월에 씻긴 비석과 느티나무만 있던 것을 1975년에 의견비각과 개 동상 등을 세우는 등 주변 정화사업을 했다. 1982년부터 해마다 4월이면 경로행사, 효자효부, 표창 백일장 우수 견 초청묘기대회, 개 가면무도회, 의로운 개 시상식, 전국 개 달리기대회, 예쁜 개 못생긴 개 선발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 역사박물관과 개 동물원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전으로 내려오던 오수의 개 이야기를 백남혁 씨와 故 심병국 씨 부자(父子)의 노력으로 〈고려악부(高麗樂府)〉의 '견분곡(犬墳曲)'과 최 자의 〈보한집(補閑集)〉에 수록된 의견비(義犬碑)의 본고장이 이곳 오수라는 사실이 가람 이병기 박사의 고증을 받아 밝혀졌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됐다.

천마총 등 임금의 관으로도 사용되고

구전으로 전해지는 개이야기에 등장도

느티나무를 한자로는 괴목(槐木)이라 한다. 충북 괴산군(槐山郡) 일대에는 느티나무가 많다. 괴산군에는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가 90여주에 이른다. 괴산에는 맛있는 대학찰옥수수도 나고 그늘 아래 편히 쉴 수 있는 느티나무도 많으니 살기 좋은 고장임에 틀림없다.

사진은 경북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소재 느티나무(천연기념물 제274호). 이 나무의 나이는 약 600년, 높이 13m, 가슴 높이 둘레 8.7m, 나무의 중심에서 가지의 길이는 동쪽으로 11.5m, 서쪽으로 14.1m 남쪽으로 12.4m, 북쪽으로 11.5m이다. 영주 순흥면 태장리에서는 지금도 매년 음력 정월 보름에 마을 사람들이 나무 아래에 모여서 동제를 지낸다.



이우상 〈소설가 · 동국대 문창과 겸임교수〉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경영

무릎찜질,허리찜질,족욕,좌욕,반신욕,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핫 온열경영은 3~4년 전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핫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않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2012년형 신상품 특별 할인 판매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중소기업청 청업진흥원 '청의적 기업가상'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당뇨,신장질환,동맥경화,고혈압,심장병,부인병,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 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숱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엇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멸쟁법을 통해서 본 승가의 쟁사 해결 방법(2) 칠멸쟁법②

부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통을 강조했다

언쟁을 해결하는 다른 방법은 현전비니에 다수결에 의한 멸쟁법인 '다인어'를 병행하는 것이다.

現前毘尼(sammukhāvinaya) + 多人語(yebhuyyasikā)

다인어란 투표를 하여 다수결로 쟁사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 투표는 행주(行籌, salākagāha)라고 하는데, 주(籌, salākā)란 사람 수를 헤아리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나무나 대나무, 금속 등으로 만들며 크기나 색깔 등을 달리하여 구별한다.

빨리율에 의하면 단사 위원회에 의해서도 쟁사가 해결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승가가 투표 관리자인 행주인(行籌人, salākagāhāpaka)을 선발해 다수결에 의해 쟁사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다수결의 방법과는 다르며, 투표 결과에 따라 무조건 다수의 의견을 채택한다고 하는 방법은 아니다. 즉 다수결은 다수결이나, 반드시 여법설자에 의한 다수결로 쟁사를 해결해야 한다. 여법설자와 비법설자의 구별은 행주인으로 선발된 비구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행주인은 자신이 여법설자로 판단한 비구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도록 투표의 결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행주의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①비밀행주(gāhaka-salākagāha) : 행주비구가 유색 · 무색의 주를 만들어 비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각 주가 어떤 주장을 하는 비구의 주인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비구가 주를 집으면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라고 당부한다.

만약 행주의 결과, 비법설자의 것이 많다고 판단되면 그 결과는 무효로 돌리고, 여법설자의 것이 많다고 판단되면 결과를 승가에 고한다. 이 비밀행주는 〈사분율〉에서는 부장행사라(覆藏行舍羅)라고 하며, 예를 들어 여법의 비구가 많지만, 화상이나 아사리가 여법하지 못한 자일 때에 화상이나 아사리가 주를 집는 것을 보고 일반 비구도 그것을 따라할 수 있으므로, 누가 어떤 주를 집었는가를 모르게 하기 위한 투표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②절어(竊語)행주(sakaṇṇajappaka-salākagāha) : 행주비구가 비구 한 사람 한 사람의 귓가에 대고 각 주가 어떤 주장을 하는 비구의 주인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비구가 주를 집으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그 후에는 ①비밀행주와 마찬가지로, 비법설자의 것이 많으면 그 결과는 무효가 되며, 여법설자의 것이 많으면 결과를 승가에 고한다.

이 비밀행주는 〈사분율〉에서는 이어행사라(耳語行舍羅)라고 하며, 위의 비밀행주, 즉 부장행사라와 유사하다. 비구들 사이에 들어가 귓속말로 화상이나 아사리가 선택한 주를 알려주며 그것을 집도록 권유하는 것이다. 물론 이때 권유하는 주는 행주인이 여법설자라고 판단한 쪽의 주장이다.

③ 공개행주(vivaṭaka-salākagāha) : 이것은 여법설자가 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로 자신 있게 공개적으로 행주한다.

이와 같이 다수결이라고는 해도 쟁사는 반드시 여법설자의 의견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며, 만약 투표 결과 비법설자가 많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채용하지 않고 파기한 후 다시 행주해야 한다. 이것은 한역 제 율의 입장도 동일하다. 〈사분율〉에서는 행주가 끝나면 행주인이 주를 다른 곳에서 헤아린 후, 여법설자의 표가 많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갖추고 즉시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한다. 〈오분율〉에서는 행주 결과 비법설자의 표가 많을 경우에는 사람들을 몰래 불러 여법의 주를 취하도록 권유한 후에 다시 행주해야 한다고 한다. 〈마하승기율〉의 기술은 좀 더 과격하다. 즉 행주의 결과, 비법설자가 많으면 해산시켜야 하는데, 만약 비법설자들이 그것을 눈치 채고 해산하지 않으려고 하면 정사 근처의 빈집에 불을 놓아 모두 흩어지게 한 후에, 그 틈을 타서 다시 근처에 사는 여법설자들을 불러 모아 행주를 해야 한다고 한다. 즉 다수의 여법설자에 의해 해결된 쟁사의 결과만을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일견 공정하지 못하게 느껴지는 이 규정으로부터, 승가의 쟁사 해결의 기준은 오로지 붓다가 남긴 법과 율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비법비율의 설은 아무리 다수의 설이라도 채용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붓다가 남긴 법과 율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율에 따라 이뤄진 판정만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이 다인어라는 멸쟁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과 율에 근거해 여법과 비법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총명 유능한 비구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언쟁이라도 쟁사가 사소하거나, 비법설자가 많다고 알고 있거나 추측될 때, 승가가 분열할 것을 알고 있거나 추측될 때, 혹은 비법이나 불화합(不和合)으로 투표할 때 등의 10가지 경우에는 다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멱쟁(anuvādādhikaraṇa)

비구들이 어떤 비구의 행동을 잘못된 것으로 비난했으나, 그 비난 받은 비구는 자신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반론해 발생하게 되는 쟁사가 멱쟁이다. 이것은 다시 사실무근으로 비방 당하는 경우와 실제로 잘못을 저질러 비난받는 경우로 나뉜다. 사실무근으로



조계종 중앙종회 투표현장. 종회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경우 거수 혹은 무기명 투표를 한다.

비방 당하는 경우에는 '현전비니+억념비니'를 사용하며, 실제로 잘못을 저질러 비난받고 있을 경우에는 '현전비니+불치비니'나 '현전비니+멱죄상'을 사용한다. 특히 현전비니+불치비니는 광란 상태로 율을 어긴 경우에, 현전비니+멱죄상은 평상심으로 율을 어긴 경우에 각각 적용된다.

(1)현전비니+억념비니(憶念毘尼, sativinaya)

억념비니란, 어떤 비구가 근거 없이 비방 당한 경우에, 그의 기억을 바른 것으로 채용하여 쟁사를 멸하는 방법이다. 억념비니는 다음의 다섯 가지 순서를 밟아 이뤄져야 한다.

①청정 무죄의 비구가 있는데

②누군가가 그를 근거도 없이 죄를 지었다고 비방한다.

③비방 당한 그 비구는 기억이 분명한 상태에서 승가에 억념비니를 청하며,

④승가는 그에게 백사갈마에 의해 억념비니를 해 준다.

⑤이리하여 여법화합이 실현된다.

이와 같이 억념비니란, 비구가 자신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음을 분명히 기억해 승가에 알리고, 승가는 이 비구의 기억을 근거로 그의 무죄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쟁사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 멸쟁법도 사법현전(四法現前)으로 이뤄지는데, 이 중에서 인현전(人現前)이란 비방하는 자와 비방 당하는 자가 모두 참석하는 것을 말한다.

(2)현전비니+불치비니(不癡毘尼, amū!ha-vinaya)

멱쟁을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현전비니+불치비니이다. 불치비니란 비구가 선정에 전념해 일시적으로 정신착란 상태에서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 잘못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불치의 '치(癡)'는 발광한 때의 상태를 가리키며, '불치(不癡)'란 지금은 발광 상태로부터 회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온 것, 다시 말하자면 이전에는 정신착란 상태였음을 승가가 승인하고 죄를 묻지 않는 것이 불치비니이다. 이 비니도 억념비니와 마찬가지로 거죄 당한 비구가 정신이 돌아와 승가에 불치비니를 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이뤄진다. 그의 요청을 받은 승가는 백사갈마에 의해 그에게 불치비니를 해 주고, 이 비니가 성립되면 그가 광란 상태에서 저지른 잘못은 묻지 말아야 한다.

한편, 비법의 세 가지 불치비니가 있으니 다음과 같다.

① 어떤 비구가 죄를 지어 승가나 무리, 개인이 비난하면서 그에게 죄를 기억하느냐고 묻는다. 그는 자신이 죄를 진 것을 기억하면서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고, 승가가 그를 위해 불치비니를 하는 경우.

② ①과 마찬가지로 질문 받았을 때,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기억하면서도 꿈속에서 저지른 것 같다고 대답하고, 승가가 그를 위하여 불치비니를 하는 경우.

③ ①과 마찬가지로 질문 받았을 때, 제 정신이면서 미친척하며 중얼거릴 때, 승가가 그를 위하여 불치비니를 하는 경우.

즉 불치비니가 제대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광란 상태에서 저질러 정신이 돌아왔을 때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해야 하며, 발광하지 않은 비구가 발광한 척하며 계율을 어겼을 경우에 승가가 그에게 해주는 불치비니는 비법이다. **(계속)**



이자랑 동국대 HK연구교수(일본 동경대 박사)

마성 스님의 부처님이 말씀한 평화(3)

한국불교, 평화 논할 수 있는가

간혹 살다보면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일이 전개되는 경우가 있다. 처음에 필자는 조계종 화쟁위에서 발표한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21세기 아쇼카 선언'(초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몇 편의 글을 기고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종교와 평화'라는 큰 주제 아래 '부처님이 말씀한 평화'로 기획되었다. 이번 기회에 불교의 평화사상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평화(平和)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서 평화란 ①평온하고 화목함. 화합하고 안온함. ②전쟁이 없이 세상이 평온함이다. '평화'라는 단어는 불교술어인 빨리어 '산띠(santi, Sk. santi)'와 '닙바나(nibbana, Sk. nirvana)'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산띠'는 '적정(寂靜)', '적지(寂止)', '적멸(寂滅)'로 번역되고, '닙바나'는 '열반(涅槃)'으로 번역된다.

평화의 반대말은 '폭력'이다.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폭력 및 테러의 배후에는 종교적 신념이 깔려 있다. 가장 평화로워야 할 종교가 폭력의 주범이 되고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서양의 역사는 한마디로 정치와 종교의 관계, 즉 '정교관계사(政教關係史)'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서양에서는 정치와 종교 간의 갈등과 긴장 및 유착의 관계 속에서 전개돼 왔다. 근대 서구 사회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이 등장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오늘날에는 정교분리의 원칙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마성, '정치참여에 대한 출가자의 태도', 〈불교평론〉 제35호(2008), p.28] 그만큼 정치와 종교 간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종교는 평화를 추구한다. 9 · 11 테러 이후 이슬람이 세계 평화를 헤치는 주범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결코 이슬람은 폭력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슬람이란 말 자체가 평화를 의미하고 이슬람과 테러리즘을 연결하는 지하드(Jihad)의 개념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와의 영적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성전(聖戰)의 개념이 아닌 것임을 이슬람을 본질적으로 성찰하면 잘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본질적으로 성찰하면 그 속살은 상당히 다르다." [박성원, '개신교와 세계평화', 〈世界平和를 위한 5대종교간의 대화〉(아시아태평양공동체, 2011), pp.9~10]

반면 불교는 평화의 종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전법을 위해 다른 종교를 박해하거나 먼저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가장 평화롭고 자비로운 종교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불교가 먼저 평화를 파괴한 역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굳이 불교가 타종교와 평화를 실현하자고 제안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이처럼 불교 본래의 정신은 자비를 바탕으로 한 평화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현대의 한국불교는 평화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지난 11월 4일 중앙종회 회의장인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로비에서 같은 중앙종회의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지금까지 조계종단의 폭력사건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83년 신흥사 살인사건을 비롯하여, 85년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봉은사 사건, 94년과 98년 종권장악을 위한 폭력사건 등은 해외토픽으로 보도됐다. 이처럼 폭력으로 얼룩진 조계종단사의 뿌리는 54년 5월 이승만대통령의 불교정화에 관한 유시로 촉발된 비구-대처간의 분쟁에서 비롯됐다. 이 분쟁을 시작으로 한국불교는 폭력의 종교로 전락해 버렸다.

조계종 화쟁위가 다른 종교와 평화를 실현하자고 제안할 것이 아니라 불교계 내부의 폭력부터 단절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비구와 비구니의 갈등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화쟁위가 다른 종교와 화해를 시도할 것이 아니라, 불교 내부의 얽히고설킨 갈등부터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마성 스님(팔리문헌연구소장)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행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자비는 우는 이와 함께 우는 것 아닌 웃게 해주는 것

통도사 문수원 수안 스님



수안 스님은 … 개구쟁이 스님이다. 1940년 경남 통영에서 출생해 1957년 통도사에서 입산 출가했다. 송광사, 백련사, 묘관음사 등에서 참선 정진을 했다. 1979년 부산 여성회관에서 '이리 수재민돕기 선물전'을 시작으로 선묵화의 세계를 대중에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스님의 그림은 대중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며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프랑스에서 수차례의 초대전을 갖기도 했다. 스님은 그림 외에도 시집 〈산이 텅 빈 날〉〈오 소라〉 등과 에세이집 〈참 좋다, 정말 좋구나〉 등을 출간했다.

영축산은 한국의 알프스로 불릴만한 명산이다. 큰 산은 이름만큼이나 커다란 도량을 품고 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그곳이다. 총림이라는 외형적 규모 외에도 불지종가(佛之宗家)라 불릴만큼 대중의 마음씀씀이도 큰 대찰이다.

통도사 큰법당은 동서남북 방향따라 이름도 다르다. 동쪽에는 대웅전 현판이, 서쪽에는 대방광전이 걸려있다. 남쪽에서 보면 금강계단이요, 북쪽에서 보면 적멸보궁이 보인다. 중생의 근기에 맞춰 대기설법 하듯 모양을 바꿔 불법이 화현(化現)한 도량이 통도사이다. 이곳에 사는 사람도 터를 닮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통도사에는 다재다능한 선지식들도 많다.

선화로 유명한 수안 스님(통도사 축서암)도 그 중에 한 분이다. 스님은 특히 해맑은 동자를 화폭에 담아 보는 이로 하여금 따스함과 편안함을 준다.

나그네가 수안 스님을 만난 것은 가을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여름내 퍼붓던 비에 전국이 한바탕 몸살을 앓고 난 뒤였다.

"스님, 비 피해는 없으셨습니까?"

정성스레 올린 삼배 뒤에 나온 상투적인 안부인사였다.

"영축산은 명산이라, 산에 이름이 없어 명산이라 했겠나. 천재지변에 크게 동요가 없으니 명산이라 하는 게지."

뻔한 질문에 대한 수안 스님의 답이었다. 사람도 큰사람이라면 작은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여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우회적인 가르침이었다.

이어서 스님이 말했다.

"독일 쾰른에 갔을 때였어. 전시회 관계로 한 대학교수 집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몇일이 지났을까 그곳 신문에 내 기사가 났지. 나는 인터뷰를 해준 적도 없는데 말야."

수안 스님의 말씀인즉 이랬다. 대학교수 집에 머무는 동안 현지인들을 자주 만났는데 그 일행 가운데 기자가 있었다는 것. 그 기자는 스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며 자신이 느낀 것을 글로써 단정하게 풀어냈더라는 말이다.

"그래서 말인데, 오늘 처음 만난 자네가 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나에 대한 글을 쓰는가?"

수안 스님의 말씀에 나그네는 뒷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듯 했다. 바쁘게 산다는 핑계로 다른 이에 대한 글을 참 쉽게도 써오던 터였으니.

나그네는 스님을 뵙는 동안에도 그 말씀을 잊을 수 없었다. 스님과 말씀을 나누던 중 공양시간이 됐다. 수안 스님이 오래전부터 당골이었다는 청요리집을 찾아 스님과 함께 자장면을 먹었다.

"스님, 오늘 말씀해주신 것들이 다음 주에 당장 신문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조만간 정리해서 나오면 스님께 여러 부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당장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럼 천만년은 걸리겠네?"

수안 스님을 뵙고 난 후에도 나그네는 계속 수안 스님을 잊지 못했다. 때론 꿈속에서도 스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나그네가 축서암을 나선지 100일이 지났다.

수안 스님은 선사였다.

스님은 "선은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생사가 없는 장소에 들기 위한 탈피가 아닌, 생사의 안에 있되 메이지 않는 것이 선이라고 했다.

수안 스님이 물었다.

"그대가 선을 아는가?"

스님은 선은 앉고 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했다.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스님은 "머무는 바 없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안 스님은 "노래 · 춤만 돈 되는 세상이 아니다. 선을 갖고도 경제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인들은 선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 어렵다고만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스님은 "오며 가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바로 아는 것이 화두"라며 "선이 대중화되려면 밥벌이가 되던지, 이에 상응한 동기부여가 돼야한다"라고 말했다.

100일 동안 되뇌여 본 수안 스님
선사 · 보살 · 예술가 모습 선해

어려운 곳마다 미소 가득한 붓길 등
무엇이든 아낌없이 내어주는 천진불

수안 스님은 재미있는 것을 더욱 재미있게 하며 사는 것이 선적인 삶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한국이 한국전쟁을 겪는 와중에 거르지 않고 외래문물을 받아들였다. 문화적인 거품이 일며 우리의 뿌리도 혼돈하는 시대이다"라고 말했다. "유신이라는 이름으로 초가집이 아파트가 되고, 정겨운 흙길이 콘크리트 신작로가 됐다던지 하며 과거의 꿈과 그리움이 현실에서 사라졌다"고도 말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 삭막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다.

수안 스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붕 떠 있다. 불안 초조에 고통 받고 있다"며 "선을 하게 되면 불안 초조부터 사라진다. 화도 누그러들고 사회도 안정된다"고 말했다.

수안 스님은 "선은 단조롭지 않다"고 역설했다. "형상 색깔 등이 없는 것으로 반드시 선지식의 점검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스님은 "각자의 마음은 거울이다. 반조한다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고통을 여읠 수 있을텐데, 밖으로 구하고 다른 일만 하고 있으니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수안 스님은 "부처님은 밤에는 숲에서 명상을 하고, 낮에는 시중에 나가 마음 닦는 법을 설파해왔다"며 "재가자들도 자기 수행을 겸한다면 밖에서 하는 일들도 저절로 잘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수안 스님은 보살이었다.

노인요양기관인 통도사 자비원은 지금도 수안 스님이 후원을 아끼지 않는 곳이다. 이곳이 처음 설립될 무렵, 수안 스님은 기금마련을 위해 메주를 쒀 팔았다. 스님이 무슨 장사냐며 비난도 만만치 않았다. 동기가 떳떳했으니 스님은 굴하지 않았다. 메주, 간장, 된장 등을 팔아서 생긴 수익금으로 자비원을 도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스님은 장사를 접었다.

"종교인은 뭐든 임시방편이어야지 본질도 잊은 채 오래하면 되겠어?"

지금도 스님은 영월 법흥사 등에서 불사가 있을 때면 나서서 돕는다. 된장 대신 붓을 들고.

뿐만 아니다. 스님은 뇌성마비 장애인들을 도울 때면 장삼을 걷어 부치고 빨래 · 청소 등 궂은 일도 마다 않아왔다. "스님은 점잖만 빼서는 안된다." 수안 스님의 말씀이다.

"부처님은 탁발 때 반드시 일곱집만 다녔어. 무엇을 주든 발우에 담아야 했고, 먹어야 했지. 나는 노동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 모두가 성스럽고 귀한 일들 아닌가?"

수안 스님은 "개인의 생각이 깨어 있으면 사회도 깨게 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지혜는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혜는 등불과 같아서 한 명의 현자가 있다면 그의 지혜로 인해 천길 낭떠러지를 옆에 두고 불안과 공포에 떨며 걷는 이들을 보살필 수 있다는 말이다.

스님은 〈장자〉의 곤(鯤)과 붕(鵬)을 예로 들었다. 곤은 북쪽 바다에 사는 상상의 물고기이다. 이 곤이 번데기를 거쳐 새가 되는데 이 새가 바로 붕이다. 붕의 등 넓이는 수천 리에 이르며 온몸의 힘을 다해 날면 그 활짝 편 날개는 하늘 한 쪽에 드리운 구름과 같다 했다.

수안 스님은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도 올바른 교육을 통해 바른 뜻을 세우게 한다면 누구나 큰사람,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안 스님은 예술가였다.

스님의 그림은 원과 삼각형 사각형이 기본이다. 원은 하늘[불]을 삼각형은 사람[법]을, 사각형은 땅[승]을 의미한다. 쪽빛과 먹색을 주로 사용해서 그린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스님의 그림을 보고 평가한 이들의 말이다.

스님은 "쪽빛과 먹색을 주로 사용하는 것은 그냥 쉽게 접하고 아름다워서 사용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림은 그냥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서 그릴 뿐"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수안 스님은 한국 선화에 색감을 입힌 최초의 인물이다.

수안 스님은 "그림 6000만장을 그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유인즉슨 우리민족이 6000만명이기 때문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스님의 그림을 전해줘 모두의 지혜가 열리게 하겠다는 발원에서이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9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1년 11월 중

◆ 개강일시 : 2011년 11월 개강. **매주(월, 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창사 18주년 기념

부처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성지순례

미얀마

(대한항공 직항) 1월 15일 출발, 1월 19일 출발. 양곤 | 바간 | 헤호 6일 199만원 추가경비 없음

◇ 미얀마 성지순례 출발확정 : 1월 26일, 2월 7일, 2월 24일

◇ 미얀마 완전정복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1,840,000원

특급호텔 : 양곤-세도나, 바간-뜨레져, 만달레이-세도나, 헤호-뜨레져

전일정 : 특급호텔 및 아름다운 리조트, 가이드+기사팁 포함, 마차투어, 유류세(260,000원)불포함

미얀마 성지순례 3월 출발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 1,650,000원 (유류세 별도)

◇ 골프투어 5일 (요금문의)

인 도

◇ 완벽 8대성지 아그라 타지마할 9일 2,540,000원

◇ 완벽 8대성지 아그라 타지마할 10일 2,590,000원

전일정 : 5성급호텔, 일급호텔, 한식요리사, 고급버스, 가이드+기사팁 포함 등등, 추가경비 없음.

스리랑카 특급일정

전통불교성지순례 6일 담블라 | 시기리야 | 아누라다푸라 | 캔디 | 풀룬나루와 | 콜롬보

■ 『떳다! 특가』 라오스 문화탐방 성지 순례 1,399,000원 부터
■ 베트남 "하롱베이" 캄보디아 "씨엘립 앙코르왓" 1,049,000부터
■ 하와이 5~6일 (요금문의)
■ 장사 | 장가계 | 원가계 | 천문산 5~6일 (요금문의)

미얀마 종교성 관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 02)365-7747

선은 단조롭지 않다



수안 스님은 에세이집 〈참 좋다, 정말 좋구나〉의 서문에 이렇게 적었다.

너무 어려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현실을 이겨가는 이들에게 이 글과 그림을 바친다. 이것은 내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이자 그림이기 때문이다.

스님의 손을 잡아보고 싶다며 손바닥 안에 물감 살 돈을 쥐어 준 할머니, 아버지가 사준 꽃신 한 켤레만으로 평생을 만족해하며 살아온 지체부자유자 아가씨, 새해 아침에 내의와 양말을 사다 준 걸인들, 기도하는 내 어깨에 앉아 승복 속의 솜을 빼내 가던 새 한 마리, 바닷속의 물고기, 돌보는 이 없어도 봄이 오면 절 마당에 돋아나는 쑥 한뿌리, 또 멀리는 거친 한파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태백산맥과 가까이는 축서암을 둘러싸고 있는 영축산 줄기의 노송에 이르기까지….

스님의 그림은 천진하다. 스님의 그림이 천진한 것도 삶이 고된 이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자비이다. 불사, 복지 등을 위한 일이면 마다않고 붓을 드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스님은 "누구나 슬픈 일에 함께 울어줄 수는 있다. 진정한 자비는 우는 사람을 웃게 만들어 주는 것. 그 마음을 내는 것이 자비이다"라고 말했다.

한국 선화에 색감 입힌 선시화가
어려운 우리네 삶 화폭에 담아내

스님의 그림은 원 · 삼각 · 사각형
더불어 사는 삶을 알리려 그릴 뿐



스님이 가장 아끼는 자작시, '사모곡'

나
훨훨 벗어 버리고
고향으로 가리라.
고희가 넘으신 어머니 눈에는
철없는 개구쟁이로
나
돌아가리라.
빈 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지만
세상 다 돌아봐도 쉴 곳이 없으니
작은 가슴 할딱거리며
나
어머니 품으로 가리라

바람에 날리운 어머니 하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빗질해 드리고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는 개구쟁이 효자로
나
돌아가리라.

봄이면 개울 속에 지천으로 피어 떨어지는
살구꽃 발그레 닮은 아이들 뛰는 모습 바라보며
넘치지 않는 작은 소망을 뒷 남새밭에 심으려
나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나의 길은 무엇인가



동국대 선학과 교수

시간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에게 시간에 매이지 않고 일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신천지를 개척한 기분이 든다. 지난 주말에 괴산에 있는 고찰 각연사를 찾았다. 주지 법공 스님의 가람수호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고 느낀바 많았다. 비로전 앞에 있는 보리수 열매로 만든 단주를 내놓기에 하나만 갖겠다고 했다.

이제 무성했던 잎과 열매가 다 지고 난 보리수는 바지랑대 마냥 허공을 받치고 있다. 어찌 허공을 받치고만 있으랴. 중생의 헤아리기 어려운 번뇌가 주저리주저리 달려 있는 것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황벽희운 선사의 제자 목주 (睦州; ?~850) 선사가 있다. 성은 진(陳)씨이다. 목주의 용흥사에서 종적을 감추고 항상 짚신을 삼아 몰래 저자거리에 나가 팔았으나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진포혜(陳蒲鞋)라고 별호를 붙였다. 그때 학인들이 찾아와 물으면 거침없이 대답하니 누구 하나 선사의 말을 당해 낼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사방에서 귀의하여 받들게 되어 호를 진존숙(陳尊宿)이라 하였다.

존숙이란 뛰어난 사람이나 연장자를 일컫는 말이다. 존은 경어이고, 숙은 장로로서 수행의 경력이 길어서 역량도 뛰어난 노승을 이르는 말이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목주선사에게 물었다.

"무엇이 선사의 길입니까?"

선사가 대답했다.

"나의 길은 간단하다. 배고플 때 먹고 졸릴 때 잔다. 이것이 나의 길이다."

선사에게 물은 사람은 당황했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도 밥을 먹고 잠을 잡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밥 먹고 잠자는데 어떤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선사가 말했다.

"그대는 밥을 먹을 때 먹는 일만 하지 않는다. 다른 많은 일들을 한다. 잠을 잘 때 역시 마찬가지이다.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일들을 한다. 하지만 나는 먹을 때 먹기만 하고 잘 때 자기만 한다. 하나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한다."

목주 선사가 주장하는 것은 아무 상념 없이 행동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어떤 행위도 선수행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먹을 때도 생각하지 말고 먹고, 걸을 때에도 생각하지 말고, 목욕할 때에도 그냥 목욕만 하라는 것이다. 말이 떠오르면 생각이 찾아오지만 말을 떠올리지 않으면 관조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한 번은 다른 사람이 선사에게 물었다.

"수행의 방편 하나를 일러 주십시오."

선사가 말했다.

"내가 방편을 일러준다 해도 그대는 수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 마음이 시끄러운데 어떻게 수행을 한단 말인가?"

선사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지켜보는 것이 낫다. 방편을 구하지 말라. 나를 지켜보기만 하여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선사에게 방편을 구한 사람이 7일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는 더욱 알 수 없게 되었다.

7일이 지나자 그가 말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보다 더욱 모르겠습니다. 7일 동안 쉬지 않고 지켜보았는데 무엇을 지켜보라는 말씀입니까?"

선사가 말했다.

"그대는 지켜보지 않았다. 내가 걷는 모습을 보았는가? 나는 걸을 때 걷기만 한다. 아침에 내게 차를 가져왔을 때를 지켜보았는가? 나는

목주 선사는 상념 없는 행동 강조
무엇을 하든 오로지 그것만 해야
생각하지 않는 이에겐 무념이 곧 삶
선의 길에는 의도 없는 행위만 있어

차를 마실 때 차만 마신다. 거기에 나는 없다. '마심' 만이 존재한다. 이를 잘 지켜보았는가? 그대가 정녕 지켜보았다면 내가 거기 없음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각연사 보리수에서 나온 단주를 돌리며 귀경길에 올랐다. 염주를 돌리며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 염주 돌리는 일도 훌륭한 수행이 될 수 있다. 마치 생각을 하지 않는 이에게는 삶 전체가 될 터이니.

우리는 환경에 매여 노예가 되고, 시간에 쫓겨 노예가 되며, 대상에 홀려 나를 잃기가 십상이다. 역경에 놓이면 그저 그 처지를 지켜보기만 하고, 대상에 부딪치면 대상만을 지켜보아야 한다. 여기서 묘안을 짜 내려고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져들기 마련이다.

갯벌 체험을 하기 위해 갯벌 속에 들어가 한 발 한 발 건네기가 만만치 않다. 이내 지치기 일 수다. 앞으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덥석 앉아버리면 그만이다. 왜 앉을 생각을 못할까. 갯벌 속에 들어간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선사의 길은 단순하다. 순수한 행위만이 있을 뿐이다. 그 행위는 의도하는 바가 없다. 의도하는 바가 없으니 자유로울 밖에 없다.

그대는 아는가. 이 자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칠성기도, 허공기도, 천신기도 세트
바람막이가 씌어 있는 상태
바람막이가 없는 상태
구성 : 스텐레스 받침 1개 / 크리스탈 받침 7개
P.C 컵밀납초 7개 / P.C 바람막이 7개(여분증정)

•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제조-삼환양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스님 및 여러 불자님들이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전사지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기반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의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최동순의 한국구술인물사

불교계 북한통, 통일운동 나서

최 연
불교사회연구원 원장

"지선 스님 그 당시에 아주 뭐 가장 지선 스님 그 뭐냐 인터뷰도 하고 전부 이런 내용들의 뭐 하고 그 다음에 인제 저쪽 몇 권 다른 호수도 뒤쪽으로 보십시오. 좀 더 있습니다. 하고 또 요렇게 인제 요렇게 인제 뭐냐 10·27법난 규명하라고 하는 집회하는 거 요런 것도 직접 취재해서 다하고 어요게 인제 대승불교운동 박성배 교수님 어 대담도 하고…."

민주화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취재하여 잡지에 수록하였다. 최연은 편집장이었으며 대표는 유봉(여연 스님)이며 발행인을 겸했다. 10호까지 발행했다. 창간호의 보존을 위해 최연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기증했다. 이는 자료 저장(아카이브)이 되어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다. 창간호 표지 그림은 스님들이 운집한 모습이다. 승가가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결하려는 것을 의미 있게 표현한 점이다. 이 그림은 해인사 승려대회 개최, 정토구현전국승가회의 활동, 승가단체가 새롭게 탄생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승가단체의 활동을 함축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통일운동으로 전향된 경우가 있었다. 최연 또한 적극적으로 통일운동에 앞장섰다. 그는 중앙신도회 사무총장을 지내면서 북한의 조불련(조선불교도연맹)과 남북교류사업을 진행한다.

"스님 중심의 어떤 어떤 전국적인 틀의 어떤 운동단체들이 나온 게 전불련(전국불교운동연합)이고 그 다음에 통불협(조국통일불교협회)이고 그 다음에 평불협(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의 법타 스님 다 그러니까 스님 개인의 원력이 아주 큰 거예요. 크고 그게 그리고 1987년 이전같이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통일운동에는 그렇게 가지를 않았어요. 대부분 다시 노동운동으로 돌아갔지. 그래 통일운동역량은 그렇게 많은 재가 역량이 다 투여된 거는 아니예요. 그래 그래서 스님들이 어떤 주도적으로 하고 몇몇의 어떤 사람들이 그 뒤에 인제 보족적인 역할을 하고 주된 주력군들은 다시 노동운동으로…."

통일운동은 민주화운동과 달리 승가 위주로 진행됐음을 볼 수 있다. 전불련은 지선 스님이 주도했으며, 평불협은 법타 스님이 주도했다. 불교운동의 새로운 모색으로서 승려 아닌 일반인들은 보족의 역할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민불련은 승가와 속인이 함께 주도했다면 통일운동은 승가의 주도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좋은 벗들 법륜 스님하고 같이 첨에 인제 만들었죠. 박광서 교수 모시고 해 가지고 그 그게 인제 좋은 벗들의 전신이 본래


서울 안국동 사거리에 자리한 전법회관

인제 사회적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민족 서로 돕기 그게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본부로 이렇게 인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 박광서 교수 저고 다음 법륜 스님해서 법륜 스님 원력으로 쭈욱하다가 박광서 교수는 떨어져 나가고 재가연대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지금까지 '좋은 벗들'로 이름을 바꿔서 그것이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1992년도 1993년도 되면 이제 종단에 인제 종단에 사태가 일나죠 그죠? 종단민주화라 그러지요."

"중앙신도회가 생기면서 제가 그 사무총장을 들어갔어요 전국신도회. 사무총장 들어가면서 전국신도회하고 통합을 했지요 통합을 해서 인제 하나의 어떤 줄기로 있잖아 딱 만들고 그 뒤로 계속 저 뭐냐 남북교류사업 교류사업을 인제 중앙신도회에서 하고 그래서 그 고런 점에 있어서 보수적인 어떤 불교단체가 남북교류사업을 하는 어떤 첫 사례를 인제 남긴 거지요. 고 뒤로 이제 요새 많이 나오는 문화재반환사업 이것도 중앙신도회에서 제안을 해서 의궤 반납 계속 하고 있지요."

1994년 종단민주화과정에서 최연은 사무총장으로 임명됐고 신도 단체로서 북한의 조불련과 활발한 교류운동을 펼쳤다. 특히 법륜 스님이 설립한 국제구호단체 JTS와 같이 비정부기구인 NGO와 같은 봉사단체들의 설립에 도움을 주었다. 최연은 또 불교환경연대의 출범에 기여를 했다. 그는 환경운동에 적극성을 보였으며 에코붓다의 출범 역시 최연의 협력이 있었다. 원효의 화쟁사상을 현실에 적용하려는 내면적 동력을 중심으로 최연은 인문학 기행을 통해 문화콘텐츠에 다가서는 사회운동을 추진한다.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박수경 소장의 자연주의 교육

아이는 초능력자로 태어난다

자식이 멋지게 자라서 사회에서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이면 누구나 가지는 희망사항 일 것이다. 특히 한국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기대는 세계 어느 부모와 비교하여도 우선순위에 있다.

이러한 부모들의 바람을 채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매우 다양하다. 영재교육의 열풍 속에서 아이들 성장 단계에 맞는 특별 후속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특별 유치원에서 시작하여 특별중, 특목고,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분류되고 세분화된 특별 프로그램들.

얼마 전 우연히 접하게 된 유아 학습지를 보고 놀람과 동시에 걱정스런 마음이 들었다. 감각기에 있는 유아에게 지필 학습지를 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법칙이 무너진 것은 벌써 오래전의 일이다.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든다. 3~4세 아이에게 초등 단계의 학습지를 하게하다니!

나는 평소에도 엄마들을 만나면 "당신의 자녀는 초능력자예요"라고 말해준다. 대부분의 엄마들이 내 말에 수긍을 하지 않는다. "우리 아기가 초능력자라구요?" 전혀 믿지 않는 태도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 생존을 위한 기본 감각을 갖고 태어난다. 뛰어난 미각과 멀리 있는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청각, 사물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촉각, 그리고 후각, 시각. 이 모든 감각에 아이들은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아이들과 감각놀이 하는 것을 즐긴다. 아이와 거리가 있는 공간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이를 불러본다. 그러면 아이는 금방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반응한다.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 내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아이들은 '엄마! OO집에 다녀왔지? '엄마에게서 OO네 집 냄새가 나'라고 한다. 다른 감각에 대한 자극도 생활 속에서 놀이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좋은 재료로 좋은 감각을 다양하게 자극해 주는 놀이를 많이 하였다. 다양한 과일의 향을 느끼게 하고 야채, 나무, 꽃들의 다양한 면을 여러 감각들을 동원하여 느끼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도록 애를 썼다. 아이들에게 놀이가 위험하고 힘겹고 지저분해진다는 부정적 면보다 초능력으로 타고난 감각을 최대한 발산하는 긍정적 면을 많이 강조했던 것이다.

아이들의 기억의 저장고에 좋은 감각의 기억장치를 많이 만들기 위해 유아기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감각적 자극에 집중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감각놀이에 집중하다보면 부모의 마음도 아이의 눈높이에 어느새 동화돼 감각을 느끼게 된다. 인공적 장난감보다 주변에 있는 자연물이 아이의 감각 자극에 좋은 교구가 된다.


자연주의교육연구소 소장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 천민 구제의 생불 에이존(叡尊)

위정자 마음까지 움직여


에이존 좌상

중세 계율부흥운동은 물론 비인(非人), 즉 천민계층 구제에 앞장섰던 에이존은 료토(京都) 다이고지(醍醐寺)의 밀교승으로 승려인생을 시작했다. 밀교의 수행인 18도법·금강계법·태장계법·호마법의 4도가행(四度加行)을 마치고, 마침내 28세 때에는 전법관정(傳法灌頂)까지 마쳐 아사리(阿?梨)가 되었다.

그는 황폐해진 사이다지로 내려가 남도진언종을 창립하였다. 또한 일본 율종의 조사인 감진(鑑真)이 중시한 사분율에 반해 진언종의 종조인 쿠카이(空海)가 중점을 둔 십송율을 근본으로 삼았다.

그는 서민에게도 눈을 돌려 일상생활 가운데에 살아 있는 계율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설법하며 행각하는 중 많은 제자나 신자들을 모았다. 가르침의 핵심은 살아 있는 생명체를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기도를 중심으로 일상생활

사이다지서 남도진언종 개창하고
불행한 이웃들 위한 자선행 펼쳐

속에서 엄하게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고, 부처님의 자비심 아래 가난한 사람이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였다.

중세 신불교가 우후죽순 발흥하는 시기, 승려 본래의 자세로 돌아가기를 서원하여 36세 때 토다이지(東大寺) 계단원에서 카쿠쇼(覚盛), 엔세이(圓晴), 우곤(有嚴) 등과 함께 스스로 계를 주고받는 자서수계(自誓授戒)를 단행하였다.

이후 문자 그대로 흥정(興正)보살로서 50년여 년 동안 약 7만 명에게 보살계를 주고, 700여 사원을 신축 혹은 재건하였다.

수렵을 금지하고 방생하기를 1400여 회,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업을 350여 회나 행했다.

특히 그는 집단적으로 계를 주었는데, 선을 닦고 악을 방지하며 타인을 이롭게 하는 보살행을 실천하도록 삼취정계(三聚淨戒)를 수여하였다.

그는 모든 계율은 성불의 가장 뛰어난 인연으로 보았다. 또한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계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사이다이지 율원에서 자선구제 사업의 일환으로 대중들에게 차회를 열거나 국태민안을 위해 신전 앞에서도 기원하고 차를 베풀었다.

현재 사이다이지에서는 오차모리(大茶盛)라고 하는 행사가 지금도 매년 봄·가을에 열리고 있는데 이에 기원한 것이다. 이는 직경 30cm, 무게 7kg의 큰 다기에 말차를 만들어 운집한 대중들이 돌아가면서 마시는 차회를 말한다.

그는 마침내 당시에 정권을 잡은 무사계급의 권력자들이 잇따라 귀의함에 따라 무사집단으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다. 당시 무사들이 연 막부(幕府)는 수도와 동떨어진 동부의 카마쿠라(鎌倉)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몇 번의 요청을 받은 끝에 그들을 교화할 것을 결심했다.

권력자들은 에이존을 모시기 위해 당시 대사원을 기진(寄進)하고자 했지만, 그는 주인도 없고 인연도 없는 절을 원했다. 그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도록 살생금지의 설법을 펼쳤다.

또한 부처님의 자비를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 불행한 사람들에게 음식이나 의복을 나누어주었다. 실권자들은 이러한 설법과 자비실천행을 목격하고 감동하여 자신의 영지에서 살생을 금지하도록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당신도 설법을 연수하면
설법을 잘할 수 있다???

교육내용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최면 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40년 노하우, 전문가인 김철회 원장 직접 지도

교육일정
❖ 종 합 반 : 10인 이내
❖ 개인지도 : 환영, 특별지도

연수안내
❖ 기 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 강 의 : 종 합 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9시
개인지도 – 직접 상담후 결정
❖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원장 우불 김 철 회 박사 〈직접지도〉
사)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韓 國 說 法 硏 修 院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 3가역 1번 출구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

알 평 승 가 회
제 5 차 모 임

귀의 삼보하옵고
석가세존의 자비실천을 바탕으로 위국 애민하는 마음으로 호국불교 이념을 견지하고 경주이씨 표암 알평공 시조를 기리기 위하여 경주이씨 문중 승려모임을 주창하는 바 후손들로 승단을 이루어 청정한 모임을 갖고자 대덕 큰스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제5회 모임 일시는 알평승가회 단체에서 중국 성지순례관계로 28일로 연기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알평승가회 회원 가입을 환영합니다.

제 5회 모임 일시 장소
◆ 모임일시 / 불기2555년 11월 28일 월요일 정오(12시)
◆ 모임장소 / 경북 영천시 고경면 칠전리 182-2 법융사
◆ 자격조건 / 경주이씨 후손 중 승려(비구, 비구니) 환영
◆ 신청방법 / 알평승가회 신청양식 1통, 사진 1매
입회비 없음. (2개월 1회 모임. 회비 3만원)
◆ 연 락 처 / 회 장 : 원각스님 010-5290-4209
사무총장 : 능인스님 010-3900-3050
◆ 문 의 처 / 053)325-0400. 팩스 : 053)325-4848

한 국 불 교 알 평 승 가 회
명예회장 / 만옹도일. 영공도성
회 장 / 원각. 부회장 / 중천, 백운, 혜경

정확도 효과성 제일
전국 교보 · 영풍 · 반디앤루니스 · 인터파크 · 예스24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육임 학습서 ◆
· 효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 · 하 권 45만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 5만원
· 효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5만원 이상3종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련본 1권 5만원
· 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이상8종

◆ 육임 및 각 오행술 분개 CD프로그램 ◆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종합) 350만원
· 효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록 90만원
· 효사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별 전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
· 도사에게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효사일상생활감정법 2011정련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 효사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련 제3판본 1권수록 30만원
· 효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화역수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련판 수록 5만원
· 토정비결수록 5만원
· 꿈해몽 5만원 이상 13종

◆ 기 타 ◆
· 효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귀명수 전통1권 / 전순별6권, B4 / 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효사활인천역집2011완결최종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정가350만원 120만원
· 효사비결 CD 프로그램 육임일생/당면판단완성 정가650만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육임나라㈜
농 협 301-0071-8027-01/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가능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



성실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필요하다

ODC공연가 금빛나 씨

동국대는 9월 13부터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강좌 'Pride Dongguk 지성 콘서트'를 진행 중이다. 11월 1일 동국대 본관 강당에서는 여섯 번째 강의로 ODC공연가 금빛나 씨의 강연이 개최됐다. '나의 청춘과 현재'란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는 무용과 인도 전통문화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석했다. 이날 금빛나 씨는 ODC 공연과 함께 젊은 날의 인도 유행기를 풀어나갔다.

현재 한국인으로는 유일한 ODC 전수자인 그녀는 현재 오리사 주 주도인 부버네슈어러(Bhubaneswar) 시에서 머물며 ODC계의 거장 구루경가더러쁘러딘(Guru Gangadhar Pradan)의 수제자다. **정리=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ODC란? '오디시'는 인도 고전 무용 중 하나로 고대 힌두사원에서 신을 찬양하기 위해 춤을 추던 신전 무희들의 오랜 전통춤 중 하나다. 인도 동북부 오리사(Orissa)주 신전에서 발원한 춤이다.

인도 무용에 빠지게 되기까지

저는 서강대에서 불문학과 종교학,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종교학 공부를 하기 전 3~4주간 방황을 겪었습니다.

서강대는 FA제도가 있어서 출석에 실패한 것을 뜻하는데 1학년 내도록 FA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집안에 사고나 몸이 아픈 것 외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일까'는 의문이 들어서입니다.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는 수업들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성실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필요했습니다. 휴학을 하고 제 인생에 있어 매진할 것을 찾았습니다.

리스트를 작성했는데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꼭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였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지워가면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부처님오신날 연등행사를 하는 모습을 아파트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당시 미학적인 모습으로 불교에 대해 끌리게 됐습니다. 집안이 가톨릭이었는데 인생에서 종교가 중요하구나를 느껴서 종교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종교학을 만나서 나는 종교인이구나는 깨달음을 얻게 됐고 자유로움을 얻었습니다. 다양성이 주어지면 즐기게 되지만 다양성 때문에 혼란에 빠지기도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카마수트라 춤동작을 보았는데 매료가 됐습니다.

대학원 불교학 공부 차 스리랑카에서 이 춤이 ODC란 것을 알게 됐고, 인도로 가게 됐습니다. 이후 7년간 ODC를 추고 있습니다.

Q: 집안이 가톨릭이었는데 반대는 없었는지

사실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는 분이었기 때문에 종교전쟁까지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종교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믿는 것에 지금은 어머니가 가장 잘 이해해주십니다.

Q: ODC의 특징과 보는 방법은?

ODC는 좁은 공간에서 신만을 위해 추기 때문에 작은 몸짓이 대부분입니다. 이 춤을 추는 발원지를 가면 댄스홀이 따로 있습니다. 굉장히 좁습니다. 다른 춤과 비교하면 발레는 태어난 역사가 극장을 위주로 태어났습니다. 발레는 긴 선을 보이고 서양의 신 관념으로 점프 등이 발달했습니다. 한국 기녀들의 전통 무용은 좁은 공간 사방의 선비들이 있는 공간에서 추기 때문에 작은 몸짓이 중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위한 춤인 ODC는 목, 눈, 손의 작은 움직임이 중요하며 이에 집중해야 합니다.

Q: 도전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나요?

스리랑카에서 인도로 떠날 때 두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세상에 용기가 났습니다.

'정말 죽기 전, 눈 감기 전 두려움 없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원동력이었습니다. 먹고 자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취직하는데 상관없이 이 질문을 계속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Q: 평소에도 인도 복장을 하고 다니는지

뉴요커가 한국무용을 배웠다고 생각해보세요.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알아야 합니다. 델리 등 대도시에서도 ODC를 배울 수 있지만 저는 오리사 주에서 인도사람과 같이 똑같이 생활하면서 ODC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 친구들을 만나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말을 하면서도, 제가 인도 무용수로서 정체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이 인도복장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인도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Q: 인도에 가면 영감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인도는 종교성과 예술성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전통도 살아있어서 인도에는 '박물관에 가면 죽은것들뿐이고, 밖에 살아있는 것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름다운 예술이 일상생활에 함께 있습니다. 저녁에는 신에게 올리는 호롱불을 공양하는 모습부터 여인들이 옷자락을 여미는 모습까지 모두가 아름답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Q: 나는 누구인가는 질문에 ODC가 준 영향은?

저는 종교학과 철학 공부를 하며 나는 누구인가를 정신적으로만 찾았습니다. 저는 내 몸을 쓰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를 고뇌했습니다. 태권도도 해보고 요가도 해보고 위빠사나도 해보았습니다.

그 중 ODC는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합쳐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은 동작 하나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저에게 잘 맞았고 불교와 힌두교의 철학이 절묘하게 섞여 있는 점도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사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개인주의의 나가 아닌 내 마음속의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진짜 내가 얘기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만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힐난을 들을 것은 듣고 잘 하는 것은 칭찬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도전하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좋다면 그냥 하라. 이유 달지 말고

송호준 미디어아트 작가 겸 과학자

"사람들은 저에게 대체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냥 좋아서 하는 일에 구태여 이유를 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11월 8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PRIDE DONGGUK 지성콘서트' 일곱 번째 강좌에는 송호준 미디어아트 작가 겸 과학자가 강연에 나섰다. 송호준 작가는 이날 '개인이 띄우는 인공위성'을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송 작가는 "최근에 가장 열심히 작업하는 작품이 개인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이다. 6년 전부터 이 작업에 몰두해 왔다. 3년간의 조사기간을 거쳐 3년 전부터 이 작업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개인이 인공위성 발사 연구 6년간 진행
로켓 임대 1억원 마련 위해 T셔츠 팔아
젊음 이면에 드리운 불안함 마저 즐겨라

송호준 작가는 무게 1.33kg, 가로 · 세로 10cm의 큐브 모양의 인공위성을 직접 조립하고, 이를 개인이 쏘아 올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송 작가는 "개인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며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첫 번째는 인공위성을 만들고, 두 번째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로켓을 빌린다. 세 번째는 로켓을 발사시킬 수 있는 통신주파수를 구한 뒤, 통신주파수에 맞는 부품을 구해 최종 테스트를 거치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위성은 600~2000km 하늘 위에서 2시간에 1번씩 지구를 돈다.

송 작가는 "이 프로젝트는 2005년부터 美 캘리포니아 폴리텍대학과 스탠포드대 학생들이 처음 연구를 진행해 왔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손쉽게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수소문 끝에 이 프로젝트를 알게 됐다"며 "나는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 작가는 현재 이 과정들을 OSSI(Open Source Satellite Initiative)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인공위성 제작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송 작가는 "사람들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돈이 많이 들지 않느냐고 묻는다. 인공위성을 쏘기 위해서는 로켓을 임대해 해야 하는데, 임대비용이 약 1억 원 정도 든다"라며 "한국 평균 전세값이 2억 원이 넘는다. 내 친구들은 이미 가정을 꾸리고 2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내 인생을 전부 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재밌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송 작가는 로켓 임대비용 값을 마련하기 위해 전 세계 디자이너가 참여해 만든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다. 송 작가는 "1만장을 팔면 1억원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송작가는 프랑스 과학자의 소개로 위성을 쏘아 올릴 러시아 로켓과 가계약을 맺은 상태다.

송호준 작가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선진국, 돈 많은 기업, 유명한 과학자가 아닌 개인도 직접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 작가는 "'세계최초 인공위성을 띄운 작가'라는 타이틀 등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 큰 꿈을 꾸고 시작한 일도 아니고, 이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작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토론하고 과정을 공유하는 것들이 매우 재미있었을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송 작가는 "밖은 시장체제로 이뤄지는 데 가끔 '나 혼자 무슨 일을 벌이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기 이전부터 어떤 선택을 내려야만 했다. 나도 공학을 전공하면서 이런 일을 시작하기 까지는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나도 많이 불안한 상태다. 인공위성을 쏘아올린다고 했지만, 이 일이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장담하지 못한다. 다만 난 이 과정을 즐길 뿐이다"라며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만이 가질 수 있는 불안함을 즐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특별판매
현불사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200질 한정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 · 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처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이라고도 한다.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질 | 금장 | 최고급양장케이스 | 라이온코트지 미색 80그램 | 올케이스 | 전질2도 인쇄

현불샵 02)2004-8215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가을 풍경 속 반야용선 타고 극락세계 구경갈까?



지리산 천은사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은 몇 개일까요?"

"어, 그거 막상 물으니까 모르겠는데. 몇 개지?"

"모두 20개야. 국립공원 중에 가장 먼저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어디일까 궁금하지 않아?"

"어딘데?"

"지리산이지. 지리산 국립공원은 1967년 12월 29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고 하더라고."

차는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를 거쳐 호남고속도로 완주 톨게이트를 빠져나가 전주에서 남원 구례로 이어지는 17번 국도를 달렸다. 새벽 3시에 출발해서 그런지 도로를 달리면서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새벽이라는 시간. 어둠의 두께가 얇아지는 만큼 잠들었던 생명들이 다시 움직이는 소리는 두터워진다. 마을을 지나칠 때마다 조금씩 밝아져 있는 풍경이 여러 장의 그림을 주욱~ 펼쳐가면서 감상하는 느낌을 준다.

'지리산 천은사'

"글씨가 참 묘하다. 왜 저렇게 구불구불하게 썼을까? 한 획도 반듯하지 않네. 글씨 못 쓰는 사람은 저렇게 못쓰지. 잘 쓰는 사람의 경지를 넘어선 사람이 쓴 글씨라고 봐."

일주문 현판 치고는 무게감도 장엄함도 없는 필체가 의외였다. 그러나 가볍거나 조악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매는 힘이 느껴지는 글씨다. "마치 글씨를 써서 물에 담갔다 건진 것 같다. 그치?"

"그러게. 누군지 모르지만, 술 한 잔 자시고 쓰셨나?"

단아한 매무새로 서 있는 일주문을 들어서면 왼쪽은 저수지 오른쪽은 솔숲이다. 계곡 위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은 둥글둥글한 바위틈으로 흘러 저수지에 머문다. 계곡을 건너는 다리에 누각이 하나 서 있어 나름대로 운치를 이루고 있다. 누각의 이름은 수홍루(垂虹樓). 무지개가 드리운 누각이란 뜻. 주변경관과 누각의 조화가 감동적이다. 계곡을 건너면 감로수와 기념품 상회가 먼저 손님을 맞이한다.

천은사는 계곡 옆 산비탈의 지형을 아주 지혜롭게 이용하여 커다란 가람을 이루고 있다.

"계단이 3차선이네."



천은사 내경과 극락보전

돌계단을 올라 천왕문을 지났다. 천왕문 안에는 사천왕이 모셔져 있는데 천왕들 마다 발아래 악귀들을 밟고 있다.

지혜장은 다문천왕 앞에 놓인 팜플릿을 건넸다. '일상을 떠나 지리산 감로숲에서 쉰다' 는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절의 연혁도 간략히 적혀 있으니 읽지 않을 수 없다.

천왕문 안쪽 마당에는 석등이 하나 서 있다. 돌계단을 올라가면 왼쪽은 종각이고 앞으로 극락보전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눈에 들어온다. 천은사의 중심구역이다. 가을이 무르익은 지리산, 그 풍경속의 절은 중생을 극락으로 이끌어주는 반야용선이다. 부부는 어쩌면 절이 이미 극락정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앞은 극락보전이고 그 정면은 보제루, 왼쪽은 설선당, 오른쪽은 회승당. 이렇게 사각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상당히 아늑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들지?"

"마당 중간에 예쁜 탑이라도 하나 서 있으면 더 좋겠는 걸?"

"당신이 시주하여 아담한 3층 석탑 조성하시면 어떨까?"

"그럴 능력이나 있으면 더 이상 소원도 없겠다."

"능력이 있어서 더 이상의 소원이 없는 게 아니고, 소원이 있으면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닐까? 바라는 것, 목표라는 게 없으면 살아갈 힘도 안 생길 것 아냐. 절집에서는 원력만 확고하면 어떤 불사든 이룰 수 있다고 하거든."

보제루로 들어가는 난간은 3개의 나무계단이다. 거기 걸터앉아 극락보전과 지리산 능선과 하늘을 바라보는 눈 맛이 시원했다. 보제루도 그렇지만 설선당이나 회승당은 오래된 목조 건물인데 단청이 되지 않아 더욱 고풍스럽게 보였다.

부부는 극락보전 왼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중앙 불단 수미단 위에는 아미타부처님은 앉아 계시고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은 서 있다. 뒤에는 오래된 듯하면서도 맑은 기운이 느껴지는 후불탱화가 모셔져 있고 닫집은 청룡과 황룡이 가운데 여의주를 두고 서로 다투는 형상이다. 부부는 3배를 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각자의 소원을 비는 시간이라도 갖는 듯. 아침 햇살이 문 밖을 찬란한 극락세계로 장엄하고 있었다. 극락보전의 안쪽은 이미 극락세계다. 법당에 조용히 앉아 차분하게 가라앉은 마음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행복 중의 행복이니 어디 가서 극락을 찾을 것인가?

잠시 후 조용히 법당 문을 열고 들어 온 여인이 재빠른 발걸음과 손놀림으로 불단을 정리하고 초를 밝히고 향을 사르는데 아주 익숙한 그 동작들이 마치 천녀가 내려와 불공을 준비하는 것 같았다. 부부가 일어나 불단에 합장 반배를 하고 나니 그녀가 말을 걸었다.

"멀리서 오셨나 봐요?" "네. 그런데 법당이 참 좋아요. 앉아 있으니 마음이 그렇게 맑아질 수 없어요." "아, 그래요? 법당이니까 좋죠. 1774년에 세웠다고 하니까 236년 된 건물이잖아요. 이 건물이 바로

'샘 숨은 절' 뜻 가진 지리산 천은사에는
반야용선 상징하는 오래된 극락보전 있어

물 관장했던 구렁이 죽어 화재 자주 일자
화마 누르려 술 취한 듯한 수체 현판 걸어

반야용선이거든요. 저기 위에 보세요. 용이 보이시죠? 그 가운데 여의주와 신령스런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도 보이시죠?"

예불준비를 하느라 바쁘게 움직이던 여인이 매우 친절하게 법당 내부를 설명해 주었다. 말이 빠르지만 매우 조리 있게 설명했고 자상한 어감에 그녀의 신심이 흠뻑 스며있었다. 그녀는 부부에게 아미타후불탱화를 찬찬히 보라고 했다.

"팜플릿에 소개된 그 탱화다. 정말 불보살님마다 옆에 이름표를 붙여 놓았네."

"네, 그린 분의 정성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지죠? 그림의 내용이나 색채 등이 아주 잘 어울리는 탱화로 손꼽힌답니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탱화 좀 보세요. 역시 1776년에 모신 것이라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양식이라고 하더군요. 저쪽 신중탱화는 1833년에 지리산 칠불사에서 조성해서 이 극락보전에 봉안했다고 하고요."

"이런 좋은 탱화들이 도난이나 손상당하지 않고 잘 보존되고 있으니 참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지혜장의 말에 여인은 손사래를 쳤다.

"어데요. 한 때 도난을 당했었는데 다행히 다시 찾았답니다. 탱화가 다소 훼손되었는데 부산의 석정스님 있잖아요? 불모 석정 스님께서 아주 정성을 다해 그림을 보수하고 족자로 된 것을 이렇게 판에 붙여 모셨답니다. 이제 CCTV도 있고 판넬에 붙이고 했으니 도난당하는 일은 없겠지요?"

"저건 무슨 동물인가요?"

나팔수 씨가 불단의 양쪽 기둥 윗부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동물상을 가리켰다.

"아, 잘 보셨네요. 오른쪽에 있는 동물은 수달입니다. 물고기를 입에 물고 있죠? 저쪽 왼쪽은 해태예요. 해태 아시죠? 서울 광화문에도 있잖아요. 화마를 제압한다는 의미를 가진 해태와 물에 사는 수달을 조각해 놓은 이유는 천은사를 화재로부터 보호하려는 염원을 담은 것입니다. 천은사에 얽힌 전설이 전해지는데, 처사님 들고 계시는 팜플릿에도 적혀 있으니 읽어 보세요. 제가 지금 예불 준비를 하는 중이라 좀 바빠요."

마침 예불을 모시기 위해서인지 스님 한 분이 법당으로 들어왔다. 부부는 불단을 향해 다시 삼배를 올리고 스님에게는 허리를 숙여 반배를 하고 나왔다. 팜플릿에 있는 '천은사 유래' 라는 제목의 안내문에는 법당에서 다 못 들은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옛날에 이슬처럼 맑은 샘이 있어 절 이름도 감로사(甘露寺)라 했는데, 어느 날 이 샘을 보호하던 구렁이가 밖에 나왔다가 어떤 사람의 돌팔매에 맞아 죽게 되었다. 놀란 스님들이 묻어주고 치성을 드렸으나 물줄기가 끊어지고 말아 이후 절 이름도 '샘이 숨은 절' 이란 뜻의 천은사(泉隱寺)로 바뀌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절 이름을 바꾼 뒤부터 원인모를 화재가 자주 일어나서 큰 걱정거리가 되었다. 스님과 신도들은 절의 수기(水氣)를 지켜주는 구렁이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늘 화재를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조선 명필의 한 사람인 이광사를 초청해서 마치 물 흐르듯 수기를 불어넣는 수체(水體)의 글씨로 현판을 써서 일주문에 걸게 하였는데, 그 뒤부터 화재가 없었다고 한다.

"아, 일주문 현판 글씨에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이광사라면 우리가 대흥사에서 보았던 대웅전 현판의 글씨를 쓴 그 분이잖아."

부부는 극락보전 뒤로 한 단계 높은 곳에 위치한 진영각, 응진전, 팔상전, 관음전, 삼성전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모두 근래에 지은 전각들이다. 설선당 옆에는 우람한 보리수나무가 서 있고 그 옆에 천은사의 문화재들을 소개해 놓은 안내판이 있어 절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글=임연태(시인 본지논설위원) 사진=이승현(시인 사진작가)

생생한 부처님 말씀을 읽자!

불교의 중요한 경전은
이 〈불교경전총서〉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500질 한정판

불교경전총서 (전 22권) 완역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대중적인 언어!

〈불교경전총서〉는 당신의 불심을 일깨웁니다.

불자라면 〈불교경전총서〉 1질은 소장해야 합니다.



01. 화엄경 김지견 역/12,000원
02. 유마경 박용길 역/9,500원
03. 묘법연화경 현해스님 역/13,000원
04. 금강경 정호영 역/7,000원
05. 능엄경 김두재 역/12,000원
06. 원각경·승만경 전해주·김호성 역/10,000원
07. 정토삼부경 한보광 역/9,500원
08. 범망경·지장경 일지 역/8,000원
09. 과거현재인과경 혜원 역/10,000원
10. 백유경 현각 역/8,000원
11. 부모은중경·우란분경·목련경·관음경 일지 역/7,000원
12. 대반열반경 강기희 역/8,500원
13. 아함경1 돈연 역/9,000원
14. 아함경2 돈연 역/9,000원
15. 법구경 석지현 역/9,000원
16. 숫타니파타 석지현 역/10,000원
17. 밀린다왕문경1 동봉 역/12,000원
18. 밀린다왕문경2 이미령 역/12,000원
19. 본생경1 이미령 역/12,000원
20. 본생경2 이미령 역/9,500원
21. 미륵경전 이종익·무관 역/7,000원
22. 해심밀경 묘주 역/10,000원

민족사 구입문의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E-mail. minjoksa@chol.com ·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전 22권 정가 214,000원 할인특가 185,000원

‘춤추는 한국인’ 강행원 화백


‘춤추는 한국인’으로 13번째 개인전을 연 강행원 화백

30일까지 헤이리 갤러리 한길서

독도와 4대강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우리시대의 화두이다.

문인화를 그리는 강행원 화백(65)은 이러한 민감한 이슈를 한국의 전통춤으로 승화시켜 11월 30일까지 파주시 헤이리마을에 있는 갤러리 한길에서 13번째 개인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그가 저술한 회화 이론서 〈한국문인화-그림에 새긴 선비의 정신〉(한길산 刊) 출간을 기념하는 초대전이다.

강 화백은 전시에서 ‘춤추는 한국인’을 주제로 병신춤 승무 가면춤 북춤 선비춤 등 한국의 다양한 전통춤을 수묵과 담채로 생동감있게 표현했다. 그 중 눈에 띄는 작품은 가로 4m, 세로 2m가 넘는 화폭에 담아낸 거대한 소 그림이다.

“이 그림은 인간의 본성을 찾아 수행하는 단계를 그렸던 선종화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잃고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요구되는 절명한 문제이기도 하죠.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과 찾을 것들에 대한 화두이기도 합니다.”

강 화백은 우주가 한 몸이기에 잃고 찾을 것이 따로 없는데 서로 고집하여 갈등하는 사회를 돌아보고자 심우에 비유한 소를 그려냈다. 그리고 하나 둘씩 우리에게 화두를 던진다.

첫 번째는 독도문제다. 강 화백은 독도 위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그려 ‘독도는 우리 땅’ 임을 소리 없이 외치고자 했다. 그리고 수행자가 추는 승무, 부채를 든 선비춤, 일본을 처단하는 모습을 표현한 칼춤으로 독도를 지키고자 했다.

그 다음은 사대강. 사대강(死大江)이라고 적나라하게 쓰인 곳에서 춤꾼은 탈을 쓰고 다리와 양손에 든 천을 ‘X’ 자로 만들어 춤을 추고 있다. 온몸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왜 하필 춤으로 표현했을까. 강 화백은 “춤은 언어로는 담아낼 수 없는 희로애락의 몸짓이다. 인간 심연의 흥겨움과 비탄까지도 가장 극적인 바람을 몸으로 하는 동작이다. 더 크게 확대하면 동물이나 곤충의 움직임까지도 내포 할 수 있다. 이는 생명의 동작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소년시절부터 화가를 꿈꿔온 강 화백은 불교와 인연이 깊다. 화가를 지망했지만 가족의 반대에 법대를 지원한 강 화백은 낙방을 하고 출가를 했다. 그리고 불교대학에 진학해 학생운동을 하다 퇴학을 당했다. 이후 화가의 길로 들어선 그는 청화 스님(1923~2003)을 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새기며 재가수행자로서 정진을 했다.

그렇게 청년시절을 보낸 강 화백은 1977년 ‘진경산수 동양화전’을 첫 전시회로 열었다. 하지만 30대 중반이 넘도록 강 화백은 그림에 생명을 담아 넣을 이상을 찾아 헤맸다. 그러다 어느 날 서울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 처리장 난지도를 찾게 된 것. 이곳은 형형색색 온갖 것들이 나 뒹구는 오브제의 천국이었다. 강 화백은 그때부터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서민의 주거와 삶을 그리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민중의 아픈 구석도 돌아보게 됐다.

강 화백은 “1980년대의 민중운동은 정권을 향한 직설적 저항이었기에 선명하고 뚜렷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권력화 된 언론에 눈과 귀가 가려지고 소통의 통로를 찾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번에 그린 ‘춤추는 한국인’은 그가 바라는 이 시대를 자각하는 시민상이자 보살상이다. 독도는 우리의 영토라는 것, 강을 죽이는 개발논리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온몸으로 표현하라는 메시지인 것이다.

“우주가 한 몸인 것을 알고 우리 터전을 평화롭게 보존한다면 우리는 미래불을 만나 영원할 것입니다.”


‘X’를 그려 4대강을 온몸으로 저항하는 춤꾼의 모습

강행원 화백은 전시장의 맨 끝에 ‘봄과 미래불’이란 그림으로 장식했다. 겨울을 나고 활짝 핀 자줏빛 목련 사이로 미륵부처가 지그시 눈을 감고 있다. 그 봄은 그가 바라는 세상이며 우리가 기다리는 정토일 것이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봄과 미래불’

옻칠과 달마도가 만나 천년해로

범주 스님, 국제선센터 1주년 초대전



사람 몸체만한 큰 붓으로 달마 대사를 일필휘지(一筆揮之)하는 퍼포먼스로 유명한 범주 스님(사진)이 새로운 장르의 선화로 전시회를 열었다.

속리산 달마 선원에서 35년간 선묵일여(禪墨一如)로 정진해온 스님은 선화(禪畵)에 옻칠을 접목해 1000년 이상 보존되는 ‘천년선화’를 소개했다.

국제선센터 개원 1주년을 기념해 11월 20일까지 목동 국제선센터 4층에서 전시회를 여는 스님은 100여 점의 달마도를 선보인다.

“선화를 어떻게 하면 오래 보존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옻이 생각났습니다. 고불상과 팔만대장경이 오래 보존되는 이유가 옻칠 때문인 것을 보고 선화에 시도해봤습니다.”

범주 스님은 선화의 정신성과 1000년 이상 보존되는 옻칠의 물리성이 융합·조화될 수 있는 선화를 창작하기 위해 5년 전부터 옻의 독성과 싸우며 인욕(忍辱) 정진을 해왔다. 기원전부터 내려온 옻칠은 방충, 방균, 방습, 방산성과 강한 내구성을 지니며 원적외선을 방출하고 전자파를 흡수하는 하늘이 내린 최상의 물질이다.

“참선과 수행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은 마음이 맑아집니다. 맑은 수행의 기운이 달마도를 통해 전달되면 그 그림을 모시는 사람의 마음 또한 밝아집니다.”

선화는 참선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심전심으로 전하는 포교의 방편이니 옻칠을 통한 선화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술작품이 된다는 것이 스님의 설명이다.

하지만 범주 스님은 부적으로 팔리는 달마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았다.

“불심을 전하는 최고의 방편인 선화가 절에서 달마도 부적을 만들어 파는 미신으로 추락했습니다. 한국불교를 기복신앙으로 오도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죠. 때문에 올바른 포교방법으로서의 선화를 정립 할 때가 됐습니다.”

범주 스님은 1966년 홍익대 미대를 졸업한 뒤 출가해 용화사 법보선원에서 수행 후 한국불교를 미국에 확산시킨 숭산 스님을 모시고 로스앤젤레스 달마사 주지로 생활했다. 10여 년 해외 포교 후 1989년 귀국한 스님은 속리산 자락에 토굴을 지어 선묵화를 그려왔다.

범주 스님은 “작품 판매 수익금은 소외된 계층 돕기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며 “천년선화가 한국선불교 정신을 표현하는 선예술로 한국불교가 세계에 알려지는데 좋은 방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범주 스님의 ‘달마도’

청림회 합창단 대상 수상

문화부, 불교합창페스티벌 성료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진명)는 11월 6일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2011 불교합창페스티벌 신작찬불가경연대회’를 봉행했다.

한국불교음악인협회(회장 이달철)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등이 후원한 행사에는 전국 19개 합창단 85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에서 대상은 대전 비구니 청림회 합창단(단장 이재기), 최우수상에는 조계사 청년회 소리마루 합창단(단장 이길수), 강원 신흥사 한마음 합창단(단장 이정숙)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서울 향림사 합창단(단장 정순근), 대전 광수사 반설합창단(단장 한현숙), 강원 낙산사 합창단(단장 신영숙), 강원 구룡사 합창단(단장 홍연옥),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경산도량 금강합창단(단장 변민희), 충주 사르나트레이디스싱어즈 합창단(단장 법성 스님),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가릉빈가합창단(단장 곽병숙) 등 총 7개팀이 수상했다.

지휘자상에는 김태환 충주 사르나트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 지휘자와 박성규 서울 향림사·강원 신흥사 합창단 지휘자가 수상했다.

상금으로는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지휘자상 50만원이 수여됐다.

이나은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2~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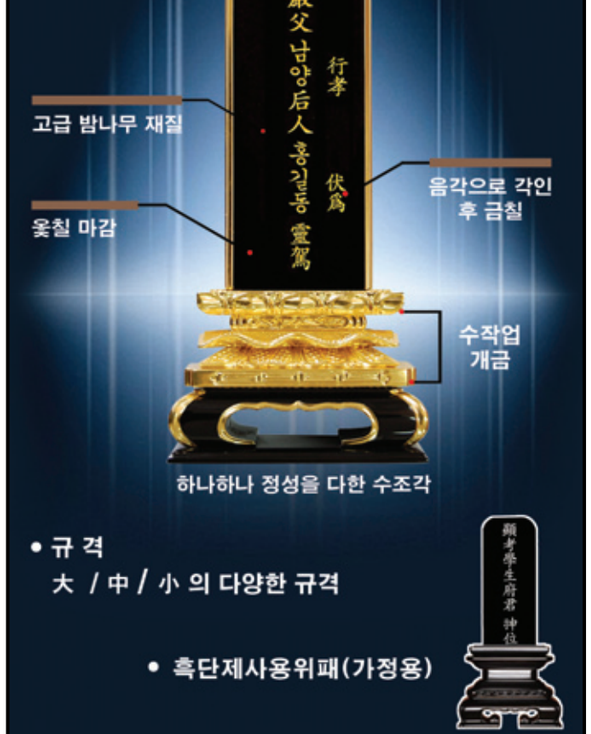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망설일 것 없네 당장 부처로 살게나	도법	불광출판사
2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3	불영이 감춘 스님의 비밀 레시피	일운	담앤북스
4	엄마수업	법륜	휴
5	붓다를 죽인 부처	박노자	인물과사상사
6	산승불회	유철주	불광출판사
7	네가 던진 돌은 네가 꺼내라	기후	이자리
8	화해	틱낫한	불광출판사
9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10	마음공부 첫걸음	김명우	민족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1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위패


위패전문기업 (주) 대 양
대표전화 : 02-966-9650
휴대전화 : 010-8238-1511
팩 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1kg 35,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4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불조정맥 3개국어판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진영(佛祖正脈眞影)과 정맥전법게(正脈傳法偈)를 온전하게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편찬, 의역하였다. 한영중 3개국어로 출간하여 세계인들이 불법의 정수를 음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어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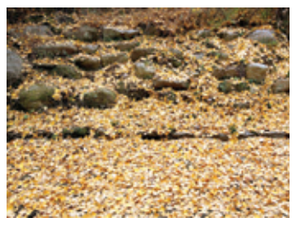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살아가는 동안은 모두가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⑲ 김제 흥복사(興福寺)

절은 깊은 곳에 있지 않았다. 길옆에 있었다. 노랗게 익은 은행잎이 소리 없이 쌓이고, 문밖 들판에서는 갈대숲이 일렁인다. 듬성듬성 끊어진 돌담을 대나무로 깁고, 마당 한 편엔 미륵불을 모셨다. 사천왕문을 들어서자 백구 한 마리가 짖는다. 흥복사다.

흥복사는 650년(백제 의자왕 10)에 고구려에서 백제로 망명한 보덕 스님이 창건했다. 그 때의 이름은 승가사(僧伽寺)였다. 1597년(조선 선조 30) 정유재란 때 불에 타 없어진 절을 1652년(인조 3)에 흥복거사가 중창하고 흥복사라 했다. 1965년에 전강(田岡; 1898~1975) 스님을 모셔와 선원을 개설하고, 1965년 도영 스님이 중창하여 오늘에 이른다.

어느 날, 통영의 미래사에서 효봉(曉峰; 1888~1966) 스님을 시봉하고 있던 박완일이 당대 제일의 선사였던 전강 스님을 뵙기 위해 흥복사로 향했다. 박완일의 나이 23이었다. 전강 스님은 박완일에게 안수정등(岸樹井藤) 화두를 내밀었다. "자네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박완일이 대답했다. "꿀만 먹겠습니다."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달다' 고 대답하겠네." 전강 스님의 대답은 '달다' 한 마디였다.

멀리서 스님이 백구를 부른다. 사방엔 사나운 불길, 달려드는 미친 코끼리, 불길과 코끼리를 피해 겨우 나뭇가지 칡넝쿨에 매달렸지만 그 밑엔 깊은 우물이고 우물엔 이무기가 우굴거리고 있다. 쥐들이 칡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했고, 손의 힘은 점점 빠져 우물에 떨어질 듯 말 듯,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뭇가지 사이로 벌이 쳐놓은 꿀이 흘러내린다. "어찌하겠는가?" 백구가 스님에게 달려간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삶에서 순간순간은 모두가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꿀 한 방울이 흘러내린다. 어김없이 찾아와 갈대를 흔드는 가을바람이 그것이고, 한 철 미련 없이 살고 떨어져 쌓이는 노란 은행잎이 그것이다.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흥복사에 가 볼일이다. 낙엽 쌓인 흥복사 마당을 거닐며 전강 스님의 안수정등 화두를 떠올려볼 일이다. "어찌할 것인가." 묻고 또 물어 볼 일이다. 묻고 또 묻는 일이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바람이 갈대에게 묻는다. 어찌할거냐고.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Dau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지홍 스님의 한평생 산다는 것은

남편을 부처님처럼 모시세요

지홍 스님
서울아산병원
병원법당 지도법사

하루는 어느 나이 많은 어르신이 법당을 찾아 오셨다. 어르신은 간이식을 기다리는 보살님에게 순수 장기기증자가 없다고, 조금만 더 지체하다가는 보살님이 회생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울먹거렸다.

며칠 후 어르신이 밝은 모습으로 합장을 하며 법당에 들어왔다. "스님!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할 텐데 내 장기를 우리 안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아들은 혈액형이 틀려서 안 되지만, 당신은 가능하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다며 환하게 웃으셨다. 60은 훨씬 넘어 보이는 어르신이 당신의 장기를 부인에게 주려고 용기를 내신 것이다.

수술비는 장만하셨냐고 물었더니 마침 살던 곳이 서울에서도 값이 제법 나가는 재건축아파트였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 마련했다고 했다. 집을 처분한 돈으로 서울 근교의 공기 좋은 곳에 아파트를 마련하고, 이제는 수술날짜를 기다리고 있다며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는 집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마침내 수술할 날이 돌아왔다. 어르신은 자식들은 각자 회사에 출근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라며 손수 부처님 전에 올릴 과일, 꽃, 공양미 등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우리는 다함께 부처님께 두 분의 수술이 잘 되어 남은 생애 동안 행복하게 오손도손 의지하며 잘살게 해 달라고 기도 드렸다.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났다. 어르신이 환한 웃음으로 법당으로 찾아왔다. 오른쪽 옆구리에 손을 얹고 꾸부정하게 서 계시던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몇 번을 인사해도 아깝지 않다며 연신 부처님께 합장으로 인사를 하였다. 보름이 지나자 우주복 같은 수술환자 옷을 입은 불자님 한 분이 법당을 찾았다.

"나, 살았습니다. 스님"

"아! 보살님!" 하며 면장갑을 낀 환자의 손을 잡았다. "남편을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퇴원하면 잘 해드려요" 보살님은 "네" 라고 대답했지만 아무래도 보살님은 감사한 마음을 뒤로 하고 본인 아픈 것에 대한 부분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았다. 거사님의 얼굴에 다소 섭섭한 기운이 맴돌았다.



지홍 스님이 환자의 재활을 돕고 있다.

정지천 교수의 건강칼럼

중풍(中風) 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나

입동(立冬) 절기를 지나면서 중풍을 걱정하는 노인 분들이 적지 않다. 한의학에서는 찬 기운이 몸에 들어와서 혈맥의 운행에 장애를 주므로 겨울철에 중풍이 많은 것으로 본다. 특히 서서히 추워지는 날씨보다 갑자기 추워질 때 많이 발생하고, 초봄에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질 때도 잘 발생한다. 그렇지만 기후의 변화는 중풍을 유발하는 촉진인자이고, 주된 원인은 '정기(正氣) 허약' 이다.

중풍은 '바람에 맞은(中)' 병인데, 밖으로부터의 바람이 아니라 속바람이다. 그 바람은 몸속에서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열기가 많아져서 열 때문에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중풍을 '내풍(內風)' 이라고도 한다. 물론 열이 머리로 올라가기 때문인데, 머리와 얼굴이 붉어지고 뜨거워진다면 중풍이 올 위험이 커진다. 그러니 중풍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열(熱)' 이다. 실제로는 신장의 음기가 부족해져서 간장의 양기가 항진되어 열이 생겨나 풍이 일어날 수 있게 되므로 정기가 허약해진 것이 중풍의 근본 원인이다.

중풍이 주로 중년기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정기가 허약해진 탓이다. 특히 신장의 기가 허약해지기 때문이다. 신장의 정기는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쇠약해지게 되는데 과로하거나 성생활의 과다, 오래도록 만성질병을 앓은 경우에 더 허약해진다. 또한 찬바람이나 건조한 기후에 오래 노출된 경우 신장의 기가 상하게 된다. 태어날 때부터 신장이 허약한 체질을 타고나는 경우도 있다.

스트레스도 중풍의 큰 원인이다. 화내는 것은 머리에 압력과 열을 오르게 하고 생각을 많이 하거나 근심, 걱정이 많은 경우에 기를 맺히게 해 기의 소통에 장애가 되므로 풍이 일어난다. 또한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참아서 가슴에 쌓이고 쌓여도 중풍이 생겨난다.

나쁜 생활 습관도 중풍을 일으킨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술, 담배를 즐기면 몸속에 습기와 담이 쌓이고 결국 열이 생겨나 중풍이 유발된다. 그래서 모든 한의서에 비만하면 중풍에 잘 걸린다고 나와 있다. 물론 가만히 있기를 좋아하고 활동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도 혈의 흐름이 순조롭지 못해 혈맥이 막혀 중풍이 생겨난다. 과로도



원인이다. 나이가 들거나 병을 앓은 후 기력이 약해져서 음양의 균형과 조화가 무너진 상태에서 일을 많이 하면 몸속의 '물 기운' 은 아래로 내려가고 '불 기운' 이 위로 상승해 중풍을 일으킨다.

중풍이 오는 것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신체의 일부 또는 전신에 일시적이거나 지속적으로 부정기적인 전조증이 나타난다. 얼굴이나 손이 떨리거나 팔다리에 힘이 없어지거나 벌레가 스물스물 기어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감각이 이상해진다거나, 일시적으로 말하기가 어렵거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거나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다거나 하는 등이다.

중풍을 예방하려면 추운 곳에 오래 있거나 갑자기 추운 곳에 나오는 것을 피하고, 과로와 근심, 걱정, 짜증을 피해야 한다.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소금이나 기름진 음식을 줄이며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한다. 기와 혈의 소통을 잘 되게 하고 체중도 줄이려면 운동이 필수적인데, 새벽 찬 공기에서는 피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장의 음기와 양기의 부족을 보충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중풍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풍의 성질은 잘 돌아다니며 변화가 많은 것이 특징이므로 중풍은 갑작스레 발작이 일어나고 변화무상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절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머리를 될수록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연하장애가 와서 음식물을 잘 넘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억지로 약을 먹여서 숨이 막히게 하거나 기도로 넘어가서 폐렴이 유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정운 스님의 사색과 명상 〈9〉

고통에 당당히 맞짱떠라

대학생들에게 '자신에게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에 대해 과제물을 낸 적이 있다. 젊은 학생들인데도 '행복하기 위해서' 라는 의외의 답변이 많았다. 중생이 살아가는 목적도 행복한 삶을 위해서이다. 불교를 믿는 목적도 이고득락(離苦得樂)을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행복해지고 싶다는 바람만으로 행복해지는 걸까? 행복을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고통·고뇌' 라는 과제가 해결되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

불교에서는 중생의 고통을 생노병사 4고라고 했다. 과연 중생의 고통이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할까? 인간에게는 8만 4000가지 번뇌와 고통이 있다.

우리가 수많은 고통을 안고 살지만(고성제), 그 고통이 발생하는 원리가 집착임을 알아야 하고(집성제),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정진하며(도성제), 그 노력한 결과로 고통이 해결된다(멸성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이 연기설이요, 부처님께서 연기의 도리를 고찰하고 제자들에게 깨달은 내용을 실천적으로 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4성제이다. 12연기에 고가 생겨난 원인과 고의 소멸 원리가 담겨 있다면, 4성제는 어떻게 고를 소멸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 방법론이다.

살다보면 고통은 필연적인 것
고통 실체 알고 마음챙김해야

4성제 가운데 첫 번째인 고통에 생로병사는 어쩔 수 없는 당위성의 고이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누구에게나 있는 고통이다. 이외 모든 고통의 원인은, 인간과 만물이 무상한데 영원하기를 바라고, 내 마음대로 세상이 움직여주기를 바라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즉 만족하지 못하는데서 발생하는 끊임없는 불만족이 고통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고통이라는 것조차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 점점 커진다.

나이가 들면 내려놓고 버려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내려놓지 않고 더 움켜쥐려고 하니 상대적으로 많은 고통을 초래한다. 그 고통을 초래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외부로만 돌리고 남을 탓한다. 그러니 고통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사찰의 소임도 마찬가지이다.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에게 그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어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칫 소임을 내려놓으면 뒷방으로 내쳐지는 일종의 소외감이 두려워서이다. 또 오랫동안 참선이나 염불, 독송 등 홀로 수행해나가는 그 '홀로' 에 길들여있지 않다보니 소임을 놓으면 할 일이 없다는 점이다. 승려로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실은 사실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 아마 재가자들의 살림살이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다시 정리해보자.

첫째는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고독한 존재이다. 생명 있는 존재, 특히 인간에게는 '고통이 당연히 있다' 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뜨거운 쇳덩이인줄 알고 잡는다면 순간적으로 놓겠지만, 뜨거운 줄 모르고 쇳덩이를 잡는다면 화상을 입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다. 고통이라는 것이 인생에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임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둘째는 인간은 생각으로 고통을 만들어낸다. 즉 사람이 고통이 없으면, 어떤 무엇인가라도 고통을 창조해낸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 고통을 점점 눈덩이처럼 키운 다음 괴로워한다. 실체가 없는 허깨비를 실제로 만들어놓는다. 옛날에 효자들은 어머니에게 자식 걱정하지 말라며 방안에 굴곡진 나무 기둥을 세워놓았다고 한다. 노모가 나무를 바라보며 '왜 저 나무가 저렇게 굴곡졌을까?' 로 자식 걱정하는 것을 대치하기 위한 지혜에서 나온 것 같다. 즉 인간은 현재 고통스런 일이 없으면 스스로 만들어내면서까지 고뇌한다는 뜻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고통이 생겼을 때, 고통이 일어난 자리로 거슬러 올라가 보라. 아마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을 것이다.

셋째는 실제 고통스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고통이 일어난 근원자리를 마음챙김(sati)한다. 이것이 고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3법인 가운데 무상(無常)과 무아(無我)보다 고(苦)는 명상을 통해 현저하게 느낄 수 있으며, 극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 고통스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감이다. 고통과 맞서서 당당히 맞짱 뜨는 각오로 고통의 실체를 직시해보라. 고를 철저히 아는 것, 깨달음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다.



정운 스님(조계종 교수아사리)

경주 금선사 여래선원 달마동 특별 분양안내



삼보에 귀의 하옵니다.

경주 조계종 금선사는 비구니스님의 수행정진 공간으로 금선선원(30세대), 여래선원 문수동(24세대), 보현동(22세대)을 완공 입주하였으며, 이제 마지막 회향하는 마음으로 2012년 3월 완공예정을 앞두고 달마동 (33세대)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경주 도심산중으로 전국 교통망이 편리하고 주변엔 홍송이 둘러싸여 있어 산세가 수려한 경관에서 비구니스님들의 수행정진 공간으로는 최적지로 여겨지고 있어, 이곳에서 평생 함께하실 비구니스님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4(임야번지 산 193-1)
| 세대수 33세대 : 평형(10,12,13,21,23평)
| 건물화주 지불방법(평형에 따라 다름) : 총액,계약금,중도금,잔금 원
| 특 혜 : 계약금과 동시에 11월 30일까지 완불자에게는 잠자는방 1개를 편백나무(소나무)와 함께 할 수있는 공간을 선물하겠습니다.
| 입주자격 : 조계종 비구니스님으로써 승가에 결격사유가 없이 심신이 건강한 승려, (승려증 복사, 주민등록등본 1통)는 제출 바랍니다.
| 완공예정일 : 2012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선도산 금선사
주 지 휴정 합장

■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번지 전화 : 054)772-7171 ■ 휴대폰 : 010-3538-3879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고조선'에서 종교와 사상의 지위는?

곰의 힘이 곧 고조선의 힘이었다



고조선 건국 신화의 곰은 당시 지배계층인 조선족의 종교적 상징물이었다.

1. 고조선의 통치 방법

고조선은 단군조선만으로 이뤄져 있었다. 단군조선은 만주 전역과 한반도의 넓은 강역을 통치한 나라였다. 단군조선을 통치했던 47세계(世系)의 '단군'들은 각 지역의 거수(渠帥)에게 거수국(渠帥國)을 위임해 간접 통치하는 지방 분권의 체제로 광대한 제국을 유지했다. 단군조선이 지방분권의 통치체제를 고수한 것은 고조선 출현 이전에 만주 전역과 한반도 지역에 존재했던 성읍국가들(마을연맹체)을 지방정권으로 인정하면서 그들을 결집해 세웠기 때문이다. 전 시대에 광대한 제국의 영역을 다스려 본 경험이 없었던 단군조선은 정복을 통한 '지배'의 방식이 아니라 앞선 선진 문명을 통한 지방 정권의 '인정'의 방식을 추구했다. 그러나 청동기를 지나 철기문명으로 나아가면서 지방분권 체제 속의 거수국들은 언제라도 단군조선의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할 생각을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단군조선은 이러한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중앙정부의 무력 체제를 공고히 유지했다. 동시에 정권과 결탁한 종교조직과 종족에 기반한 혈연조직 그리고 정무와 행정을 관장하는 관료조직을 적절히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치자들은 신의 존재를 의심없이 믿었던 고대인들의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종교를 적절히 활용했다. 고대인들은 만물에는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때문에 만물은 신으로 인식됐고 인간의 일들은 신의 의지에 의해 전개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당시의 고대사회에서 종교는 정치의 상위에 자리하면서 각 구성원들을 지배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기록으로 알려진 갑골문(甲骨文)은 기원전 1330~1111년경까지의 상(商)나라 왕이 신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 점을 친 기록물이다. 갑골문에 의하면 상나라 왕은 모든 제사·제도·공납·재해·농사·사냥·질병·분만 등 종교의식과 국가 중대사 및 개인의 일에 이르기까지 신의 뜻을 묻고 그 반응에 따라 집행했음을 알 수 있다.

상나라 왕은 신의 뜻을 대신해 상나라 정치를 행하는 신권(神權)통치의 성격을 띠었다. 고대인들에게 신은 인간의 모든 일과 자연의 모든 현상을 섭리하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그들에게 신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었고, 미신이 아니라 과학이었다. 결국 이러한 의식은 사람의 영혼을 믿는 조상숭배로, 만물은 모두 신령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은 애니미즘으로, 동물을 숭배하고 그것을 그들의 조상으로 인식하는 토테미즘으로 발전했다. 지배질서를 갖춘 나라가 출현하기 전에는 지역에서 정치세력을 이루고 있던 씨족들은 그들의 수호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를 지니고 있었다. 수호신들은 자신의 씨족들을 하나의 공동체 의식으로 묶어주는 강력한 기제였다. 해서 나라의 통치자들은 이들 씨족들의 신들을 통합하기 위해 강력한 종교조직이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신의 계보가 만들어지고 힘의 세기에 따라 위계가 형성됐다.

단군사화(壇君史話)에 언급된 환웅족과 곰족과 범족의 명칭에는 고대인들의 종교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환웅족은 하느님(환인)을 수호신으로 숭배했던 조선족이었다. 이들은 '목초(牧草) 꼴인 선(鮮)을 따라 이동을 하며 순록을 치는 부족'으로 이해된다. 즉 순록유목단계에 진입한 순록치기를 하던 유목하는 조족(朝族)과 방목하는 선족(鮮族)을 통합해 세운 부족이었다. 곰족은 곰을 수호신으로 숭배했던 고구려족이었다. 범족은 범을 수호신으로 숭배했던 예족(濊族)이었다. 이들 중 하느님은 고조선 종교의 최고신이었고 그를 숭배했던 조선족은 고조선의 최고 지배족이었다. 단군사화는 하느님을 숭배하는 환웅족 중심의 기록이어서 가장 대표적인 신과 씨족들만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보다 더 많은 신들과 씨족들이 고조선 사회를 이루고 살았을 것이다. 단군은 몽골어의 '하늘'을 뜻하는 '텡그리'(tengri)와 상통한다. 본디 만주지역과 거주민들의 토착어였을 '단군'(壇君)과 '천군'(天君)은 고조선과 한(韓)족에서는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이자 종교의 최고 지도자 및 정치 지도자였다.

2. 고조선의 종교

중국의 발음인 고조선 '탄준'(tanjun, 壇君)과 그의 거수국인 한(韓)족 '티엔준'(tianjun)은 소리값이 매우 가깝다. 단군이 하느님의 후손이었듯이 천군도 하느님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는 존재였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온 태백산(醫巫閭山) 마루에는 신단(神壇)과 신단수(神檀樹)가 있는 신시(神市)가 있었다. 이곳은 고조선 종교의 최고 성지이자 고조선 사람들의 마음의 의지처였다. 단군 왕검(仙人)은 이곳에 머물며 종교의식을 주관하고 주재했을 것이다. 단군조선의 거수국들 역시 단군에 의해 통치를 받으며 종교 의식을 거행했을 것이다. 또 거수국인 한(韓)의 정치중심지인 국읍(國邑)에도 천군이라는 종교 지도자가 있었다. 거수국들의 여러 종교성지인 별읍(別邑)에는 천군이 "천신(天神)에 대한 제사를 주재했고, 소도(蘇塗)를 만들고 그곳에 큰 나무를 세워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겼다"해서 누구든 도망해 종교적 성소인 소도 안에 이르면 아무도 돌려보내지 않았다. 이처럼 한(韓)족은 도읍인 국읍뿐만 아니라 종교 성지인 별읍도 두었다.

고조선의 종교 이름은 선도(仙道)이자 선교(仙教)였다. 〈삼국사기〉에 실린 최치원의 '난랑비서'(鸞郎碑序)에서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風流)라고 한다. 그 가르침이 세워진 기원은 〈선사〉(仙史)에 상세히 갖춰져 있다"고 했다. 여기서 〈선사〉는 선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은 현재 전해지지 않지만 아마도 풍류도의 역사에 대해 적은 책으로 짐작된다. 풍류는 불도유 삼교가 이 땅에 전해오기 이전에 있던 고유의 '정신' 혹은 '종교'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묘한 도'인 풍류는 과연 어떠한 것일까? '바람의 흐름'[風流] 혹은 '바람과 달빛'[風月]의 이미지를 지닌 이들 두 단어는 본디 같은 뜻이다. 즉 풍류도 또는 풍월도는 하늘님 신앙에 기반한 신선사상과 산신신앙에 기초한 무속신앙이 하나로 융섭된 세계관이다. 풍류도는 고조선 이래 이 땅에 면면히 전해져온 세계관이며 신라에서 활짝 꽃 피운 독자적 세계관이다.

고조선의 종교는 왕검(王儉)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조선의 통치자이자 종교 지도자였던 그는 선인(仙人)이었다. 고조선에서는 '선'(仙)을 추구하는 길을 '선도'(仙道)라고 했고, 그 가르침을 '선교'(仙教)라고 했으며, 그 길을 가는 지도자들을 '선인'이라고 했다. 〈삼국유사〉 '고조선'조에서 "단군은 바로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뒤에 아사달로 돌아와 은거해 산신이 됐다"고 한 것처럼 그는 '산신'이 됐다. 여기서 '산신'은 '선인'과 다르지 않다. 산에서 오랜 수명을 누리는 이가 선인이며 산신이다. 결국 단군은 아사달(조양)로 돌아와 은거해 산신이 됐고 선인이 됐다.

일연은 '고구려'조에서 〈단군기〉를 인용해 "단군이 서하(西河) 하백의 딸과 친해 아들을 낳아 부루(夫婁)라 이름했다"고 하면서 "지금 이 기록을 살펴보건대 해모수(解慕漱)가 하백의 딸을 사통해 뒤에 주몽을 낳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루와 주몽은 어머니가 다른 형제일 것이다"고 했다. 부루와 주몽이 이모형제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다만 단군조선의 건국 이후 그리고 고구려의 건국 이전에 고조선의 거수국이었던 고구려족의 통치자로서 단군의 아들들이 참여했을 수 있다. 여기서 단군과 해모수는 동일인이다. 그렇다면 해모수의 '해'는 하늘의 '해'이며 '모수'는 '머슴애'를 뜻하므로 해모수는 '해의 아들' 즉 '일자'(日子)를 가리킨다. 고조선의 최고신은 하느님이었고 하느님은 '해' 즉 '일'(日)이다. 단군은 해(하느님)의 아들이자 하느님의 대리자이다. 고조선 건국의 주체들은 해를 하느님으로 이해하고 '환님' 혹은 '한님'으로 부르면서 그들의 수호신으로 숭배했다. 그리해 고조선은 하느님을 최고신으로 하는 환웅족의 천신신앙과 민간신앙으로 전락한 곰 신앙과 범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신행체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정치지도층과 종교지도층 같은건
자연현상 · 지도권위 동일시 까닭

3. 고조선의 사상

고대사회는 종교적인 사회였다. 고대인들은 인간의 모든 일들과 자연의 모든 현상을 수호신의 의지로 받아들였다. 때문에 고대인들은 자신의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모두 신과 연관시켜 이해했다. 그들에게 신은 삶의 의지처였다. 그들에게 신은 하느님이었고 지배자들은 하늘의 아들임을 자처했다. 환웅족은 하느님을 수호신으로 한 부족이었다. 하느님을 수호신으로 숭배했던 환웅족은 곰을 수호신으로 숭배했던 고구려족과 범을 수호신으로 숭배했던 예족을 제압하고 자신의 휘하에 두었다. 특히 천상에서 내려온 환웅족은 마늘과 쑥을 견뎌낸 곰족과 통혼하면서 높은 신분의 지배질서를 형성했다. 마늘과 쑥을 견뎌내지 못한 범족은 그 아래의 신분을 차지했다. 그 과정에서 점차 종교의식과 혈연의식과 관료의식이 생겨나왔다.

종교는 말뜻 그대로 '으뜸가는 가르침'이자 도덕관념이다. '고조선' 조목이 전하는 것처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弘益人間]'의 정신은 고조선의 종교이자 사상이다. 해의 아들인 단군은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강력한 지배체제를 구축했다. 그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지상의 태백산(의무려산)에 내려온 환웅의 아들이었다. 해서 단군은 아버지인 '홍익인간'의 이념을 통해 다스렸다. 이것은 하늘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인본(人本)주의 세계관이었다. 모든 사람이 널리 이익을 얻어 다함께 행복한 사회, 공존공영을 위한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에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모두 주재하면서 "세상에 있으면서 이치에 맞게 교화했다"[在世理化] 이처럼 고조선 사람들이 추구했던 목표는 세상을 합리적인 사회로 진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은 하늘의 신성성을 지닌 환웅과 땅의 동물성을 지닌 곰녀의 결합을 통해 인간성을 지닌 단군을 탄생시켰다. 이것은 천상신과 지상신의 화합과 조화를 통해 새로운 인간신을 낳은 것이다. 즉 환인과 환웅과 단군의 세 단계, 환웅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받은 징표인 천부인 세 개(청동칼, 청동거울, 청동구슬), 하늘로부터 거느리고 온 무리 3000명, 환웅이 거느렸던 풍백과 운사와 우사의 세 명, 곰이 여자로 진화한 기간의 3*7일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삼'(3)의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고조선의 종교 사상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삼재(三才)를 하나로 통섭했고 그 하나는 다시 셋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3·1사상과 삼위일체 혹은 일체삼위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적색과 황색과 청색의 삼태극,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삼시(三時), 공간과 시간과 인간의 삼간(三間), 하늘(天/圓)과 땅(地/方)과 사람(人/角)의 삼재 관계가 모두 그렇다. 그리해 고조선 사상의 체계는 셋으로 시작해 하나로 나아갔고 다시 하나에서 시작해 셋으로 나아갔다. 이후 우리들은 이 셋이 하나가 되고 이 하나가 다시 셋으로 되는 반복과정을 전 방위에서 경험해 오고 있다.

고조선의 종교사상에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구체적인 도덕규범이 있다. 최치원의 '난랑비서'에서 보이는 것처럼 "집안에 들어서는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나아가 벼슬하면 나라에 충성하며, 함이 없는 일에 처하고 말이 없는 가르침을 행하며, 나쁜 일들 하지 말고 좋은 일들 높혀 하라"는 공자와 노자와 석존의 가르침들은 〈선사〉에서 말한 가르침들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불도유 삼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있었던 풍류 또는 풍월의 세계관은 공자와 노자와 석존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았다. 그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덕 규범이었고 존재이유였다.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한방(韓方)치료로
갑상선,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은
상담 받아 보세요.
난치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본인 또는 가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문의하십시오
한 솔 한 의 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0408-중-8421호

봉 신묘장구대다라니 행
철 야 기 도
기도성취도량 보현사에서
주지 대원스님의 집전으로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의 무명업장소멸과 소원성취 발원을
위해 다라니기도의 가피력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집 전 : 보현사 주지 대원스님
(봉정암, 홍련암, 금강사 천일기도 회향)
■ 일 시 : 매주 토요일 밤 9시~
■ 장 소 : 보현사 대법당
■ 문 의 : 보현사 033)745-1263
다라니기도의 가피력
다겁생의 무명업장소멸
병고액란 소멸, 소구소원성취
보 현 사 주 지 대 원 합장
강원도 원주시 태장1동 산 191-1번지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의식 의학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산 47번지 새절 의단원 054)535-987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010-3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부산무형문화재연수원(바라,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보유자 큰스님 직강
(범음범패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010-2563-5550 (속성반)
사 찰 행 사 (천도재 산신대제 수륙대제)
영축사(사주영가찾는법 속성지도)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바라작법무연수원

범음범패 학인 모집
매주 월요일
• 오후 3시-5시(재의식) 무료지도
• 오후 5시-7시(기초과정) 무료지도
* 사물,바라,나비무(별도지도)
대승불교염불원(경주 삼보사)
054)745-9822
010-4590-6366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전통의약비법전수(포교활동)
• 전수내용 : 악성관절염, 악성목허리 디스크, 악성골수염, 악성오십견, 갑상선 물혹, 편도종양 등으로 병원에서 완치가 어려운 분에게 해당 됩니다
• 전수희망자 : 포교에 뜻있는 스님(유료)
• 무료치료 : 아픈스님께 무료보시합니다
010-6285-3703

달마상 황금용주도 만능부적
심안으로 그린 액운소멸 만사형통 달마상과 황금용주도 만능부적을 인연있는 분께 드립니다
시각장애 1급 소승을 시봉할 분 기다립니다
달마 010-9003-7783
혜주 011-9957-2660

역학기문둔갑 (명리)
상담 비법전수
- 영업하고자 하시는 분 (수강즉시 바로상담 책임지도)
- 역학 : 명리, 기문둔갑으로 영가지도. 병방론 지도.
사주,신수,궁합,성명학
우울증,공포,빙의퇴마(직접상담)
묘불사 주지 직강
051)557-5075
010-2507-1042

의심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의심이란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근본요인이며, 사이를
떼어놓는 독이며, 서로의 생명
을 손상시키는 칼날이고,
서로의 마음을 괴롭히는 가시다.
-아함경-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수강생 모집
사주,궁합,택일, 성명학
사주학 초보에서 실전개업까지
최단기간 비법특강.
자격증 수여. 수강료 저렴.
수시접수
30년 전통 대한역학교육원
02)763-4566

신비의 약불기공 치유법
1. 전수회원 : 불자 남녀 누구나 가능
• 별도의 수련없이 주1회 4주완성
• 기에너지 발공 및 시술법
2. 체험회원 : 빙의,암,불면증,중풍,간경화, 악성피부염, 오십견,관절염 등 각종 난치성 질환 및 통증질환에 고통받는 분
원만한 증상 및 통증은 1회 체험만으로 즉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바람)
부산 금정구 남산동 55-31 한국약불기공연구원
010-4642-9672

문하생 모집(청학동)

역학, 풍수에
관심있는 분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남녀 초보 환영)
02)422-5804

영통철학 1개월 완성
비급전수로 1개월 만에
▷ 바로 상담가능
▷ 방문지도 가능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같이 더불어 운영하실 비구니 스님(30~40대) 스님을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도 모십니다.
▷ 구례 약천사
061)781-6328
017-621-6328

기도스님 모십니다
▷남양주
010-4015-949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청주
010-3691-5865

상 담 안 내
여러분의 영적세계는 편안하십니까?
신통력으로 운명 예견
고민해결
전화상담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자모사
010-2125-4684
(사주팔자)

같이 더불어 포교원 운영할 수 있는 40대후반 비구니 스님과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진주
055)752-6606
010-8390-6654
010-7154-6654

청암, 경봉 큰스님 묵적 구입하실 분
010-9878-1282

자격증 취득안내
포교사,법사,종사,대종사, 대사
불교문화신문 참조
한국불교지도자연합회 법광
010-3368-6075

돌맹이 기도
• 돌맹이를 손에 쥐고 하는 기도
☎ 032)664-0048 / 011-741-086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성남
011-279-002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보시금 120만원
강원도 양구
033)482-3573
010-3596-752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종무소직원(PC가능자)
모십니다
▷경기 평택
031)682-316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대, 숙식제공
(제주 서귀포 구룡사)
064)762-6324

포교원 인테리어 전문
간판. 썬팅
010-8678-4945

한번 맺은 인연은 영원히...
[제주도 관광]
불자가 모시겠습니다
25인승 버스로
편안히 모십니다
010-3696-2127
고영태

통증제거 기술교육
몸이 불편하신 스님들이나,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신 스님들에게 권해 드립니다. 이 기술은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기술인데 배워서 방편으로 활용하신다면 사찰 운영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개 강 :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오후 5시
- 교육기간 : 2주
- 수 강 료 : 약간 (사찰에서 숙식을 하실 분은 숙식비 있음)
- 또한 일반 보살님, 법사님, 처사님들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상담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사찰에서 본인을 초청하여 주신다면 어디든 찾아가서 실기 및 교육도 하여 드리겠습니다.
원공 선사 019-305-9138 / 사무실 팔보사 051-466-0450. 070-8811-0450

고(古)건물수리전문
신축건물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 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 락 처 : 053)964-0858 휴 대 폰 : 011-804-1748

영남 범음 범패
49재,예수재, 천도재등
불공해 드립니다
011-9370-4043

기도 부전스님과 절에서 일하실 처사님 모십니다
(부여)
011-424-5555

2012년 용띠해를 맞이하여 독거노인 무료급식 기금조성 재물과 행운의 용달마도 보급
010-8315-2100

기문둔갑 강의
• 학교 진학문제
• 사업자 성패문제
• 결혼문제
• 교통사고여부, 건강여부 등 기문으로 사주를 봅니다
개인지도 강의
010-4669-9770

빙의·귀신 퇴마법 전수
스님이 배우실분 특별우대 (100만원)

30년 빙의치료 대가
* 신병, 무병, 업병으로 인한 정신질환 우울증.
* 구병시식, 영가천도, 49재 영가장에 고통에 시달리는 분.
* 거듭실패로 되는 일이 없는 분, 불면증, 악몽, 이명, 가위눌림.
* 영가장애로 인한 고통 30년 빙의퇴치.
(www.jijangsw.com)
스님 되실분 (나이불문)
절에서 평생사실 분 / 장기요양
사찰등록 (토굴, 포교당, 작은암자도 환영, 분담금 없음)
(사)세계불교지정선원종 본찰 부처골 지장선원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8-1 전화 054)383-8553 / 011-9585-4908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가 '사람불사', '인간불교'를 선언했습니다
■ 참좋은요양병원(영천)
■ 참좋은이서중·고등학교(청도)
납골당과 행자원을 갖춘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납골당과 행자원을 갖춘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대웅사 법회 공지
대웅사(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는
2011년 11월 11일부로
정상 법회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031)403-3333 / 010-4225-0012

불 사 안 내
소승은 관음전 불사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 조성불사 원만성취를 위해서 백일기도중에 있습니다. 불사에 섭판하여 주실분에게는 경봉, 월하, 일붕 큰스님 글씨나 청강화백 그림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불사에 도움을 주시는 분에게는 평생 기도 축원하여 드리고 권선하여 주시는 분께는 10%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도중에 전화가 안될때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경북 안동 덕왕사 주지 원각 합장
054)853-3855. 010-9890-1237 농협 729-02-117074 유명혜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www.kyksb.co.kr
승복·전통복식 31년
김윤경승복·우리 옷
- 31년을 한결같이 전통복식 연구·보급
-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공장직영,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주요 품목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통복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고급 모직 장삼 195,000원 한정판매
-고급면(신제품) 적삼 150,000원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분
승복 관련 기술자 모집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02-495-7779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패션지원센터 903호
서 울 점 :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31 02-2265-2278
제 주 점 :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416-2 064-724-7999
입금계좌 : 농협 178424-56-036570 (예금주 : 김윤경)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양다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 법당 : 35평
- 요사 : 74평
- 부지 : 80평
- 가액 : 12억
- 바다가 보이는 경관 좋은곳

- 위치 : 서울
- 법당 : 40평
- 요사 : 120평
- 부지 : 62평
- 가액 : 17억
- 지하철역 100m 즉시 법회 가능

- 위 치 : 부산
- 법 당 : 30(목조)
- 요 사 : 70평
- 부 지 : 실평200평
- 가 액 : 6억 8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원효사상 깃든 천년고찰

- 총부지: 2,700평
- 전통법당 35평, 대종각
- 목조 요사채 및 산신각, 주차장 500평
- 부산시내 아파트 대단지, 산세최고
- 총가액: 13억

창원 신도시

- 총부지 : 300평(가용 1,000평)
- 목재법당 25평, 요사채 2동
- 산신각, 수백년 역사의 당산
- 산세(백년노송 다수), 바다전망 최고
- 총가액: 7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 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익 스 폴 트

http://www.kisbulsa.co.kr E-mail : kisblsa@naver.com

- **전국 사찰, 포교당 합니다.**
  사찰 양도,양수를 결정하셨다면 「**사찰 익스폴트**」에 의뢰하세요.
- 철저한 비밀 보장.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계약체결시까지 홍보.
- 매물 홍보의 최적화.(사진촬영)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 익스폴트**」를 입력하세요.

070-4154-4789 / 010-8980-4789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경북 문경 산북면 사무소 10분거리
- 임야 : 8만 4천평
- 용도 : 大 사찰및 복지시설
- 차도와 붙어있음
- 평당 : 9천원

010-2563-1398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 안양호계동 경수산업도로 대로변 재래시장입구
- 평당 : 24평, 5층 건물 3층
- 구조: 삼존불, 후불, 지장, 신중, 칠성, 용왕, 산신탱화, LED영가단(540), 인등(170), LED 인등 (300)
- 방2개, 주방, CCTV대 설치
- 보증금 1300만원에 월 4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010-8369-356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명석면 진주시내에서 10KM 거리
- 건물: 법당(목조, 토기와)20평 시멘트벽돌 슬래브 40평 38평 외 2동 (30평)
- 토지: 종교용지(850평)
- 임야: 4000여평 (수련원, 복지시설, 태양열 발전 납골당 등 적지
- 가액: 8억(현지답사 후 조절가능)

010-3822-456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서구 충무동 5층건물 2층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영단, 삼성단 (칠성, 독성, 산신, 용왕), 미분양소불 300불
- 종무소, 주지실, 친견실, 창고, 주방, 해우소
- 평수: 85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최신, 최고시설완비
- 시설비 2 천 9백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3869-6799

요양시설, 전원주택 절, 전통식품공장터

- 위치 : 경남 합천군(대구에서40분거리)
- 총평수 3,579평(계획관리지역)
  합천호인접 계곡경관이 아주수려한 지역
- 경내자연동굴(총폭2미터,길이 300미터)
- 동력전기있고 진입로 폭4미터 포장되어있음
- 요양시설,펜션,전통식품공장 ,절 건축허가 가능
- 가액은 2억5천만원(답사후 절충조정가능)

011-848-245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오창에서 13분거리,진천에서 15분거리. 병천에서 15분거리(아우내장터)
- 부지 2000여평
- 법당: 목조 30평, 관음전 25평
- 요사채 2층 건물
- 1층 건물 3동 (방 많고 큰절)
-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2억(절충가능)
- 꼭 사실분만 전화주세요

011-412-246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금천면
- 대지 150평
- 법당 15평, 산신각
- 대중방2. 공양주방
- 주방, 스님방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 :1억 5천만원

010-8585-1383

도심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자인면
- 대지 126평, 원룸포교원
- 전체건물 4동(70여평)
- 리모델링 잘 되어있음
- 황토기와표집(약16평)
- 법당옆 친견실도 있음, 조경이 잘되있고
- 노 비구, 비구니스님 노후대책이 보장됨
- 가액: 1억 7천만원(답사후 조절가능)

010-5317-773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 가곡면
- 대지 300평, 법당 40평
- 요사채 60평, 방 10개, 화장실 3개
- 뒤는 기도처로 좋고 돌탑 앞에는 계곡물이 흐름
- 산신각, 심야보일러 2개
- 가액: 2억(절충가능) (융자 3,000만원 포함) 다른용도변경가능

010-8993-3596

포교원안내

- 위치 :남양주 호평동, 역 인근
- 평수: 3, 4층 각 54평
- 가액: 4천만원에 165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516-5563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남부권역)
- 대중전 목재 3포 102.3㎡ (31평)
- 교통 최적지 양호 (국도변인접)
- 사찰주변 경관수려
- 가액: 13억 (약 4,000평)

011-257-4985
052)238-9001

포교원안내

- 대구시내(지하철역 입구요지)
- 3층에 3층 37평(옥상단독사용)
- 법당(수미단,후불,신중,산신,용왕,영단 최고시설)방1, 주방, 사무실, 화장실
- 보증금 4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절충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53)795-3666

암 자 터 안 내

가평 북면에 암자를
찾고 계시는 스님께서는
연락주세요
1,500평 평당 25만원
양도하겠습니다.

010-4847-7436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호계동
- 40평, 2층에 2층
- 옥상사용, 도시가스
- 법당 내부단청, 원목불단
- 후불탱화, 관음보살 석자
- (은행목불) 108소불(동불)
- 보증금 3천만원에 월 6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10-6582-2990

도심사찰안내

- 위치 : 부산 연산동 버스 정류장앞
- 아파트 주택밀집지역
- 정원수 멋지게 가꾸고 있음
- 대지 160평(3층건물)
- 은행 2억 안고 3억 양도

011-800-0005(주인)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
- 53평, 4층 건물 3층
- 법당아미타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 주방, 큰방3, 큰 대기실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2천 8백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10-4547-4915

포교원안내

- 위치 : 곤지암IC(경기도 광주시)에서 10분거리
- 대지 472㎡
- 건물 (철골조)
- 1층 140㎡ (등기외 60㎡)
- 2층 56㎡ (등기 외 12㎡)
- 1.2층 복층구조
- 가액 : 2억 5천만원

010-4330-5844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 10분거리에 5000세대 아파트단지
- 대지 340평, 건평 200평
- 시설완비
- 석간수(물)최고, 최고의 명당
-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 가액: 4억 3천만원 (대출 2억 됩니다)

017-787-6666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남부권역)
- 대중전 목재 3포 102.3㎡ (31평)
- 교통 최적지 양호 (국도변인접)
- 사찰주변 경관수려
- 가액: 13억 (약 4,000평)

011-257-4985
052)238-9001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시에서 10분거리
- 평수 : 535평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 주차장 30대 주차가능
- 가액: 6억 5천만원

010-9889-3188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남부권역)
- 대중전 목재 3포 102.3㎡ (31평)
- 교통 최적지 양호 (국도변인접)
- 사찰주변 경관수려
- 가액: 13억 (약 4,000평)

011-257-4985
052)238-9001

포교원안내

- 위치 : 대전 시내 요지
- 대전역 중구청 사이
- 건물 3층
- 법당1, 방2, 부엌 넓은 홀
- 실내화장실 2, 다락방1
- 깔끔 , 약 50평
- 삼불, 집기 살림 可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1200만원

010-2460-6906
016-606-5658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남부권역)
- 대중전 목재 3포 102.3㎡ (31평)
- 교통 최적지 양호 (국도변인접)
- 사찰주변 경관수려
- 가액: 13억 (약 4,000평)

011-257-4985
052)238-9001

균형이 깨진다면 곧바로 암흑의 시대가 올텐데

수리아의 검-V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모든 것을 기억하는 노인 (3)



삽화 · 김홍인

오묘한 빛깔의 하늘이었다. 연한 보랏빛의 비단을 두른 듯 신비롭기까지 했다. 크리슈나를 태우고 비데하로 향하던 가루다는 날개 짓을 멈추고 구름 위에 살포시 앉았다. 아무 말 없이 허공을 쳐다보던 크리슈나의 매끈한 미간에 미세하게 주름이 잡혔다. 마음에 들지 않는 무엇인가를 발견한 표정이었다. 그는 들릴 듯 말 듯 한숨을 쉬었다.

"도대체 나가세나님은 무슨 생각이신 걸까?"

가루다는 신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날개를 퍼덕였다. 크리슈나는 그런 가루다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며 시선을 아래로 돌렸다. 반달 모양을 한 녹색 대륙이 보였다. 지금 저 아래 비데하에서도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리라. 그는 또 다시 한숨을 쉬었다.

"아직 나의 시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내가 세상 밖으로 나오다니. 루드라와 나의 균형이 깨진다면, 곧바로 암흑의 시대가 찾아오지 않겠는가. 아무래도 그 전생이 없는 소년과의 만남은 잠시 미뤄두는게 좋겠어. 루드라가 나보다 먼저 새로운 나를 만난다면 앞으로의 일이 어찌될 지 알 수 없으니 말이야. 그러니 가루다야. 방향을 돌려 잠부로 가 보자꾸나. 그 새로운 나는 하필이면 거기에 살고 있거든. 칼키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이야."

가루다는 다시 금빛 날개를 활짝 폈다. 순식간에 보랏빛 하늘이 눈부실 정도로 밝아졌다. 자신의 옷자락을 정성스레 매만지던 크리슈나가 다시 입을 열었다.

"과연 어떤 만남이 될까? 기대가 되지, 가루다?"

하늘을 덮은 듯 보이던 보랏빛이 일렁거리기 시작했다.

한편, 노인의 손을 잡고 있던 무니 역시 보라색 하늘이 바람에 날리듯 펄럭이는 신비로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말해줘, 영감. 도대체 여긴 어디야? 어떻게 해야 내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지? 난다와 칸타카가 있고, 말썽꾼 데비가 있는 곳으로 말이야."

"너는 내가 그걸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그럼 아니야? 영감이 날 여기로 데려 왔잖아! 아까부터 왜 자꾸 딴소리야?"

"너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운 건 내가 맞단다. 하지만 이곳까지 오게 된 의지는 바로 너의 것이지, 그 누구의 것도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여길 오고 싶어 했다는 거야? 나도 모르는 내 의지가 있다는 소리냐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너는 네 마음이 내는 소리를 모두 다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냐?"

"마음이 내는 소리?" "그래, 마음이 내는 소리. 네 마음이 그곳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냈던 소리를 떠올려 보려무나. 그럼 네가 떠나왔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마지막 순간에 들었던 마음의 소리?' 무니는 정신을 되찾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기억을 되살려보려 애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금방 또 다시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제는 머리까지 아파왔다. 무니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렇게 마음을 급하게 먹지는 말거라. 분명 생각이 날 테니."

노인은 괴로워하는 무니를 위로하듯 말했다.

"지금은 이 장면이나 눈 속에 잘 담아두려무나. 저렇게 신비로운 빛깔의 하늘이 마치 거대한 장막처럼 펄럭이는 것이 신기하지 않으냐?"

무니는 잡고 있던 노인의 손을 그제야 놓았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럼 이것만이라도 알려 줘. 도대체 여기는 어디야?"

노인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여기?"라고 되묻자, 무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은 말이다. 가장 처음의 시간이란다."

"가장 처음의 시간? 우리가 지금 있는 여기가 시간이라고?"

"그래.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시간, 서 있는 이곳도 시간. 우리는 지금 시간에 찍힌 하나의 아주 작은 점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지."

"시간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발을 디딜 수 있는 곳도 아니야. 그런데 어째서 여기가 시간이라는 거지?"

"말하지 않았느냐. 이곳은 가장 처음의 시간이라고 말이야. 마치 바다와 강의 출발점과도 같은 곳이지. 시간은 여기서부터 출발해 앞으로 또 앞으로 흘러갈 테니 말이야."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고 있던 무니는 갑자기 머리가 화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래. 그건 분명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장면들이었어. 내가 암흑 속으로 떨어졌을 때는 아직 시간이라는 것이 생겨나지 않은 상태였던 거야. 시간의 시작, 그리고 세상의 시작…."

무니는 낮게 중얼거렸다. 노인은 그런 무니를 여전히 인자한 표정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자. 어떠냐? 이제 이곳에도 흥미가 생기지?"

무니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말이야.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에 와 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 그것도 역시 내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야 알 수 있는 거야? 그때 내 마음이 냈던 소리를 말이야."

"그렇단다. 그 소리를 떠올린다면 지금 이 장면들의 이유를 알게 되지."

"그럼 그건 세상의 시작과 관련 있는 소리겠네? 오래 전에 유리 영감이 말해줬어. 시작은 곧 끝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이야. 그럼 이건 다른 세계의 끝이기도 한 건가."

무니는 유리 영감이 예전에 해준 이야기를 떠올렸다. 오로지 마지막 순간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떠오른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졌다.

그때 무니는 난다와 함께 유리 영감의 오두막에 앉아있었다. 조그만 창문 밖으로 눈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문자 공부를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이면 유리 영감은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날도 그랬다.

"이 세계의 탄생에서부터 종말까지, 그 과정을 쉽게 상상할 수는 없겠지. 인간의 짧은 생에 비한다면, 그것은 영원이나 마찬가지일 테니 말이야. 그러니 세계의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갔다가, 어느 지점인가에 찾아올 끝을 상상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란다. 생각해 보렴. 유한한 인간이 그 영원과도 같은 세월을 알 수 있으려면, 우선 윤회의 바퀴 가 쉼 없이 굴러가는 동안 그는 모든 기억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야하겠지. 다음으로는 그 바퀴가 종말의 시간까지 멈추지 않고 굴러가기만을 바라야 할 테고 말이야. 그런데 아주 오래 전에, 어떤 사람이 위대한 현자 리시에게 이 시작과 끝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단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마."

무니와 난다는 화덕에서 타다닥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밤을 바라보며 노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오래 전, 한 마을에 지혜로운 자가 살고 있었단다. 그의 얼굴빛은 상아처럼 희고 윤기가 흘렀으며, 눈동자는 검고 깊었지. 반듯하게 이어지던 콧날은 끝에서 살짝 뭉툭해졌고, 수염에 거의 가려진 입술색은 붉었어. 그는 어느 한 부분도 모난 데가 없이 부드러운 생김새였단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목소리는 마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아름답기도 했지. 사람들은 언제나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즐겼어.

그런데 그 마을에는 이 지혜로운 자를 너무나 존경하여 그와 같이 되겠다는 청년이 있었단다. 청년은 다른 마을 사람들처럼 산이나 들에서 일하지 않았고,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지도 않았어. 그는 늙은 아버지가 걱정할 정도로 늘 혼자였으며, 낮과 밤이 바뀌는 이유에 대해 골몰해 있기를 즐겼지.

어느 날, 지혜로운 자가 숲 속에 앉아 마을 사람들과 문답 시간을 가졌을 때의 일이란다. 늘 큰 나무 뒤에서 몸을 반쯤 가리고 있던 그 청년이 처음으로 질문을 했지. 그때까지 청년은 그의 질문이 지혜로운 자의 맘에 들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거든.

'현자여, 이 세계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현자는 자신에게 질문한 청년의 얼굴을 잠시 쳐다보았어. 마을 사람들 역시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듯 청년에게 시선을 모았지. '자네는 처음 보는 얼굴이군. 파종을 할 때도, 추수를 할 때에도, 잔치를 하거나 장례를 치룰 때에도 말이야. 자네는 이 세계의 탄생과 종말에 대해 왜 알고 싶은가?'

그러자 청년이 말했지. '네. 저는 씨앗을 뿌려 곡식을 거두는 일이나, 사람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광대한 우주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 뿐 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현자는 오히려 이렇게 되물었어. '흥미롭군. 자네는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거 같아. 말해보게. 자네는 슬프지 않은가, 고통스럽지 않은가? 혹은 행복을 느끼지 않는가?' 청년은 대답했지. '물론 저도 때로는 슬픔을 느낍니다. 무시로 찾아오는 고통에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순식간에 행복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한숨을 쉽니다' 라고 말이야."

난다의 눈이 반짝거렸다.

"그래서요, 할아버지? 현자는 뭐라고 답했나요?"

"글쎄. 뭐라고 했을 것 같으냐?"

유리 영감은 온통 밤에만 정신을 쏟고 있던 무니에게 갑자기 질문을 던졌다.

사 찰 양 도

■ 대전에 소재한 사찰로 토지 약 1800평, 신축 4층 건물로 높이는 일반 건물의 2배정도, 연건평 560평, 10여개의 홀로 구성됨. 주차시설 80대 이상 가능, 주변에 맹지 많음.

■ 대로변에 위치, 톨게이트에서 5분거리, 전철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세종시 15분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음.

■ 입구는 사도이고 주변이 숲으로 독립된 공간이며 청정지역임.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있음.

■ 포교당, 불교대학, 명상센터, 교육 · 연수원, 갤러리, 장례법당, 납골당 등으로 적지임.

■ 계룡산 아래 위치해 소나무 숲으로 주변 경관이 좋고, 등산로와 약수터 등이 조성되어 있음.

■ 양도 의향이 있으니 011-455-1080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갓길 호조건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땅가격 : 30만원)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중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액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급 안내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 찰 화 재 보 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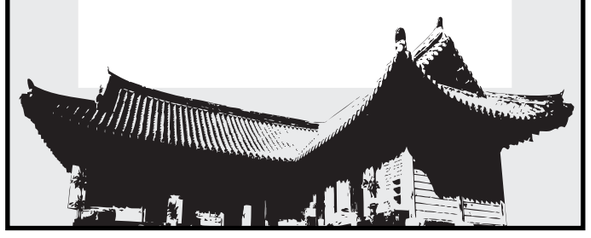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산사의 종소리를 들어보았는가

종소리에 담긴 메세지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

조선시대 한문4대가(漢文四大家)의 한 사람인 택당(澤堂) 이식(李植)의 〈택당집〉 5권을 보면, 낙산사를 방문해서 지은 시(詩)가 있는데, "경어자후승최발(鯨魚自吼僧催鉢)"이라는 부분이 있다. 이는 "고래 큰소리 내어 스님들 발우공양 재촉하네"라고 직역된다. 의역(意譯)할 시에는 "범종소리 스님들 발우공양 재촉한다네"라고도 할 수 있다.

범종(梵鐘)은 목어(木魚), 운판(雲版), 법고(法鼓)와 더불어 불전사물(佛殿四物)에 속하는 장엄구이다. 원래는 부처님께서 제자운집(弟子雲集)이나 독경(讀經), 포살(布薩)에 쓰시거나, 천신(天神)의 하강(下降)을 지시할 때 사용하시던 것이라고 한다.

요즘에는 사찰의 종루에 걸고, 당목(撞木)으로 쳐서 조석예불의 첫 의식용으로 사용하거나 대중을 모으는데 쓴다. 종을 치는 이 당목은 고래의 모습으로 조각한다. 그 이유는 용뉴(龍鈕) 때문이다. 범종 상단에 뚫린 구멍인 음통(音筒) 옆에서 종을 매달 때 사용하는 이 용뉴는 용생구자설(龍生九子設)에 의하면, 용의 아홉 번째 아들인 포뢰(蒲牢)로 마음이 약하고 여린데다, 고래를 특히 무서워해서 놀라 큰소리를 지른다고 한다.

범종의 중대(가운데 부분)에 있는 네 군데 사각 곽 속의 돌기모양의 튀어나온 부분을 오랫동안 유두(乳頭, 젖꼭지)라고 불러 왔다. 최근에는 그 명칭을 바꿔서 연뢰(蓮蕾, 연꽃봉오리)라고 부르고 있는데, 적절한 명칭이라고 생각한다.

조석(朝夕) 종성(鐘聲)에 보면, 아침에는 "원컨대 이 종소리 법계에 두루 퍼져나가서, 철위산 저 어두운 지옥은 모두 밝아지오며, 삼악도 온 고통을 여의고 칼산 깨뜨려지고, 일체의 온 중생이 깨달음 얻게 하여주소서"라고 한다.

저녁에는 "종소리 듣고 번뇌를 끊고 지혜를 길러 보리가 이뤄지고, 지옥과 삼계에서 벗어나서 부처를 이루어 중생을 모두 건지오리다"라고 한다.

범종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그 소리를 듣고 지옥이 밝아지고, 무너지고, 모든 중생의 번뇌가 끊기고,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네 개의 연곽(蓮廓)마다 각각 9개 연뢰(蓮蕾)가 있어 모두 36개이다. 종의 본체의 숫자를 합하면, 37이라는 수가 나온다. 삼십칠조도품(三十七助道品)이 생각나게 하는 법수(法數)이다. 밀교(密敎)의 금강계 만다라의 37분의 불보살인 제존(諸尊)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

즉, 범종은 비로자나불의 현신(顯身)이기에, 종소리는 곧 부처님 법문이 되어 깨달음을 야기하는 것이다. 즉, 중앙과 사방의 불보살님들의 중생을 향한, 시방을 향한 무한한 법문이 되어 맥놀이 현상(종의 진동이 다른 두개의 소리를 나오게 만들어 서로 간섭하고 엉키며 소리가 멀리까지 가는 현상. 종의 상단과 하단의 두께를 다르게 만들어 낸다)을 통해 중생(하단)과 부처(상단)가 하나라는 깊은 진리를 소리로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 한다.

목어 운판 법고와 함께 사물인 범종은 제자운집 · 독경 · 포살 등에 사용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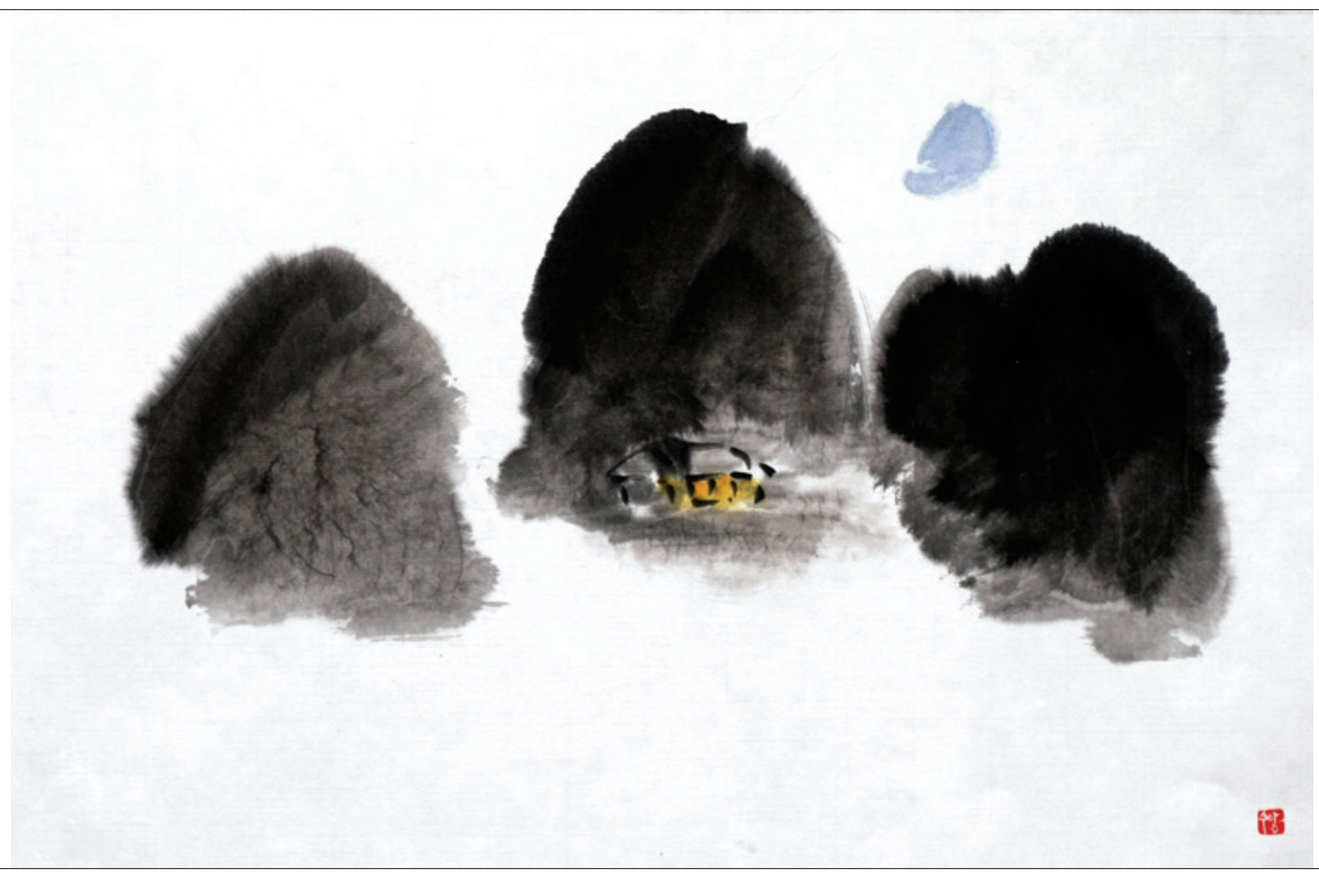
범종 소리는 비로자나불 현신이자 법문 중생과 부처가 하나라는 깊은 진리 표현

박남수(朴南秀) 시인의 '종소리'라는 시를 읽으며, 짙어가는 가을에 안개 자욱한 먼 산의 절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싶다.

"나는 떠난다. 청동(靑銅)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振幅)의 새가 되어, /광막한 하나의 울음이 되어, /하나의 소리가 되어, //인종(忍從)은 끝이 났는가. /청동의 벽에 /'역사'를 가두어 놓은 /칠흑의 감방에서. // 나는 바람을 타고 / 들에서는 푸름이 된다. / 꽃에서는 웃음이 되고, / 천상에서는 악기가 된다. //먹구름이 깔리면 / 하늘의 꼭지에서 터지는 /뇌성(雷聲)이 되어, / 가루 가루 가루의 음향(音響)이 된다."


동화사 포교국장

김양수의 **선화(禪畵) 읽기**



고요


한국화가(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

풀벌레들의 울음소리 애절한 밤입니다.
밖의 것들을 하나 둘 거두워 들이고 나니
마음의 여백이 생겨납니다.
안이 풍요로울 때 삶이 고요하고 기름집니다.

한국의 **선시감상** 조선 무용수연 선사의 '삼가 백암 스님께 올림[謹呈栢庵]'

칼날 가슴 향해도 맘 바꾸지 않으리

丈夫一委其身後 (장부일위기신후)
白刃當胸不易心 (백인당흉불역심)
況乎世界伊麼熱 (황호세계이마열)
誰外庭前栢樹陰 (수외정전백수음)

장부가 한번 그 몸을 맡긴 후에는
흰 칼날 가슴을 향해도 마음 바꾸지 않으리.
더구나 세계가 이렇게 뜨거운데
누가 뜰 앞의 잣나무 그늘을 외면하리요.

무용수연(無用秀演; 1651~1719) 스님의 이 시는 "옛 성현의 금강 선문의 자리를 빼앗을 사람"이라 한 백암 스님께 드리는 스님의 굳건한 의지가 담겨있다.

이 세상은 생로병사와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거나 원수와 만나고, 얻으려고 하나 얻지 못하고 온갖 욕망의 불꽃이 치성하는 괴로움의 바다이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우리의 삶을 '불타는 집'에 비유했다. 우리는 욕망에 불타오르고 있다. 남보다 잘살려는 욕심에 불타오르고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명예욕에 불타오른다. 사랑받기를 바라는 애욕에, 오래도록 살려고 하는 수명에 대한 집착에 불타오른다. 이 세계가 욕계인 이유다.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세계, 치성한 욕망의 불길이 꺼져버린 평온한 상태를 해탈이라 하고 열반이라고 한다. 이 열반에 이르기 위한 길로 부처님은 팔정도를 제시했고 역대 조사스님들은 1700공안을 제시했다.

불타는 대지에서 동동거리는 사람은 누구나 시원하고 맑은 그늘을 외면할 수 없다. 그렇다.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뜰 앞의 잣나무'라는 화두를 타파하면 잣나무가 가져다주는 시원한 그늘을 맛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잣나무는 어디 다른 곳에 있지 않다. 불타는 집의 뜰에 서있다. 둘이 아닌 도리를 보인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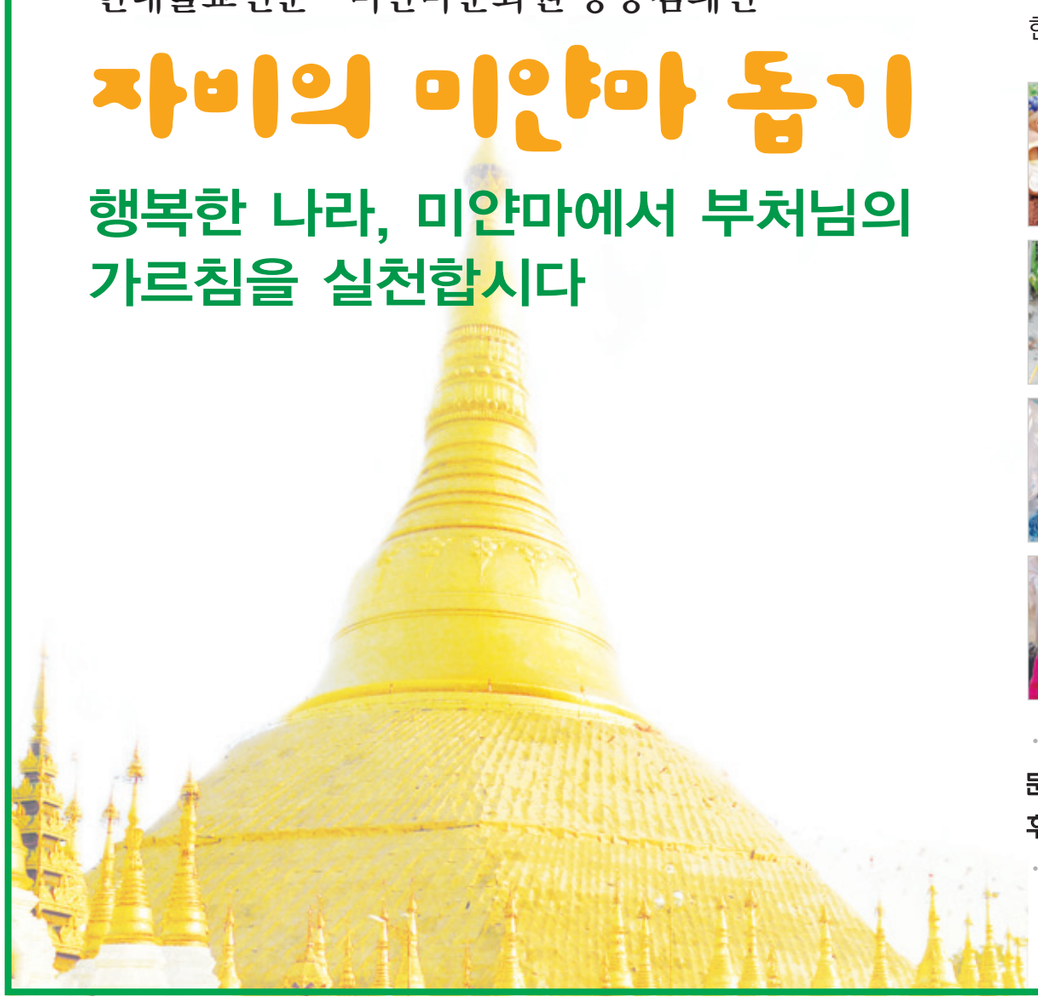
이 불타는 것을 어떻게 꺼야 하는가? 깨끗이 치워버려야 한다. 땔감으로 사용되는 온갖 번뇌와 무명을 남김없이 비워야 한다. 어떻게 비울까? 내 안에 불타오르는 욕망이 나를 괴로움의 바다로 밀어 넣고 있음을 바로 본다면 날카로운 비수가 가슴에 들어와도 물러서지 않는 신심이 생기기 마련이다. 스님은 이 정견(正見)과 신심으로 수행해 훗날 백암 스님의 법을 잇게 되었다.


원법 스님(운문사 중강 · 조계종 교수아사리)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대행 스님

모든 것 주인공에다 탁 집어던지고 웃으면서 사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 여러분은 그것을 거짓으로 알지 말고 진정코 거기다 맡기고 진정코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마음, 물러서지 않는 마음, 믿는 마음으로 행하실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납득이 되고 바로 감응이 되고 그것이 체험이 되는 겁니다. 체험이 되면 그것이 바로 반야줄을 잡는 법이요, 여의주를 잡는 법이요, 바로 여의주를 잡고 올라가면 자기가 여의주와 둘 아니게 되는 법입니다. 여의주, 마니주, 구슬! 이 구슬이 바로 한마음입니다, 한마음! 이 우주 법계가 다 하나로 돌아가요, 하나로. 그런데 하나로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본다면 하나로 돌아가는 것조차도 없어요.

이거 보세요. 이 몸을 한번 보세요. 여러 생명들이 같이 돌아가는데 아니, 하나로 돌아갈 게 어디 있나요?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걸요. 하나로 돌아갔느니 안 돌아갔느니, 이것이 먼저니 이것이 나중이니 할 수도 없죠. 그냥 마음이 말입니다, 닥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그대로 공동으로, 그 가운데에서 그대로 높고 낮지도 않게, 물질세계 정신세계 따지지도 않은 채 그대로 중용이에요.

보세요. 전자와 전자를 양쪽에 쥐고선 불이 들어오게 하려고 들이댔단 말입니다. 전자줄은 불 켜는 데 등잔과 같은 거죠. 그렇게 전자줄을 갖다 대 가지고 불이 켜졌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 한생각에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도 "내 고깃덩어리를 믿지 말고 너부터 먼저 알아서 네 마음을 알면 내 마음도 둘 아니게 알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광대하고 크다는 것을, 그러면서도 우주 법계를 티끌 하나에다가 집어넣어도 자리가 작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됩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크면서도 작고, 이렇게 작으면서도 광대무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찾아오는 분마다 "아이고! 병원에서 이렇게 버림을 받고 나가게 됐습니다." 이러는데, 세상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안됐지만 어떡합니까? 그거를 다 자기 주인공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놓은 사람들은 그래도 다 자기 몸을 자기가 살렸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일체 만물만생이 다 스승 아닌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내가 이 세상에 나서 그거를 모두 봤으니까 배웠고 알았고 그랬지, 그것들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알고 배웠겠습니까? 그러니 내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죠. 내 벗 아닌 게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도 때로는 업신여기고 때로는 못났느니 잘났느니 하고 때로는 깔보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두가 생명이 있는 거고 모두가 마음들이 있는 거고 모두가 삶이 있는 거니까요. 부처님 법이 따로 높게 훌륭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훌륭하게 해 나가신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고 우리들의 법이자 부처님 법입니다. 꼭 그렇게 실천을 해 보십시오.

자녀들도 그렇고, 공부를 안 하고 가출해서 잘못되는 애들도 있고 지금 천차만별로 잘못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해서 모두 그저 밝게 사십니다. 이거 보십시오. 들어오고 나가는 전력은 둘 아니나 전구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집 식구들이 '자식이다 부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정신계에서는 가설이 된 거예요. 가설이 된 거란 말입니다. 부모다 자식이다 형제다 하는 게 가설이 된 거죠. 가설이 됐으니까 내가 내 주인공에 불을 켠다면 거기까지도 불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놈의 새끼, 왜 나가서 공부도 안 하고 저렇게 나쁜 짓만 하고 나가서 못된 짓만 하고 이러느냐." 하고 들어오면 욕을 하고 때리기까지도 하는데 그런다면 점점 더 못되게 굴다가 아예 마구니가 돼 버려요. 그러나 "얘, 어디 가서 배고프지 않았냐? 난 너 걱정 많이 했어." 하면서 따뜻하고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으로써 부드럽게 싸 준다면, 그리고 거기에 맡겨 놓는다면 바뀝니다. 마음이 잘못된 거는 마음으로 고쳐야지 마음이 잘못된 거를 말로 고치려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잘못돼서 행이 잘못되고 말이 잘못되고 하는 거지요. 강도질도 하고 깡패짓도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마구 살고 남의 것을 뺏기도 하고 일도 저지르고 하는 거지, 그 마음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마음에서 다 나온 거니까 마음으로 마음을 고쳐야죠. 그래서 내 자식이 그럴 때는 '주인공, 저 뿌리나 내 뿌리나 둘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해결할 수 있잖아.' 할 때 거기까지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 불이 들어와서 회개를 하게 되죠. 마음으로 고장난 거기 때문에 마음으로 들어가서 불이 켜지니까, 환하게 밝아지니까 더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여기 대중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하시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형제를 이끌어 나가고 자식을 이끌어 나가고, 또는 고집이 센 부모나 그런 분들도 서로가 고쳐 나가고 잘 이렇게 의합해서 잘된 분이 많죠. 그렇게 해 나가시는 분들은 정말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때는 그러죠. "잘났든 못났든 말이야, 이 공부 하는 데 돈이 드니 걱정이야, 누가 사랑을 하지 말라니 걱정이야, 재산을 누가 뺏어 가니 걱정이야? 왜 못해?" 이렇게 합니다. 하하하….

회사를 해 나가시면서 이 공부 하는 분들을 보면요, 요새 회사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하하하…. 노사분규가 일어난다고 그러던가 뭐가 일어난다고 그러던가. 그리고 직원들이 내 일같이 제대로 해 주질 않는대요. 그런데 이 공부 해 나가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아주 감쪽같이 해 나가요. 왜냐하면 기계도 바로 주인 것이고 그 직원들도 주인이 한마음으로 이끌어 가고, 전부 주인이 하는 거지 자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도 하나도 없고 자기 것도 하나도 없죠. 기계조차도 '너도 생각이 있잖아. 주인공은 둘이 아닌데, 네가 네 일 하는 건데 잘해야 하잖아.' 하니까 다 닳아서 고장이 나고 그러던 것도, 검사하러 나왔는데 검사를 다 하고 난 뒤에 나가니까 그게 털컥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다 닳아서 끊어지게 생겼더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고요. 꽃도 생명이 있습니다. 남의 마음을 읽어요. 돌도요. 그냥 우뚝우뚝 선 건 줄로만 아십니까? 참 재미있어요. 때로는 모습 붙이고 다니는 게 좀 거추장스럽기도 하지만요, 또 때로는 재밌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고가 많아서 못 산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고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거예요. 고가 어디 붙을 자리가 있어요? 보세요. 지금 지구가 쉴 사이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살림살이도 지금 쉴 사이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놓고 또 딛고 또 놓고 또 딛고 이렇게 걸음 걷는 것과 같이 그냥 우리는 수레가 돌아가듯 돌아가요. 정맥 동맥이 자나깨나 돌아가듯 말입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업 붙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몸뚱이 속에 업식이 다

☞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정진하려면 내 내면의 곳처를 토굴 삼아 정진하세요

☞ 29면에서 계속

들어 있으니까 나오는 제자리에다가 되놓으면 돼요.

여러분한테서 여러분이 형성돼서 여러분이 살고 있지 딴 놈이 살려 줍니까, 뺏어 갑니까? 그러니 여러분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여러분 한마음 속에다가 되놓고 '응,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해!' 하고 탁 집어던지고선 나는 슬슬 웃으면서 그냥 슬기롭게 살지 뭣 때문에 신경 쓰고 아둥바둥하고 그럽니까? 참 이상스러워요. 왜 이상스럽게 삽니까! 돈도 말입니다, 우리가 종이로 돈 만들어서 소꿉장난하죠?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허! 씻고 닦고 하던 내 몸뚱이도 지수화풍이 다 거두어 가는데 뭘 짊어지고 다닙니까. 내가 필요할 때에 틀림없이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내가 쓸 때에 궁색하지 않게, 쓸 때에 꼭 쓰게끔만 된다면 그거는 이 황자 부럽지 않은 거예요.

허허, 여러분도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우리 절에 울고불고하면서 왔어요. 애가 다섯인데 남편은 죽었어요. 전세를 들었다가 다 까먹고 사글세로 들었는데 사글세조차 다 까먹었으니까 그 집에서 나가라고 그러죠. 나가라고 그래서 추녀 밑에다가 짐을 다 싸 놓고서는 울면서 왔어요. 비는 부실부실 오는데 말입니다. 허허!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때에 내 주머니에 돈이 있었으면 그냥 팍 줬을 텐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랬죠. '네가 있다면 네가 줄 것이고 네가 없다면 못 줄 거야. 네가 있으면 줘!'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눈이 그냥 확 나오더라고요. 애들을 데리고 비가 내리는 그 가을에 그렇게 된 걸 보니까요. 그랬는데 울면서 그냥 갔죠, 인제.

그리고 조금 후에 누구 집에 뛰어가서 전화를 했는지 전화를 했는데요, 비를 맞고 울면서 오는데 둘둘둘둘 말린 신문이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지낼 때 뭐 막기라도 한다고 그 신문을 들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펴 보니까 거기 돈이 잔뜩 들어 있었다잖습니까! 하하하….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면 좋으냐고, 경찰서에 갖다 주느냐 어쩌느냐 그러기에 "아니다. 부처님이 주신 거니까, 그냥 너 준 거야. 너 준 거니까 네가 방 얻어." 그랬죠. 하하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거짓으로 알지 마시고, 이론으로나 학술로다 대단하게 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모르더라도 하나하나 실천을 하면서 내가 체험을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자기를 자기가 낮추세요. 낮추시면서 항상 더불어 같이 한마음으로서 한 형제로서 한 부모 자식으로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아리따운 마음이 바로 사랑보다 더 진한 자비입니다. 우리가 사랑 사랑 그러는데 사랑이 뭐 말라빠져 죽었어요? 조금만 저거하면 '흥, 사랑 언제 했더냐!' 하고선 그냥 배신들을 하고 그냥 온통 죽어라 하고 때리고 이러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먹어도 같이, 한 그릇에다 숟가락을 열 개를 꽂고 먹더라도 같이 떠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자비이고 사랑이에요.

부처님 법을 별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곤충에서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일체 만물만생이 한마음으로 돌아간다는 뜻에서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생긴 겁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뭉쳐서 돌아가는 그 자체를 여래라고 이름 지은 것이지 개별적인 하나가 깨쳐서 부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빠짐없이 그 속에 다 같이 있으니까 다 같이 한마음으로써, 우리가 이름해서 부처라는 것도 한번 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해 보세요. 정말입니다. 모두 딴 사람들더러 물어보세요, 안 그런가. 그럼 질문 있으면 질문 들어 보죠.

> **여러분이 이 마음도리를 이론이나 학술로다 대단하게 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모르더라도 하나하나 실천을 하면서 내가 체험을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낮추세요. 낮추시면서 항상 더불어 같이 한마음으로서, 한 형제로서, 한 부모 자식으로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아리따운 마음이 바로 사랑보다 더 진한 자비입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이 보시금 말입니다, 오늘 소년 소녀 가장들을 위한 보시금을 바로 여러분 자녀들한테, 못 내고 못 배우고 못 먹고 못 입고 하는 그 자녀들한테 준다고 생각하시고 듬뿍듬뿍 들 넣으십시오. 만약에 듬뿍 내고도 냈다는 생각이 없이 내 자식을 도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듬뿍 갈 것입니다.

질문자1(남): 큰스님의 감로법에 환희심이 일어나 이 법회장에 꽃비가 내리고 천상 음악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천 리 머나먼 길 이렇게 오셔서 저희 부산 불자들을 위하여 법좌를 열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 수행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세 가지 의정을 하나하나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 바라겠습니다.

스님께서는 떡 하나를 만 사람이 나누어 먹어도 떡 하나가 되남는 도리를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떡 하나를 나누어 먹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남는지요? 이 도리를 저희가 쉽게 이해되도록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그 말은 본래 쉽게 하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씨앗 하나를 가지고 만약에 그 씨앗을 심어서 곡식이 생겨서 모든 사람이 다 먹고도 그 씨앗이 되남아서 그 이듬해에 또 먹고 또 먹어도 또 남고, 또 먹어도 또 남고 하듯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로 비유를 해서 그렇지 '떡 하나 가지고 일체 중생이 다 먹고 되남는다.' 하는 뜻은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아실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은 (물컵을 들어 보이시며) 이 컵을 컵으로만 보시는데 이 컵을 봤다 하면 컵 아닌 컵이 있습니다. 컵 아닌 컵이요. 그 컵이 아닌 컵은 우주를 담아도 담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체 만물만생을 다 먹이고도 되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공부를 해 보셔야 이 뜻을 감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답을 뭘로 했느냐 하면 씨 한 톨로 얘길 했습니다. 씨 하나를 심어서 먹고 그 씨가 되남으면 또 먹고 이렇게 하게끔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얘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무(無)의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광대하고 무변해서 정말 여러분은 그걸 감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셔서 그 모든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정말 나도 좋고 일체제불 전에도 아주 좋을 겁니다.

질문자1(남): 두 번째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행을 함에 있어서 마음을 모으고, 모았다면 비우고, 비웠다면 일임하라고 설법을 하셨습니다. 저는 스님의 이 법문을 통해 마음을 모은다는 것은 간절하게 '주인공!' 하는 것이며, 비운다는 것은 '주인공의 뜻으로' 라고 되놓는 것이고, 일임한다는 것은 '주인공이 이끌어라.' 하고 한생각 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지 가르침 바라겠습니다.

큰스님: 네, 아무렇게나 하시더라도요, 그 구멍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저 믿고 거기다가 모든 거를 놓으세요. 내가 번뇌가 있느니 답답하니 이런 것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그놈이니까 답답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놈이 아닙니까? 그리고 안되게 하는 놈이 그놈이니까 되게 하는 놈도 그놈이죠. 고 구멍밖에 없어요. 과거와 현실과 미래가 통할 수 있는 구멍은 고 구멍밖엔 없어요. 딴 구멍에는 과거 미래 현재가 통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고 구멍밖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나오는 게 과거로 인해서 나오는 거니까 과거로 돌아가야만이 현재에 다가오는 모든 걸 타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미래로 돌아가고 현재에 모두 걸림 없이 그렇게 생활을 하려면, 그리고 대치를 하려면, 대응하려면 모두가 거기다 그렇게 놓지 않고는 안 되죠. 즉 말하자면 주인이 내 종 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종 문서를 맡겼다 뺏었다 맡겼다 뺏었다 한다면 종 문서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거기다가 놓고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1(남): 세 번째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가 평등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어찌 남녀가 둘이겠습니까? 또 남녀가 평등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조계종의 종풍은 아직도 비구 비구니 하며 둘로 나누어 비구니 스님을 차별하여 비구니 스님의 대중 설법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님께서는 개의치 아니하시고 매년 국외와 국내 대법회에서 설법하고 계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부처님께서는요, "남녀가 둘이 아니니라. 일체 만물이 둘이 아니거늘 어찌 남녀가 둘이겠느냐." 이러셨어요. 그건 왜냐하면 모습은 다를지언정 어찌 마음이야 다르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반면에 말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까닭도 알아야죠. 천백억화신으로 응신이 돼서 모든 중생들에게 나툴 때, 때에 따라서는 남자도 됐다가 때에 따라서는 소도 됐다가 때에 따라서는 작부도 됐다가 때에 따라서는 여자도 됐다가, 어른도 됐다 애도 됐다 늙은이도 됐다가 이렇게 천차만별로 화해서 나투는데 어떤 거 될 때에 여자라고 하며 어떤 거 될 때에 부처라고 하며 어떤 거 될 때에 남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얕은 소견으로 모습만 보고 여자니 남자니 이렇게 규정을 짓는 것은 안 되니까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난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여자로 보든 남자로 보든 무슨 탓할 게 있습니까.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거를 탓을 합니까. 그냥 주어지는 대로, 가는 거 잡지도 않고 오는 거 막지도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 걸음 걷는 대로 그냥 걸어가는 건데 뭐 그렇게 트집이 많습니까? 여자라고 업신여긴다고 한다니 말입니다. 허, 그것도 때에 따라서는 여자는 어머니도 될 수 있고 남자는 아버지도 될 수 있는 거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저 한마음으로 전부 좋게 살아야죠. 하하하….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질문의 자리가 누생의 은덕으로 인한 것이라 생각하고 대장부 대자유인이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큰스님: 예.

질문자2(남): 스님께서는 토굴이나 조그마한 암자 또는 자연 속에서 주인공을 찾아서 고행과 용맹정진으로써 득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가불자들도 선방이나 또는 선사의 지도 없이 수행을 해도 득도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득도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면 수행하는 데 지표로 삼아서 앞으로 열심히 수행을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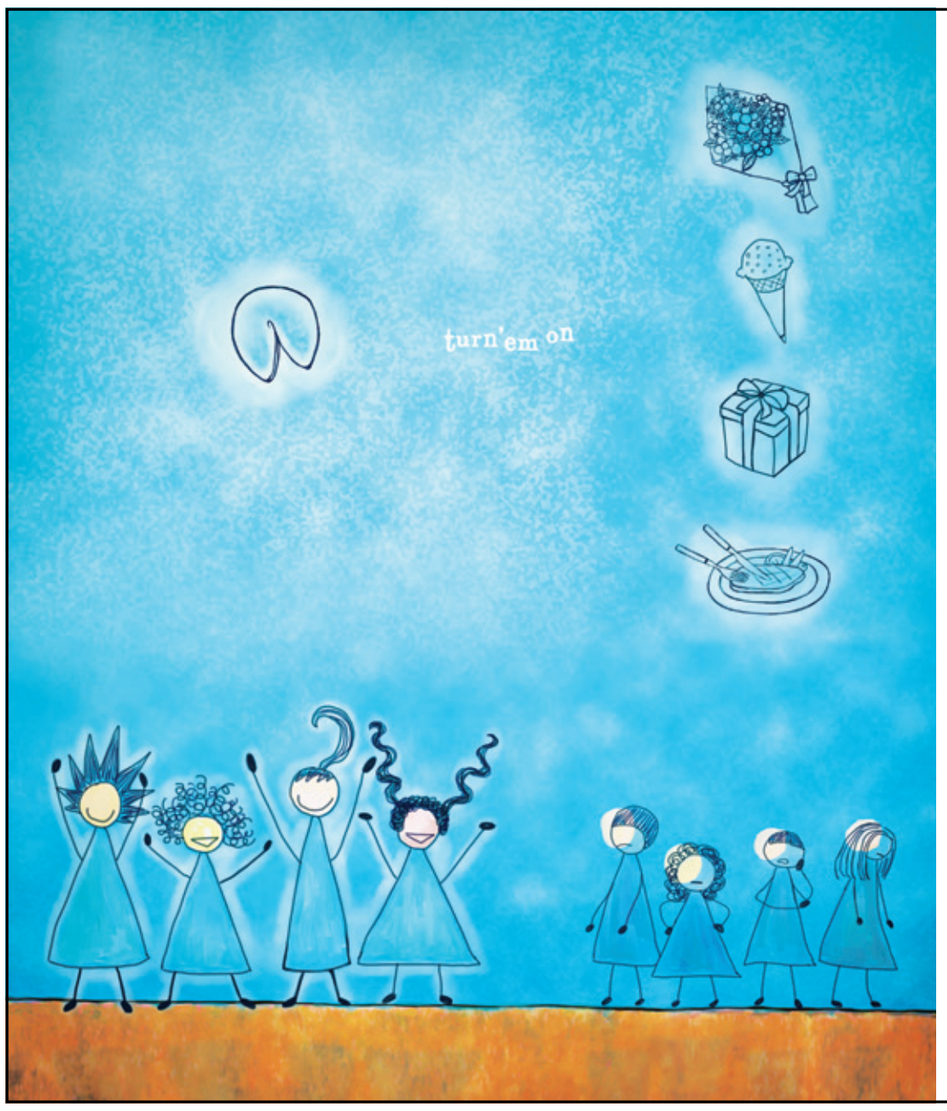
큰스님: 지금 그렇게 물으셨는데 내가 볼 때는요, 토굴이나 암자나 뭐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정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자리도 토굴이에요. 우주 이 자리도 토굴인데 하물며 그 마음을 고렇게 작게 해서 되겠습니까? 모두 정진을 하려면 내 내면의 곳처를, 즉 말하자면 내면 집을 내 집으로 삼고 정진하세요. 이 몸뚱이가 집이라면 그 속에서 나를 끌고 다니는 그놈을 주인으로 삼고 정진하시라고요. 그러시면 뭐 따로 토굴 찾고 뭐 하고 할 게 없어요.

질문자2(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수행을 한다면 이렇게 꼭 선방이나 스님들의 지도하에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수행을 해도 득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큰스님: 예.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1994년 11월 13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What is Buddha Cookie!!

법 法 과 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 (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 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 세상보기

사찰 인근 개발관행의 고리를 끊어라



이병인
부산대 바이오환경 에너지학과 교수

지난 20여 년간 100여 건에 이르는 크고 작은 사찰환경문제가 발생돼 왔다. 그 과정에서 개별사찰차원 그리고 불교계차원에서 지역 및 중앙의 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해 사찰환경과 지역환경을 온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안타깝게도 타고 남은 불씨에 다시 불이 붙듯이 최근 봉암사 등 몇몇 사찰에서 사찰주위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깊고 깊은 산중 사찰인 봉암사로부터 서울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봉은사 주변 고층 건물 건립에 이르기까지 산중과 도심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사찰들이 도처에서 개발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봉암사(鳳巖寺)는 한국불교의 상징적인 선방사찰로 1980년대 이후 산문폐쇄를 통해 선수행의 전통을 확립하고, 자연환경을 보존시킨 대표적인 사찰이다. 백두대간의 상징적인 중심축에 위치해 한국불교의 수행전통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자연생태계 근간으로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2000년을 전후해 문경완장 스키리조트 건설사업이 추진되는 등 문제가 많았던 곳이기도 하다.

그 당시 관련 지자체와 주지스님, 종단의 관련전문가들이 모여 봉암사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찰의 수행환경보존을 위한 적절한 완충지역의 확보 및 자발적인 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봉암사는 2002년 1월 백두대간과 희귀식물자생지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막기 위해 사유지였던 대부분의 사찰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대부분의 보호지역들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요구에 의해 지정되지만, 봉암사 지역의 경우에는 수행환경보존과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사찰 측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한 보호지역 지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행정을 총괄하는 주무부서인 산림청은 이와 같은 중요성과 가치를 전혀 무시한 채, 봉암사 인근지역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광산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내주었다.

이같은 사실은 산림청의 존재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의식 없는 탁상행정일 수 밖에 없다. 사찰이 앞장서서 스스로 산을 지키고 보존해 나가겠다는 데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개발을 촉진시키는 일을 정부부서가 앞장서서 조장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선은 결자해지라고 산림청은 광산허가를 철회하고, 봉암사지역을 봉암사지역답게 지켜가려는 제반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보존위주로 지켜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 강남의 중심사찰인 봉은사(奉恩寺)의 경우에도 참 갑갑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전통사찰 봉은사의 사찰환경보존 및 경관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완충지역으로서 층고제한 등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도 없이 다시 무제한의 개발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종교적 성지로서 뿐만이 아니라, 수도 서울의 마지막 보루인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마구잡이식의 무분별한 개발이 한 번도 아니고,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왜 계속되고 있는가에 대해 근원적으로 점검해 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사찰환경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사찰환경문제들이 계속되는 일차적인 원인은 사찰을 포함한 불교계 내부의 의식과 의지의 문제이고, 사찰환경을 삼세의 유산자원으로 온전하게 지켜가야 한다는 불교계 내부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목전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발관행과 정책당국의 무관심과 의식부재 그리고 묵인과 무시 등이 그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이제는 사찰환경보존을 위한 명확한 의식을 갖고, 사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찰환경의 보존문제가 이제는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불교계와 사찰만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삼세(三世)의 유산자원(遺産資源)을 지켜가는 소중한 일임을 정부와 전문가그룹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를 당당하게 알리고 요구해야 한다. 특히 불교가 이익단체로 오인되는 걸 피하고자 한다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사회적 공익과 복지를 위한 실천적 활동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한국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삼세의 유산자원으로 고이 지켜가겠다는 불교계의 의식전환과 지속적인 실천 활동이 선행돼야 한다. 사찰환경을 과거로부터 온전하게 물려받았듯이 말이다.

사부대중 칼럼

흔들리지 않는 삶이 있으랴



김동수
시인 · 백제예술대학 교수

며칠 전이었다. 책을 읽다가 하도 마음에 와 닿는 문구가 있어 이를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컵에 담긴 물은 소금 한 숟갈을 넣으면 짠맛이 납니다. 그러나 그 소금을 호수에 넣는다고 물맛이 짜게 변하진 않습니다. 그냥 호수 그대로지요. 당신의 마음이 하늘처럼 넓고 바다같이 광대할 때 평화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라는 구절이었다.

그랬더니 누군가 바로 댓글을 달았다.

"돌멩이를 던진들 꿈쩍할까요? 그릇이 바다와 같을진대…, 하지만 제 마음은 컵에 담긴 물이랍니다. 오늘도 찰랑찰랑 흔들리고 있습니다"라고, 옳은 말이다.

누구인들 흔들리지 않는 삶이 어디 있으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수행을 많이 한 성직자나 고승이라 할지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흔들리고 부대끼며 번뇌 · 망상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게 범부들의 삶이 아닐까 한다.

그래서인지 시인 도종환도 '흔들리며 피는 꽃'에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문제는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흔들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효범 스님은 그것을 '물동이 속의 바가지' 에 비유한 바 있다.

어린 시절 우리의 어머니나 누나들이 우물에서 물동이에 물을 길어 머리에 이고 올 때, 물동이 속의 물이 출렁거려 이마에 쏟아지곤 하였다. 그럴 때마다 물동이 속에 바가지를 하나 엎어놓아 물의 흔들림을 바로 잡았던 기억이 있다. 바가지가 출렁이는 물의 구심점이 되어 흔들림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다.

몇 년 전으로 기억이 된다. 태풍이 일본열도를 몰아칠 때, 일본에서는 새로운 건축법이 소개되어 뉴스를 장식한 일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건축법이었다. 일본은 지진으로 해마다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많아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이것이 언제나 그들의 큰 관심사였다.

처음에는 철근 콘크리트 내진벽으로 건물을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고정 하중법' 을 썼다고 한다. 그래도 손실을 줄일 수가 없어 그 뒤에 나온 것이 '적재 하중법' 이다. 그것은 건축물 안에 있는 사람이나, 각종 물건의 무게를 잘 받쳐주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등장한 건축법이 이른 바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동하중법' 이란 것이다.

이는 건축물에 가해지는 각종 외부의 충격을 흔들림 속에서도 스스로 흡수해 건축물을 끝까지 잘 견디게 하는 건축법이다. 흔들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것이 바로 '물동이 속의 바가지 공법' 인 셈이다.

정중동(靜中動)이 아니라 나긋나긋 흔들려 곧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동중정(動中靜)의 삶의 방식인 것이다.

불가(佛家)에서도 이와 같은 동중정(動中靜)의 삶의 방식이 있다. 외부의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아, 명경지수와 같이 맑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평상심(平常心)이 그것이다. 평상심의 평(平)은 너와 나, 주(主)와 객(客)의 차별이 없는 공간적 평등이요, 상(常)은 고금(古今)과 유무(有無)의 변환에도 흔들리지 않는 시간적 평등의 경지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흔들림에도 물들지 않아 고요하고 맑은 마음의 상태가 유지될 때 비로소 평상심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어제도 오늘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평등하고, 밝음과 어둠도 결국 마음 하나에서 비롯된 일시적 과정일 뿐이라는 인식이 그것이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마음의 흐름과 근원을 깨달아 아상(我相)을 비우고 감각에서 벗어나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면, 그게 바로 흔들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수처작주(隨處作主)의 자기 주도적 삶이요,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한다.

社說

자성 · 쇄신은 중앙종회부터

조계종이 추진하는 자성과 쇄신 5대 결사에 불자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다. 사정이 이러하자 총무원의 움직임이 더욱 더 분주해졌다. 11월 7일 문경 봉암사에서는 종단 원로 · 중진스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결사추진본부 자문위원회의를 열었다. 자리에서 스님들은 모임을 정례화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솔선수범키로 결의했다고 한다. 다행스럽게도 선원 수좌스님 등 많은 스님들이 결사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보태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조계종 집행부에 대한 종단 구성원의 불신이 그것이다. 불신은 집행부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퇴휴 스님 등 재야에서 지적되는 측근 중심의 인사와 계파 나눠먹기가 그 원인이다. 집행부를 견제해야할 중앙종회가 무력화됐다는 지적 또한 흘릴 수 없다.

당장 제188회 정기종회에서 총무원 예산안 심의를 두고 단 한건의 질의를 끝으로 만장일치 통과된 것은 무엇이라 설명할 텐가. 국민으로부터 비난 · 조롱 받는 국회도 나랏돈의 씀씀이를 정하는 예산안 심의만큼은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종책질의를 문제 삼아 종회의원을 폭행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그런데도 종회의원스님들은 해당의원의 일정기간 종회 출석 제한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불자들이 조계종에 거는 희망은 크다. 부디 스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솔선수범해 본분사(本分事)를 지키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포교에 필요한 것은 종책이다

조계종 포교원이 〈포교총람〉을 펴냈다. 책에는 근대기부터 제5대 포교원장 혜총 스님에 이르기까지 종단 포교의 흐름과 현황, 각종 자료를 정리해 놓았다. 책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포교원의 역대 원장스님들의 포교지향과 중점과제, 사업 등을 각 시대별로 서술해 놓은 포교원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교총람〉 발간이 그리 달갑지 만은 않은 것은 정작 필요한 종책 마련은 차치하고 치적정리에 우선했기 때문이다.

과거를 온전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미래를 치밀하게 계획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포교현장에서는 자비심만으로 심신의 고통을 감내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 이들이 원하는 것은 〈포교총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런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이 '신도단체 재등록 사업' 을 통해 '대한불교조계종 000' 으로 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정체성 확립과 포교역량 결집이라는 사업 명분은 차치해도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조계종이 주최 ·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회장 등 단체장 임명권도 당연직 총재인 조계종 포교원장이 갖는 부작용(?)은 무엇으로 해명할 텐가. 포교현장에서 땀 흘려 봉사해 온 이들로서는 식은 땀 흘릴 일이 아닐 수 없다.

〈포교총람〉을 보면 조계종 포교원은 그동안 많은 일을 했다. 이왕 펴낸 것 없는 것보다 낫다고 치자.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업적이 '신도단체 재등록 사업' 의 실패로 인해 그나마도 "왕년에는~"이란 수식어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현대불교 홈페이지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어떠한 법당에도 웅장하고, 깨끗한 소리를 보장 해 주는 고급 음향설비 SYSTEM…

YK-308 씨리즈 (10평 ~ 50평 법당용)

가격 : ₩ 2,470,000원



YK-308 씨리즈 구성도

품 명	모델, 규격		수량	품 명	모델, 규격	수량
①스피커	YM-520	200W	1조	⑦핸드마이크	V-606LC	1개
②메인엠프	300 AN	300W	1대	⑧마이크믹서	5CH용	1개
③CD 플레이어	ICDC-8305	CD5개入	1대	⑨마이크스텐드	사회자용 고급	1개
④더블카셋트	IDD-8302	고속복사	1대	⑩고급마이크선	214S SOULFUL	
⑤무선핀마이크	P-201+헤드셋		1set	⑪고급 스피커선	무손실선 50×2C	
⑥스텐드마이크	DX-707		1대			

• 설치비 포함 : 2,47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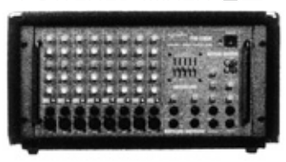
※ 외부 고급 스피커 추가 설치시 1개당 150,000원 추가됩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12월 31일까지 YK-308 씨리즈를 설치하는 사찰에는 무선 마이크를 무료 보시 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POWERED MIXER 앰프



PM-805



스테레오 앰프 300AN



• 高音質 무선마이크



마이크 스텐드

DX-707 스텐드 마이크 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 500,000원

• 일반 마이크 V-606LC



◇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 가격 : 135,000원(일반형)
◇ 가격 :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선학원은 일제 불교정책 반대 위한 위장명칭이었다

일제하에서 한국불교를 지켜온 선학원(禪學院)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무심코 쓰는 일본어가 상당히 많다. 배워서 쓰는 것도 있지만 일상에 파고들어와 무의식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많다. 40여 년에 이르는 일제강점기의 영향이다. 요즘도 8·15 광복절이 되면 특집으로 방영되는 다양한 식민지 모습에서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불행한 과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한국 역사에서 일제강점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있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 현재 진행형이다.

일제강점기 모든 분야가 그들의 통제를 받았던 것처럼 불교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오히려 불교는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신앙하던 종교였기 때문에 일제가 한국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용했다. 합방 이후에는 한국불교를 통제해 식민지정책에 활용했다. 이때 들어온 일본불교는 한국불교의 전통을 변질시키는 원인이 됐다. 그런 통제와 변질 속에서 드러내놓고 저항할 수 없어도 묵묵히 자신의 수행을 지킴으로써 전통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것이 선학원이다.

지금 서울 강북은 북촌이 유행이다. 강남의 화려한 분위기와 달리 전통가옥과 어린 시절 살아봄직한 골목길이 뜨고 있다. 선학원은 그 북촌 가운데 있다. 안국역 1번 출구로 나와 북쪽으로 가다보면 덕성여고 옆으로 사찰이 나온다. 중앙선원이란 현판이 붙어 있어 선을 수행하던 곳임을 알 수 있다. 이곳은 원래 1910년 설립된 원종이 일본 조동종과 어이없는 맹약을 체결하자 이에 반대해 생긴 임제종의 서울 포교당이었다. 1912년 임제종 사무소가 범어사로 옮기면서 동래 초량 대구 서울 등 네 곳에 임제종 포교당을 세웠다. 1912년 6월 총독부에 의해 원종과 임제종이 해체되면서 범어사 서울 포교당으로 사용됐다. 그 후 1921년 선학원이 설립되면서 일제에 저항하는 중심지가 된 것이다.

1910년 8월 강제로 합방한 일제는 불교를 식민지 통치에 이용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했다. 그것이 1911년 6월 3일 제령 7호의 사찰령이다. 이후 총독부는 7월 8일 전문 8조로 된 사찰령시행규칙이 제정돼 그해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시행규칙에 의해 한국불교를 30본산으로 구분했다. 이때 정해진 30본산의 주지는 총독의 승인을 얻어서 취임하며 본말사법에 의해 각 말사를 관할하도록 됐다. 이 법령으로 인해 일제는 사찰의 억압 폐합 이전 재정의 처분 등 각가지 규제로 한국불교를 통제할 수 있었다.

총독부가 사찰령 다음으로 제정한 법령은 1915년 8월 16일부터 시행된 총독부령 제83호의 포교규칙이다. 전문 19조로 된 이 법령은 신도, 불교, 기독교 등 주요 종교에 대한 포교를 간섭했다. 이로 인해 포교하는 사람과 건물은 일제의 허락을 얻어야만 활동과 활용이 가능했다.

일제의 이런 통제로 한국불교의 전통의례는 점점 축소되거나 폐지됐다. 그 자리를 일본불교 의례가 들어오면서 전에 없던 행사들이 나타나게 됐다. 이런 분위기 탓에 한국불교의 종지와 종풍을 유지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다. 자연히 각 본산에 있던 선원이 폐지되면서 선풍이 쇠락해졌다. 1913년 30본산 연합회에서 조사한 각 본말사의 선원은 고작 72개로 이 숫자는 일제 말기까지 별다른 증가없이 계속됐다.



선학원 설립을 주도한 만공 스님



1941년 개최된 고승수양법회(유교법회) /사진제공=민족사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의식 있는 불교인들이 1921년 11월 불조(佛祖)의 정맥(正脈)을 계승한다는 취지아래 선종의 중앙기관을 설립했다. 처음부터 일제의 불교정책에 반대해 이름도 ○○寺 대신 선학원이라는 위장 칭호를 썼다. 민족적 성향이 강한 인물들이 참여한 관계로 활동 역시 민족불교의 이념을 계승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선학원이 창설 직후 실행한 것은 선풍의 진작과 전국 수좌들의 수행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선우공제회(禪友公濟會) 조직이었다. 공제회는 본부를 선학원에 두고 중앙조직과 지방 선원을 예하 조직으로 해 각종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선원을 건립해 수행납자들의 수행 여건이 좋아지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당시 선학원에 등록된 선원은 지부로서 지켜야할 규칙이 있었으며, 수행자들은 회원으로 등록하고 회원증을 발부받았다. 선학원은 법회를 개최해 수선(修禪)에 필요한 기본을 교육하는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일제의 비호를 받는 30본산과 달리 재정적 뒷받침이 없던 선우공제회는 의욕과 달리 창설 직후

일제강점기 불교도 식민지 정책에 활용하자
일본불교로부터 한국불교 지켜낸 선학원
만공·혜월·한암 등 선지식들 종정 맡고
'조선불교선종종헌' 등 통한 정체성 확립해

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1926년 5월부터 범어사 포교당으로 변경되면서 침체에 빠졌다.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이 김적음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술을 활용해 1931년 선학원을 재건했다.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해 수좌들은 물론 일반 신도들이 참선할 수 있도록 했다. 그것이 1934년 12월 5일 인가받은 조선불교선리참구원(朝鮮佛教禪理參究院)이다.

법인을 설립한 후 수행자의 단합을 위해 1935년 3월 수좌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 선학원은 한국불교의 구심점이 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다. 먼저 중앙선원 설치 건의안을 교무원에 제출했으며, 선리참구원의 확장과 선종종규의 제정, 기타 각종 규약을 제정했다. 그리고 만공(滿空)·혜월(慧月)·한암(漢岩)을 종정으로 선출해 수행풍토를 강화했다. 또한 한국불교의 선종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수행자의 수행지침이 되는 '조선불교선종종헌'을 마련했다. 이 종헌은 1934년 12월 30일 통과돼 종정의 인가를 받았으며, 1935년 1월 5일 선종의 종헌으로 공포됐다. 이때부터 선학원은 사업집행기관의 성격을 띤 종무원을 두고 전국 선원을 결집하는 중앙선원의 위상을 지닐 수 있었다.

이런 선학원의 활동은 여러 면에서 한국불교를 근대화 시키는데 기여했다. 먼저 기존 불교계와 다른 운영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행정체계를 조직화했다. 당시 선학원의 조직체계는 중앙에 본부를 두고 범어사 직지사 장안사 석왕사 등 20개의 사찰을 지부로 두었다. 그리고 중앙에는 원활한 종무행정과 소기의 목적을 위해 서무부 재무부 수도부 3부를 두었다. 그리고 공제회의 사무에서 회원들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사찰에서 선출된 20명의 평의원 회의에서 결정했다.

다음 주목할 만한 것은 운영에 있어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었다. 당시 선우공제회가 정한 유지방침을 보면 선우(禪友)의 의연금 및 희사금으로 충당하고, 각 지부 선량(禪糧) 가운데 2할과 매년 예산 가운데 잉여금을 저축해 공제회의 기본재산으로 설정해 각 선원을 진흥했다. 또한 공제회 재산의 수지 총액 예산, 결산과 같이 재정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모두 평의원의 1/2 이상 의결로 집행했다.

마지막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지도부를 선발한 점도 선구적인 면이다. 선학원 지도부 교체는 임의적인 변경이 아니라 총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것은 선학원에 동참하는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일로 이 방식에 의해 설립 당시 중추적 역할을 했던 인물들도 자연스럽게 교체됐다.

한국불교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한 선학원이었지만 일제의 강압을 전부 피해가지는 못했다. 1937년 8월 위문금을 납부한 것을 시작으로 전쟁에 출동하는 부대를 송영(送迎)하는 일, 군인가족과 전사자의 위로 등 일제의 의도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모두가 식민지 불교의 한계였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에서도 한국불교 전통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됐다. 선리참구원은 1939년 조선불교선종정기선회를 개최해 금강산 마하연을 모범 선원으로 지정해 처음 불문에 들어오는 수행자를 지도할 것과, 청정비구를 위한 모범 총림으로 지리산 가야산 오대산 금강산 묘향산 등 5개산을 지정하려는 교섭위원을 정했다. 그 외에도 수좌들의 상호친목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선풍의 진작에 힘을 기울였다.

1941년 3월에는 한국불교의 전통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승수양법회를 개최했다. 이 법회는 당시의 고승 대부분이 참가해 선학과 계율의 종지를 지키기 위한 설법을 했다. 고승수양법회 이후 선학원은 불교계에 지계와 수행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행단(梵行團)을 조직했다. 여기에 참여한 수행자는 선학과 계율의 종지를 실천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일제 치하 한국불교 전통을 지키려는 의도가 강할 수밖에 없었다.



김경집/진각대 교수

조계종 5대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5년간의 임기를 마치며 펴낸 밝고 따스한 법문집

공양 올리는 마음



혜총 지음 | 344면 |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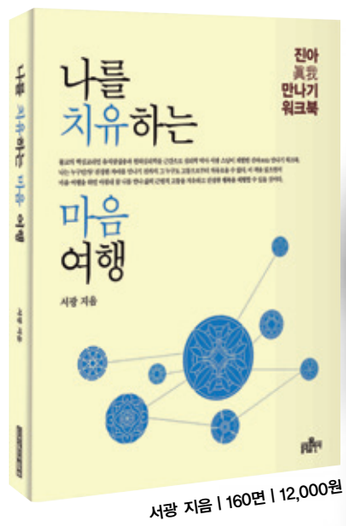


법정 스님은 왜 혜총 스님을
복 받을 스님이라 하셨을까?

독자에게 조근조근 이야기 해 주시는 듯한 **법문의 재미와 감동.**
다양하고 **풍부한 예화 속에서 건진 깨달음**은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스님을 닮고 싶고, 스님 말씀대로 실천한다면 이 몸 그대로 **부처가 될 것 같은 책**이다.

진아眞我 만나기 워크북

나를 치유하는 마음여행



서광 지음 | 160면 | 12,000원



불교의 핵심교리인 **유식 30송**과 **현대심리학**을
토대로 개발한 **진아** 만나기 프로그램 **워크북**
경향, 내일신문 등 언론사 집중 조명!

불광출판사 Tel. (02) 420-3200 Fax. (02) 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 www.facebook.com / bulkwang